

2021

정책연구 2021-21

청년창업농 영농실태와 정착지원 개선방안 연구

연구진 배균기 · 조원지 · 이병훈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1-21

청년창업농 영농실태와 정착지원 개선방안 연구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 책임 배균기 | 부연구위원 | 연구총괄, 제1장, 2장, 3장 3절,
4장 2·3절, 5장
공동 연구 조원지 | 부연구위원 | 제4장 2절 일부, 5장 3절 일부
이병훈 | 전문연구원 | 제2장 2절, 3장 1·2절, 4장 1절

자문위원 김중기 |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교수
엄지범 | 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장민기 | 농정연구센터 소장

연구관리 코드 : 21JU2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요약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생산을 담당하고, 농촌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인력확보 대책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청년창업농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년층의 영농활동과 정착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 이 연구는 도내 청년창업농의 영농과 정착 실태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유입과 정착에 필요한 지역농업 차원의 종합적인 육성 방향과 추진전략, 중점과제 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의 주요내용은 크게 ①청년창업농 연구·정책, ②전라북도 청년창업농 현황, ③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실태, ④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육성 방안 등으로 구성하였음

□ 청년창업농 연구 및 정책 현황

- 청년창업농 관련 연구는 청년층의 유입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창업농 육성 정책의 지원체계 구축 및 개선방안, 지역여건을 고려한 정착 및 창업 지원방안 등을 목적으로 진행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
 - 이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①정책체계 및 개선방안, ②지역 실태조사 및 정착지원, ③창업지원 및 농지확보’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정부는 청년창업농 육성 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별도의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임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에서 5대 정책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에 대한 20대 중점과제, 270개 세부과제 설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8~2022)’에서 청년창업농 1만명 육성을 목표로 ‘진입, 정착, 성장, 지원체계’를 구분한 육성 계획을 발표
 -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을 통해 청년 귀농창업 1만 가구 육성, 농가소득 향상, 지역주민간 상생협력 등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

- 대표적인 정책사업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만40세 미만 청년후계농을 선정하여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8~2021년 동안 총 6,600명이 선발됨
 - 청년창업농 선정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독립경영에 비해 예정자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2021년 67.6% 수준이었음
 - 남성(81.7%), 비농업계 졸업생(70.5%), 귀농(70.9%), 부모와는 별도로 영농기반을 마련하는 인원(44.2%)의 비중이 높았음
 - 목표영농계획에 따른 주 생산 품목은 채소(26.1%)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과수(15.5%), 축산(13.3%), 식량작물(9.7%), 특용작물(7.0%) 순임
 - 2018~2020년 선정자들의 영농정착률은 91.3~91.4%로 높은 수준을 보임
- 우리보다 먼저 청년창업농을 집중 육성해온 일본의 정책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①원만한 경영승계, ②농업교육의 충실, ③신규 취농과 정착 촉진’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었음
 - 지원사업의 경우 취농상담, 연수제도, 연수·영농·고용비용 지원, 연수수입 농가 지원, 농지·주택 취득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유형화하고 있음
 - 승계와 신규취농 대책 중심의 투트랙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신규 취농 전 대책으로 농업교육연수와 취농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 최근 신규자영농취농자가 정체되는 한편 고용취농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고용형 농업경영을 촉진하는 정책이 확대 추진되고 있음
 - 청년농업인 전담조직으로 ‘후계인력육성센터’를 각 지역에 설치하여 관련 정책의 총괄집행과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추진하도록 지원함

□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지원현황

- 도내 청년농업인(45세 이하 농가경영주)은 2020년 기준 3,316명(도내의 3.6%)으로 전국의 10.6% 비중을 차지함
 - 2015년 대비 23.3% 감소하였으며, 40·50대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큼
 - 0.1~1.0ha 경작농가가 57.2%를 차지하며, 논벼(42.4%), 채소·산나물(14.4%), 축산(11.4%) 순으로 '15년 대비 약용과 화초·관상이 각각 77.2%, 35.1% 감소
 - 전업이 44.8%, 겸업은 55.2%로 '15년 대비 35.3% 감소하였으며, 영농경력은 5~10년(28.0%), 5년 미만(27.2%), 10~15년(23.3%) 순임
 - 농축산물 판매금액 120~1천만원인 청년농업인이 32.6%로 가장 많고, 2

- 역원 이상 고수의 농가는 4.5%이나 '15년 대비 26.3% 증가
- 전체 귀농·귀촌인 중 청년은 귀농인 14.7%, 귀촌인 3.1%를 차지하며, '15년 대비 귀농인은 39.6%, 귀촌인은 26.1% 증가(전국보다 높은 증가율)
- 2019년 10월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10월에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증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음
 - 2024년까지 정예 청년농업인 2,500명 육성을 목표로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5대 추진전략, 14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함
 - 2020년부터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별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40~44세를 선정해 2년간 매월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20년 49명, '21년 50명)
- 도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는 1,093명(전국의 16.7%)으로 30대(56.2%), 농업계학교(70.2%), 귀농(70.5%)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임
 - 부모의 기반 외에 별도로 영농기반을 마련하는 경우가 52.8%로 가장 많음
 - 예정자가 53.0%로 가장 많고, 지역별 비중이 증가하는 지역은 군산·김제·남원·부안·장수 등으로 나머지는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목표영농계획은 채소(21.8%), 식량작물(19.7%), 기타(17.3%), 축산(14.6%) 순임
 - 연계사업 신청인원은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지원사업 57.9%, 후계농자급 71.4%, 선도농가 실습지원 39.4%, 농업법인 인턴제 31.1%로 파악됨
 - 미개시자는 93명이었으며, 자격취소 5명, 포기는 73명으로 주요 사유는 취업 및 타 업종 종사, 영농영위 불가(부채), 영농지 이탈, 사망 등이었음

□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실태조사

- 도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18~'21년) 선정자 957명을 대상으로 영농정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응답률 38.7%)
 - '비승계농'과 '승계농'은 각각 54.9%, 45.1%로 비슷한 수준이며, 영농경험도 '없음'이 47.7%, '있음'이 52.3%로 파악됨
 - 경영체등록은 개인이 95.9%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독립경영은 1년차가 30.5%, 2년차가 28.8%를 차지하며, 비전공자가 74.8%로 조사됨
- 준비 및 진입 과정
 - 창농의 주요 동기는 '농업의 비전과 매력'이 34.9%로 가장 많고, 지역 선택 이유는 '고향 및 연고지'가 54.9%로 과반을 차지함

- 농업창업 직전 직업으로는 판매서비스(21.8%), 사무관리(21.3%)의 비중이 높고, 창업 준비기간은 1~2년 미만(46.9%)이 가장 많았음
- 농업창업 시 애로사항은 자금확보(31.4%), 농지확보(27.9%), 농지 외 기반 마련(17.1%) 순이었음

○ 영농 및 정착 현황

- 주요 재배 품목은 채소·과채(시설 21.6%, 노지 6.8%), 벼(23.5%), 식량작물(17.6%), 한우(9.7%), 과수(9.2%) 순이었음
- 평균 재배면적은 선정당시 1,663평에서 2020년 4,783.6평으로 약 2.9배 상승하였으며, 소유면적은 665.8평에서 1,602.7평으로 약 2.4배 상승함
- 비승계농의 전체면적 증가율은 승계농에 비해 높았으나 소유면적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음
- 평균 농가소득은 선정당시 2,232만원에서 2021년 3,400만원으로 11.3% 증가하였으며, 농업소득은 약 1.8배 증가한 반면 농외소득은 34.1% 감소
- 비승계농의 전체면적 증가율 대비 농업소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
- 영농규모는 확대(73.3%), 유지(19.1%), 미결정(5.4%), 축소(1.1%) 순임
- 영농정착과정에서 느낀 전반적인 어려움 정도는 5.07(7점 척도) 수준이며, 항목별로는 영농기반확보(5.92), 자금확보(5.87), 인력확보(5.56) 순이었음
- 모든 유형에서 영농기반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30대(6.07), 비승계(6.04), 자녀있음(5.96), 영농경험 없음(6.07)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은 보통(4.26)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며, 농업 외 일자리·일거리(3.27), 경제수준(3.51), 문화·여가(3.51), 자녀 양육·교육(3.58), 의료·복지, 사생활보장·안전, 교통여건 순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정책 평가 및 수요

- 월 평균 소비지출에서 영농정착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55.1%이며, 20대(61.8%), 30대(53.4), 40대(53.3) 순으로 높았음
- 영농계획에 맞게 실행계획(4.89), 교육지원이 영농에 도움(4.67), 다른 농림사업 선정에 도움(4.27) 정도는 보통수준으로 평가함
- 반면에 다른 생산자조직 참여(4.15)와 다른 지역사회 참여(3.84) 증가 정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정조직 지원체계(3.94), 유관기관 협력·지원(3.81)는 비교적 낮게 평가함
-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해 연계가 필요한 영역은 첨단농업(19.0%), 농식품가공(14.3%), 일자리창출(13.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면접조사

- 청년창업농의 집입과정과 영농정착 실태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면접조사 추가로 진행하였음(창업농 특성을 고려, 도내 16명 조사)
- 준비 및 진입 과정
 - 관련 제도·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인터넷·지인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부모·환경 등 영향이 크게 작용
 - 정착지의 주 생산 작목이나 연중생산이 가능한 고소득 작목을 선택하고 있으며, 영농계획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어 어려움을 겪음
 - 대부분 용자지원을 통해 영농기반을 마련, 개인조건에 따라 어려움 발생
- 영농정착 과정
 - 가장 큰 애로사항은 농지구입으로 지가상승, 농지은행 이용의 어려움 호소
 - 교육 프로그램은 이론보다는 실용성과 시장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선호하며, 자신의 영농활동을 고려한 멘토링과 선도농가실습 지원을 요구
 - 지역마다 담당부서와 관리·지원 내용이 상이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연속성이 저해되며, 농림사업 우선지원에 대한 현실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경영현황
 - 인건비 상승, 용자상환, 영농확대에 따른 지원규모의 한계 등 어려움 호소
 - 인터넷 쇼핑몰과 SNS 등을 활용한 판로개척 등에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
 - 연령이 낮거나 부모공동경영의 경우 생산자조직 참여·활동이 미진한 편임
 - 농외소득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영농 외 활동 제한으로 기회가 한정적임
- 농촌생활
 - 정주여건 등에 대한 불만은 적은 편이지만, 문화·의료·교육 등의 부족한 인프라와 생활서비스에 장기 대책 마련 필요(특히 육아·교육 문제 취약)
 -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거나 인정받기 어렵지만 영농활동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
 - 4-H 중심으로 커뮤니티와 네트워킹이 이뤄지고 있으며, 청년대상 다양한 워크숍·간담회 등이 추진되지만 홍보와 이미지화 소모에 대한 우려도 존재
- 정책수요
 - 창업농/후계농, 승계농/비승계농 등 지원대상 차이를 고려한 정책 요구
 - 물가수준과 영농계획을 고려한 용자 지원과 거치·상환 기간의 연장 필요

- 장기적인 접근과 지원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정책사업 대상선정에 대한 강화, 창농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경영안정성 제고 방안 등 요청

□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실태결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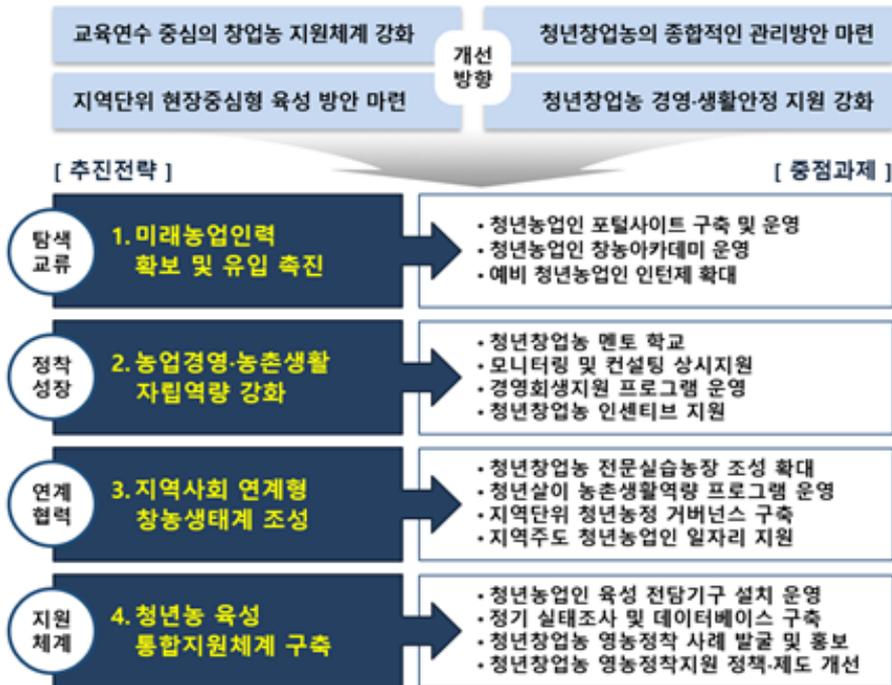
- 첫째, 다양한 동기와 사회경험을 가진 청년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의 시각과 수요를 고려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개선이 요구됨
- 둘째, 승계농과 비승계농의 차이가 확연하며, 비승계농이 영농기반 등 대부분 항목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세밀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
- 셋째,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정책사업은 진입초기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용자지원과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에 집중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넷째, 청년창업농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과 농촌사회 정착을 필요한 생활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됨
- 다섯째, 지역사회와 관계형성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단절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 접근방식의 개선이 요구됨
- 여섯째, 창농 이전과 이후까지 책임지는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육성 방안

- 정책의 개선방향
 - 첫째, '교육연수 중심의 창업농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현장에 밀착하여 문제를 개선하고 영농정착의 질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
 - 둘째, '청년창업농의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선형적 실습과정을 통해 영농계획의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함
 - 셋째, '지역단위 현장중심형 육성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지역농업을 혁신해가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조됨
 - 넷째, '청년창업농 경영·생활안정 지원 강화'을 위해 경영안정성과 농촌생활 정착에 필요한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재정비해야함
- 추진전략1. 미래농업인력 확보 및 유입 촉진 (탐색·교류)
 - 정책·제도의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지역농업 홍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 수립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고용형 취농기회를 제공, 지역사회 정착과 영농과정에 대한 리스크를 경감
- 추진전략2. 농업경영·농촌생활 자립역량 강화 (정착·성장)
- 지속적인 학습과 상호작용을 위해 지역단위 지원체계와 네트워크를 강화
 - 영농계획 실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시컨설팅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경영회생을 위한 구제대책을 마련하고, 성실히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추진전략3. 지역사회 연계형 창농생태계 조성 (연계·협력)
- 지역사회와 연계해 전문적인 실습농장을 조성하고, 장기 연수과정을 운영
 -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지역농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당사자성을 제고
 - 농업·농촌분야에 특화된 지역주도형 일자리 발굴 및 연계 활성화 추진
- 추진전략4. 청년농 육성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체계)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담기구인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 청년농업인 실태조사의 정례화 및 통합DB 구축, 다양한 사례 발굴·확산
 - 정책·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해갈 수 있는 환경 조성

〈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육성 방안 〉



■ 목 차 | Contents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
제2장 청년창업농 연구 및 정책	9
제1절 청년창업농 관련 선행연구 검토	11
제2절 청년창업농 관련 정책 및 제도	14
제3절 청년후계농 지원정책 추진현황	19
제4절 일본 청년농업인 지원정책 사례	25
제3장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현황	33
제1절 청년농업인 현황	35
제2절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43
제3절 청년창업농 지원 현황	48
제4장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실태	59
제1절 청년창업농 실태조사	61
제2절 청년창업농 면접조사	90
제3절 조사결과 종합	103
제5장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육성 방안	109
제1절 정 책 방 향	111
제2절 추 진 전 략	113
제3절 증 점 과 제	117
• 참고문헌	133
• 부 록	137

표목차 | Contents

- 〈표 1-1〉 전라북도 농가경영주 변화 3

- 〈표 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 청년농 관련 사업 15
- 〈표 2-2〉 광역시도 청년농 관련 정책 및 제도(2020년) 18
- 〈표 2-3〉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급기준 20
- 〈표 2-4〉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의무사항 20
- 〈표 2-5〉 전국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22
- 〈표 2-6〉 청년창업농 선정자 특성 23
- 〈표 2-7〉 청년창업농 선정자의 주 생산품목 24
- 〈표 2-8〉 청년창업농 영농정착률 24

- 〈표 3-1〉 전국 시도별 청년농 현황 35
- 〈표 3-2〉 전라북도 연령별 농가수 현황 36
- 〈표 3-3〉 전라북도 성별 청년농 현황(2020년) 36
- 〈표 3-4〉 전라북도 농지규모별 청년농 현황(2020년) 37
- 〈표 3-5〉 전라북도 경영형태별 청년농 현황(2020년) 38
- 〈표 3-6〉 전라북도 전점업별 청년농 현황(2020년) 38
- 〈표 3-7〉 전라북도 영농경력별 청년농 현황(2020년) 39
- 〈표 3-8〉 전라북도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청년농 현황(2020년) 40
- 〈표 3-9〉 청년 귀농·귀촌인 현황('15/'20) 40
- 〈표 3-10〉 시도별 청년귀농인 현황 41
- 〈표 3-11〉 전라북도 청년귀농인 현황(2020년) 41
- 〈표 3-12〉 시도별 청년귀촌인 현황 42
- 〈표 3-13〉 전라북도 청년귀촌인 현황(2020년) 42
- 〈표 3-14〉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주요 내용 43
- 〈표 3-15〉 전국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48

〈표 3-16〉 전라북도 일반후계농업인 선발내역	48
〈표 3-17〉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선발자의 특성	49
〈표 3-18〉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선발자의 영농경력별 현황	50
〈표 3-19〉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선발자의 연차별 현황	51
〈표 3-20〉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선발자의 연령대 현황	51
〈표 3-21〉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선발자의 영농경력·귀농여부 현황	52
〈표 3-22〉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선발자의 목표영농계획 현황	53
〈표 3-23〉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선발자의 영농경력별 목표영농계획	55
〈표 3-24〉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선발자의 농지은행 농지지원 신청현황	55
〈표 3-25〉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선발자의 영농기반별 농지은행 농지지원 신청현황 ..	56
〈표 3-26〉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선발자의 연차별 농지은행 농지지원 신청현황	57
〈표 3-27〉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선발자의 영농경력별 연계사업 신청현황	57
〈표 3-28〉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선발자의 영농기반별 연계사업 신청현황	58
〈표 4-1〉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실태조사 설문항목 및 세부내용	62
〈표 4-2〉 청년창업농 실태조사 응답자의 일반현황	63
〈표 4-3〉 청년창업농 실태조사 응답자의 영농현황	64
〈표 4-4〉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주요 재배 품목	66
〈표 4-5〉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시설 보유현황	66
〈표 4-6〉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장비 보유현황	67
〈표 4-7〉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승계여부별 농지면적 변화	68
〈표 4-8〉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연령별 농지면적 변화	69
〈표 4-9〉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승계여부별 농가소득 변화	71
〈표 4-10〉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연령별 농가소득 변화	71
〈표 4-11〉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유형별 영농규모변화 계획	73
〈표 4-12〉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과정의 애로사항	74
〈표 4-13〉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과정의 연령대별 애로사항	74
〈표 4-14〉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과정의 승계여부별 애로사항	75
〈표 4-15〉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과정의 자녀유무별 애로사항	76

〈표 4-16〉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과정의 영농경험유무별 애로사항	77
〈표 4-17〉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유형별 생활수준 만족도	78
〈표 4-18〉 전라북도 청년창업농의 연령대별 생활수준 만족도	79
〈표 4-19〉 전라북도 청년창업농의 승계여부별 생활수준 만족도	80
〈표 4-20〉 전라북도 청년창업농의 자녀유무별 생활수준 만족도	81
〈표 4-21〉 전라북도 청년창업농의 영농경험유무별 생활수준 만족도	81
〈표 4-22〉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유형별 지원사업 및 영농수준 평가	84
〈표 4-23〉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연령대별 지원사업 및 영농수준 평가	84
〈표 4-24〉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승계여부별 지원사업 및 영농수준 평가	85
〈표 4-25〉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자녀유무별 지원사업 및 영농수준 평가	86
〈표 4-26〉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영농경험유무별 지원사업 및 영농수준 평가	86
〈표 4-27〉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농정조직 및 유관기관 만족도	87
〈표 4-28〉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연령대별 농정조직 및 유관기관 만족도	88
〈표 4-29〉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승계여부별 농정조직 및 유관기관 만족도	88
〈표 4-30〉 청년창업농 심층면접조사 주요 내용	90
〈표 4-31〉 청년창업농 심층면접조사 조사대상자 현황	91
〈표 5-1〉 ‘미래농업인력 확보 및 유입 촉진’ 중점과제	114
〈표 5-2〉 ‘농업경영·농촌생활 자립역량 강화’ 중점과제	114
〈표 5-3〉 ‘농업경영·농촌생활 자립역량 강화’ 중점과제	115
〈표 5-4〉 ‘청년농 육성 통합지원체계 구축’ 중점과제	116

■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2-1〉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체계	16
〈그림 2-2〉 청년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체계도	17
〈그림 2-3〉 청년창업형 후계농 지원 흐름도	22
〈그림 3-1〉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체계	44
〈그림 4-1〉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농업창업 동기	64
〈그림 4-2〉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지역선택 이유	64
〈그림 4-3〉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농업창업 직전직업	65
〈그림 4-4〉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농업창업 준비기간	65
〈그림 4-5〉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준비과정의 애로사항	65
〈그림 4-6〉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농지면적 변화	67
〈그림 4-7〉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농가소득 변화	70
〈그림 4-8〉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향후 영농규모 확대 계획	72
〈그림 4-9〉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과정의 애로사항	73
〈그림 4-10〉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생활수준 만족도	78
〈그림 4-11〉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유형별 영농정착지원금 소비지출 비율	83
〈그림 4-12〉 전라북도 청년창업농의 지원사업 및 영농수준 평가	83
〈그림 4-13〉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농정조직 및 유관기관 만족도	87
〈그림 4-14〉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해 연계가 필요한 정책영역	89
〈그림 5-1〉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육성 방안	111

1

장

연구의 개요

Jeonbuk Institute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국내 농업·농촌 여건은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농업생산을 담당하고, 농촌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
- 전라북도는 농가인구 감소와 함께 65세 이상 농업경영주 비율이 58.8%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50대 이하 감소율이 높아 농산업 유지를 위한 인력대책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됨
 - 2020년 기준 도내 농가수는 93,305호, 농가인구는 199,157명으로 2015년 대비 농가수는 7.0%, 농가인구는 12.4% 감소하였으며, 최근 들어 전국 대비 감소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표 1-1〉 전라북도 농가경영주 변화

(단위 : 명, %)

구분	2015		2020		증감률 (‘15/’20)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20대이하	105	0.1	151	0.2	43.8
30대	1,462	1.5	1,284	1.4	-12.2
40대	7,796	7.8	5,789	6.2	-25.7
50대	21,126	21.0	16,622	17.8	-21.3
60대	30,807	30.7	28,974	31.1	-5.9
70대	30,285	30.2	28,525	30.6	-5.8
80대이상	8,781	8.7	11,960	12.8	36.2
합 계	100,362	100.0	93,305	100.0	-7.0

자료 : 농림어업총조사, 각 년도.

- 정부는 농업인력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영농의지와 기본역량을 갖춘 청년후계농을 선발하여 농지·자금·교육 등 영농창업 기반을 지원하고, 기술고도화와 규모화를 통해 전문경영체로 단계별 성장을 유도하는 지원 정책을 시행

○ 전라북도는 지역농업과 농촌사회 유지를 위한 인력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제도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2019.10)과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2020.11)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활동과 농촌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

○ 청년창업농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취농·창업의 지속적인 유입과 전문역량을 갖춘 혁신적인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농업 차원의 종합적인 육성 대책이 요구됨

- 청년창업농의 취농과 창업 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농업 혁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

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도내 청년창업농의 영농과 정착 실태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유입과 정착에 필요한 지역농업 차원의 종합적인 육성 방향과 추진전략, 중점과제 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청년창업농에 대한 영농·정착 실태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유입과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 청년창업농이 지역농업의 혁신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향, 추진전략, 중점과제, 추진체계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연구범위

- 이 연구는 도내 청년창업농의 영농과 정착 실태를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육성 방향과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연구의 주요 대상인 ‘청년창업농’은 큰 틀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포함하며, 주요 정책사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의 대상자로 집중되어 있음
 -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청년농업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도내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따라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기존 후계농업인도 포함
 -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창업농 육성대책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는 40세 미만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등과 관련하여 40세 미만의 ‘청년창업농’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함
 - 다만 도내 청년농업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자료의 분석범위는 관련 법률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만45세 미만으로 설정하였음
 - 내용적 범위로는 청년농업인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도내 청년창업농의 영농 및 정착 실태조사 등을 통한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함
- 2020년 말에 수립된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중장기 종합계획(2020~2024)’을 기준으로 정책의 추진방향을 재정비하고, 개선방안을 제

2. 연구방법

(1) 정보조사 및 분석

- 문헌조사 : 청년창업농 관련 학술연구 및 보고서 등 자료 검토
- 통계분석 : 청년농업인 현황 관련 통계자료 분석(농어업총조사 등)
- 자료 수집 및 분석
 - 정부정책의 주요내용 정리, 지방정부의 정책추진 현황분석
 -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중장기 발전계획 등 정책현황 정리

(2) 설문조사 및 분석

- 조사명 :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실태조사
- 조사대상 : 도내 농림축산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한 모바일·이메일 조사
- 조사내용 : 청년창업농의 영농·생활환경 등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
 - 응답자의 일반현황, 준비 및 진입 과정, 영농 및 정착 현황, 정책 평가 및 수요 등 조사

(3) 심층면접조사 및 분석

- 통계분석과 설문조사에 의한 실태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심층면접 조사 진행
- 청년창업농의 주요 특성인 영농기반(신규/승계), 계열(농업계/비농업계 전공)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심층인터뷰를 진행

(4) 전문가 자문

-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농민정책분과' 위원 자문
 - 관련분야 핵심 관계자가 참여하여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논의
 - 분과회의 및 정책세미나 진행을 통해 정책의 추진현황과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청년창업농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방안 등 도출
- 청년창업농 관련 주요 기관·단체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
 - 청년창업농 관련 선행연구자 및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회의 진행
 - 청년창업농 육성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 등 자문
 - 핵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및 의견수렴 진행

3. 연구의 주요내용

(1) 청년창업농 관련 이론과 정책

- 청년창업농 관련 선행연구와 이론 검토
- 국내 청년창업농 관련 제도와 정책 추진현황
- 일본의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에 대한 검토 등

(2)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현황분석

- 청년농업인 현황 통계분석
 - 만 45세 미만의 농업경영주를 대상으로 통계자료(농림어업총조사, 농림어업조사 등)를 활용하여 도내 청년농업인의 현황 수준을 파악
 - 농가수·인구수 변화추이, 개인특성, 세대구성, 영농현황(영농규모, 영농형태, 경영형태 등), 조직현황 등을 개괄하여 분석
- 청년농업인(창업농) 육성 및 지원 정책
 -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주요 시책 등 검토
 - 주요 정책과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등 파악

(3)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실태분석

-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 통계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 종합논의 및 과제 도출
 -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내 청년창업농의 영농 및 정착(생활)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
 - 주요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관련 정책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청년창업농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4)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육성 방향 및 추진 방안 구상

- 정책방향 : 정부정책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청년창업농 육성 방안 구상
- 추진전략 : 지속가능한 청년창업농 육성과 정착 지원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전략 등 제시
- 중점과제 : 추진전략별 정책과제 설정,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사업 발굴 및 추진체계 등 제시

2

장

청년창업농 연구 및 정책

Jeonbuk Institute

-
1. 청년창업농 관련 선행연구 검토
 2. 청년창업농 관련 정책 및 제도
 3. 청년후계농 지원정책 추진현황
 4. 일본 청년농업인 지원정책 사례

제 2 장 청년창업농 연구 및 정책

제1절 청년창업농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청년농업인 유입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창업농 육성 정책의 지원체계 구축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여건을 고려한 정착 및 창업 지원방안 등을 목적으로 진행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
-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는 주로 ‘①정책체계 및 개선방안, ②지역 실태조사 및 정착지원, ③창업지원 및 농지확보’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1. 정책체계 및 개선방안 연구

- 마상진 외(2017)는 청년 농업인의 정착 실태와 요구에 대하여 진입유형별·단계별로 분석을 실시하고, 기존 창업농 육성체계에 대한 분석 및 관련 사례를 토대로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의 육성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지역 참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창농 단계별·유형별 종합(패키지) 지원을 통한 청년 창업농 생태계 구축을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으로 설정
 - 추진과제로 청년 농업인상 설정, 창업농 육성단계 설정과 사업 체계화, 지역 농업인력육성 계획 수립 및 거버넌스, 원스톱 창농지원조직 운영, 창농 유형별 맞춤형 지원, 청년농 기본생활자금 지원, 청년농 삶의 질 지원, 농업 이미지 제고 및 예비 창농인 저변 확대, 정기 실태조사 등을 제안
 - 창업농 육성단계를 4단계(준비기→창농초기→재구조화기→정착기)로 구분하여 사업을 체계화하였으며, 지역농업과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제시하는 등 정부의 청년창업농 육성 체계 구축에 기반을 제공
- 장민기 외(2020)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추진실태와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영성과 및 저해요인 등을 분석하고, 정책사업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음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충남 8명)에 대하여 심층 면담조사, 종료자(전국 48명)에 대한 면담조사, 설문조사(전국 584명),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
- 주요 개선과제(한계)를 신청자격의 유연한 확대 필요, 다양한 경험·학습과정에 대한 비금전적 지원 부족, 사업규정의 경직성 해소, 독립경영체 성장에 필요한 연계 지원대책 마련, 지자체·지역주민의 역할과 기능 확대 등으로 정리
- 개선방안은 단기적으로 다양한 대상자 확대, 선발단계의 지자체 자율성 확대, 지급 및 의무초치 기준 조정, 사후관리 영역 추가 등 제안
- 중기적으로는 사업이전 단계부터 다양한 탐색과 훈련과정이 이뤄지도록 예비단계를 추가, 다양한 농업모델 실현에 필요한 상담자·멘토·교사의 전후방 배치, 자율학습조직 구성 및 네트워킹 지원, 농업보조사업 연계 조정·재배치 계획 등 제안

2. 지역 실태조사 및 정착지원 연구

- 이수행(2018)은 경기도 농촌지역의 청년유입을 촉진하고, 미래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시설농업 중심의 창업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
 - 국내외 사례조사, 예비농업인(320명) 대상의 인식조사(설문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귀농·창업과정의 애로사항 및 정책대안 등을 분석하여 정착지원 방향을 도출
 - 세부 추진과제로 수준별 원클릭 맞춤형 청년농부 육성시스템(관심단계→준비단계1→준비단계2→실행단계→정착단계), 한국을 대표하는 청년농부 육성시스템(임대농장시설), 대표품목 중심의 거점지역별 청년농부 육성시스템(작목반 연계), 도·시·군 연계형 청년농부 육성시스템(유희시설농업 연계 활용) 구축을 제안
- 김기홍(2019)은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여 지역의 농업·농촌 유지를 위한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음
 - 농림어업총조사(만 39세 이하)와 4-H회원(만 34세 이하) 자료를 이용한 농가구조 및 청년농업인 실태분석, 심층 사례조사(면담조사 6명, 지원단체

3개소)를 통해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도출

- 청년농업인이 당면한 정서적(농업에 대한 편견, 텃세와 외로움), 물리적(토지, 주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유형별 정책을 구상하고, 청년농업인의 다양한 역할 인식과 통합기반 체계,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융복합적 지원방안 등 방향을 제안

3. 창업지원 및 농지확보

○ 김정호 외(2015)는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추진과 외국 사례를 분석하여 농산업창업 지원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음

- 귀농인력 동향과 영농승계자·창업농 추이를 분석하고, 청년 농산업창업지원 의견조사(교육생·재학생 등 237명)를 통해 지역공동체 기여, 지원대상 요건 완화, 창업단계까지 3년간 지원, 홍보 다양화 등 시사점을 도출
- 지원대상의 세분화, 귀농·귀촌자 포괄지원 및 정착단계에 따른 지원금 세분화, 귀농·귀촌 기반마련, 사회적경제조직 참여자 지원, 법인경영체 연수생 확대 지원, 20대 초중반 별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정책홍보 강화 등 제안

○ 김기홍(2019)은 청년농업인의 영농과 정착에 필수적인 농지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사례와 충남지역의 접근 실태를 분석하여 확보 방안을 제안하였음

- 친환경청년농부사업 대상자(11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농지의 매매와 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리하고, 지역단위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
- 또한 설문조사(비승계창농 33명, 승계창농 34명)를 통해 영농경위, 농업경영 상황, 지역농업 및 지역활동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농지 확보 방안을 제시
- 농지 확보를 위해 지역단위 적극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을 개정, 농지은행의 중재 역할과 원칙 준수, 조례 제정을 통한 지역차원의 관리방안 마련, 공공임대농지 조성, 농지이용계획의 실제적인 수립·실행 등 제안

제2절 청년창업농 관련 정책 및 제도

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 2020년 12월 정부는 청년기본법(제8조)에 근거하여 5년간 추진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
-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청년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삶의 공간, 안정적인 토대를 설정함
-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이란 3대 원칙 아래 5대 정책 분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을 구분하여 20대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를 설정함
- (일자리) 창업영역으로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를 제시함
 -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은 아이디어 발굴 → 교육·사업화 → 자금 → 재창업 과정을 통해 누구나 실패해도 재창업을 가능하도록 신용회복 및 재창업 사업화 패키지를 구성
 -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에서 농·어업 부문은 농지·자금 등 종합지원과 2025년까지 청년 농업인 1만명 이상 육성, 청년 어업인 1천명 창업을 지원
- (주거) 주거는 청년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주택 27만3천호 공급, 청년 43.5만 가구 주거비 부담을 목표로 추진함
 - 농업·농촌의 경우 귀농귀촌 청년층이 안심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위해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계획
- (교육) 청년이 스스로 삶을 그려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미래사회 선도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포스트코로나19 대응 온택트 교육기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함
 - 농업·농촌영역의 세부사업으로는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 장학금', 스마트 농업 전문가 육성, 농대 영농창업 특성화사업 등을 수립

○ (참여·권리)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함의 비전 아래 청년참여 정부 위원회를 발족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LO) 운영’은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수출시장 개척업무를 수행

〈표 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 청년농 관련 사업

구분		사업명	소관부처
창업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농식품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농식품부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농식품부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식품부
		청년식품창업Lab 운영	농식품부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농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농진청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식품부
		경영실습 임대농장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사업	농진청		
주거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농식품부
교육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 장학금	농식품부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식품부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스마트 농업 전문가 육성	농진청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농진청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농업계 대학지원
	농대 영농창업 특성화사업	농식품부	
참여·권리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LO) 운영	농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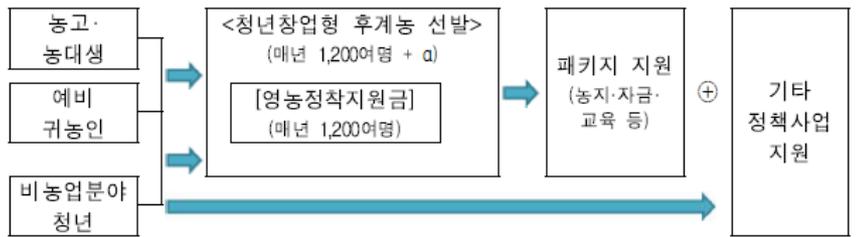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8~2022)

○ 농식품부는 농촌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마을의 과소화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농정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

-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 등 기본방향을 제시

-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강화’에서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청년창업농 등 미래인력 육성을 중점과제로 제시함
- 2022년까지 혁신성장의 주역이 될 청년창업농 1만명 육성을 목표로 ‘진입’, ‘정착’, ‘성장’, ‘지원체계’를 구분하여 지원할 예정
 - (진입) 한농대·미래농고·영농창업특성화대학 확대 및 직업교육 강화, 장기 실습요구사업도입, 농·공대 협업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농업의 혁신 성장을 선도할 융복합 인재 양성
 - (정착)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영농계획이나 의지를 고려하여 청년창업농을 선발하고 정착지원금, 농지, 금융, 교육, 농기계 등 종합 지원을
 - (성장) 전문경영체로의 성장 유도를 위해 첨단기술실습장을 추가 지정하고 청년농이 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선정에서 가점을 부여
 - (지원체계) 청년농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청년창업농 육성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청년창업농 선발·지원·관리를 위한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그림 2-1〉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체계



출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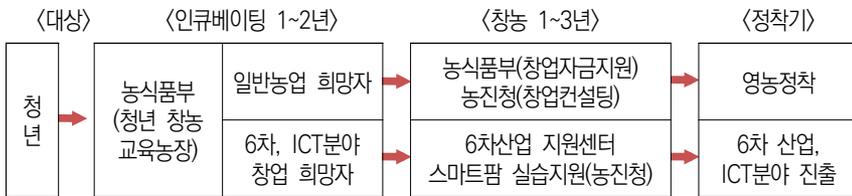
3.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

- 농식품부는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 비전을 세워 청년층의 농업 창업을 촉진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5년 간 수립·시행함
- 3대 목표로는 청년(2030세대) 귀농창업 1만 가구 육성, 귀농 5년차 평균

가구소득을 농가 평균까지 향상('15년 70% → '21년 90%),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 상생협력으로 농촌활력 증대 등을 제시함

- 세부적으로 5대 추진전략과 17개 추진과제로 구성되며, '청년층의 농업창업 중점지원' 전략은 청년창업농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해당됨
 - (청년창업농 육성 지원) 신규 창농 청년 희망자를 대상으로 1~2년 간의 교육농장에 머물며 영농기술, 유통·가공, 지역민과의 교류 등 밀착형 교육시스템을 통해 졸업 후 창업시 창업자금 우선 지원
 - (6차 산업 창업 지원) 6차 산업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농촌체험관광, 농산물가공, 홍보마케팅 등을 개설하고, 지역별 6차산업지원센터와 귀농귀촌지원센터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보·경영·기술 등 종합적 지원을 확대

〈그림 2-2〉 청년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체계도



출처 : 농식품부 보도자료(2016.11.22.)

4. 광역 시도 청년농 관련 정책 및 제도

- 타 시도의 청년농 육성 정책 대상으로 만 18~40세에서 많게는 50세까지 설정돼 있으며, 평균 예산은 657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음
- 사업유형으로는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지임차비, 농기계, 교통, 주거임차비 등 생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영농·경영기술, 홍보마케팅 등 역량강화지원이 있음

〈표 2-2〉 광역시도 청년농 관련 정책 및 제도(2020년)

시도	사업명	예산(백만원)		사업내용
충북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책지원	643	도비 30%, 시군비 70%	○ 만 18~40세 미만(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에게 3년 간 월 8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 농식품부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예비후보자 순서로 선발(40명)
충남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840	도비 30% 시군비 40% 자부담 30%	○ 만 18~40세 미만(독립경영 1년 이상) 청년농업인에게 ICT, 가공, 체험, 유통, 마케팅 등 비용 지원
경북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124	도비 100%	○ 만 18~40세 미만 예비 청년농의 영농기술, 실습체험 등 기회제공 - 청년농(멘티) : 교육훈련비 6만원/일 (월 100만원 한도) - 연수시행자(멘토) : 기술전수비 3만원/일(월 50만원 한도)
	청년농부 육성지원	800	도비 30% 시군비 70%	○ 만 18~40세 미만 청창농(독립경영 3년 이하)에게 연 10백만원(3년 간 지원) 육성자금 지원 - (사업자금) 생산,가공, 유통, 마케팅, 컨설팅 등 - (사업활동비) 교통비, 주택 임차 등 정착비용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1,000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농자) 20%	○ 만 18~40세 미만 독립경영 청년농 창농지원(개소당 2억원 이내) - 농특산물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등 시설 장비 지원 -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개발 등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240	도비 30% 시군비 70%	○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청년농부 상생터) 조성 및 활동 지원(60백만원/개소 이내) - (공간조성) 개보수, 각종 장비, 집기류 구입 등 - (활동지원) 회의, 행사, 네트워크 등의 제반경비 지원 * 유희공간 우선 활용, 불가피한 경우 5년 이상 장기 임대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책지원	2,450	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	○ 만 18~50세 미만 가업 승계농(독립경영 3년 이상)에게 농업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ICT 융복합 적용 시설 개선(시설장비 및 정보 시스템) 지원 - 50백만원/개소 (49명)
경남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120	도비 30% 시군비 70%	○ 만 18~45세 미만 예비 청년농의 농업법인, 선도농가 등의 농기술, 실습체험 등 기회 제공 - 농업법인 등에 청년 1인당 월 보수 50% 이내(월 100만원 이내)로 연간 최대 600만원 지원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1,200	도비 30% 시군비 70%	○ 만 40~45세 미만 청년농(독립경영 5년 이하)에게 1년간 100만원/월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제주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120	-	○ 만 19~45세 이하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의 창업 비용 지원 (10백만원/개소) - 시설·기계·장비 임차료, 시제품 제작 등 가공, 디자인 기획 및 제작, 제품 홍보 및 컨설팅비 등

출처 :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중장기 종합계획(2020~2024)

제3절 청년후계농 지원정책 추진현황¹⁾

1. 추진 배경 및 목적

-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력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영농기반이 없는 청년층의 자금부족, 농지구입, 영농기술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 필요
- 제19대 대통령 선거공약에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 지원'이 채택됨에 따라 국정과제(83-1, 후계 인력양성 및 영농창업 활성화)로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 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부터 지원사업을 추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근거

2.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 2018년부터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제도를 개선, 만 40세 미만(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 예정자 포함) 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별도 선발

1) '2021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에서 작성

- 신청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후계농업경영인과 일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 후 선발(중복신청 불가)
 - 기존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도 자격요건을 갖추면 청년후계농 신청가능

3. 청년후계농 지원사항

(1) 영농정착지원금

- ‘영농경력’과 ‘독립경영(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을 지급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농지 구입 및 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사용가능 업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표 2-3〉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급기준

구분	지원 1년차	지원 2년차	지원 3년차	합계
독립경영 1년차	100만원(12개월)	90(12)	80(12)	3,240(36)
독립경영 2년차	90만원(12개월)	80(12)	-	2,040(24)
독립경영 3년차	80만원(12개월)	-	-	960(12)

자료 : 2021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

- 정착지원금에 대하여 의무사항을 준수해야하며, 위반할 경우 지급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설정

〈표 2-4〉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의무사항

의무사항		준수 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의무 교육 이수	필수과정	농업정책, 농업마인드, 농업경영	해당 강좌 미이수 시 2개월 지급중단	
	선택과정	생산기술, 경영심화 등 과목은 자율 선택	30%미만 이행	지원금 2개월 중단
			30~80% 이행	지원금 1개월 중단
		80%이상 이행	주의조치(2회이상 주의시 3개월 지급중단)	
재해보험, 의무자조금 가입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된 품목과 의무자조금 품목 적용	미가입시 1개월 지급중단	

의무사항	준수 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농정원 개발 경영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미기록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일시정지 3회 이상시 지급중단 및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인 영농계획 변경(영농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중단 및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 단,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 판단 유예기간 부여 가능(최대3개월, 지급중단)
전업적 독립 영농유지	상근고용,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성실 신고	선발시 신청서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이행 점검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농업 경영체 변경 신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신고 적발된 다음 1개월간 지급중단 * 해당 사유로 3회 이상 지급중단시 향후 지급 중단 및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지원금 성실사용	사업목적(-1) 및 사용용도((-1-3-1-2))에 따른 사용	적발 시점부터 지급중단, 해당 사용액 환수 및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의무영농 기간준수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농종사(독립경영) 의무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 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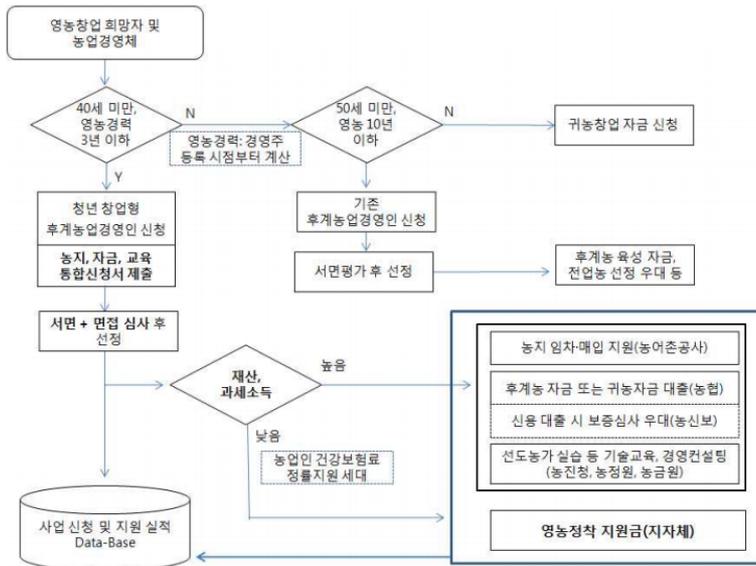
자료 : 2021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

(2) 청년후계농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 청년후계농에 대해서는 독립경영 5년차 종료 시까지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농지, 자금, 기술 등을 종합 지원
- 농지 지원
 - 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대상에 바로 편입하여 농지은행사업 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 지원
-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최대 3억원), 귀농 창업자금 우대선발(5점 가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비율 우대(95%) 및 심사 간소화, 농산물 유통·가공 등 경영다각화 자금(농업정책금융원 펀딩 프로그램) 등
-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 농촌진흥청 선도농가 장기 현장실습 및 컨설팅(상품개발, 경영진단·분석), 농업법인 취업프로그램, 농정원 '농업교육포털' 농업교육 이력관리 서비스 지원 등

〈그림 2-3〉 청년창업형 후계농 지원 흐름도



자료 : 2021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

4. 청년창업농(후계농) 선정 현황

-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총 6,600명의 청년창업농이 선발되었으며, 경북(17.0%), 전북(16.6%), 전남(15.9%)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표 2-5〉 전국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단위 : 명)

연도	전국	전북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광역시
2018	1,600	247	207	83	83	152	240	255	162	67	104
2019	1,600	270	160	80	82	144	258	292	187	53	74
2020	1,600	282	151	82	82	175	270	268	170	46	74
2021	1,800	294	166	112	101	192	282	304	195	71	83
합 계	6,600	1,093	684	357	348	663	1,050	1,119	714	237	335
비율(%)	100.0	16.6	10.4	5.4	5.3	10.0	15.9	17.0	10.8	3.6	5.1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04.02.)

- 청년창업농 선정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독립경영의 비중은 지속해서 줄어든 반면, 예정자의 경우 2018년 42.5%이었으나 2021년에는 67.6%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 남성이 81.7%를 차지하며, 비농업계 졸업생은 70.5%로 농업계 졸업생의 약 2.4배 정도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귀농한 청년이 전체의 70.9%로 재촌의 경우보다 약 2.4배 이상 많으며, 해마다 비슷한 수준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부모와는 별도로 영농기반을 마련하는 인원이 44.2%, 새롭게 마련하는 경우 36.2%, 증여·상속을 통해 마련하는 인원은 19.2%로 파악됨

〈표 2-6〉 청년창업농 선정자 특성

(단위 :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계	
성별	남성	1,320(82.5)	1,321(82.6)	1,298(81.1)	1,451(80.6)	5,390(81.7)	
	여성	280(17.5)	279(17.4)	302(18.9)	349(19.4)	1,210(18.3)	
	계	267	186	111	100	664	
영농 경력별	예정자	680(42.5)	950(59.3)	1,051(65.6)	1,217(67.6)	3,898(59.1)	
	1년차	653(40.8)	464(29.0)	438(27.4)	483(26.8)	2,038(30.9)	
	2년차	183(11.4)	126(7.9)	76(4.8)	71(3.9)	456(6.9)	
	3년차	84(5.3)	60(3.8)	35(2.2)	29(1.6)	208(3.2)	
	계	2,547	2,736	2,762	3,117	6,600	
계열	농업계졸업	551(34.4)	477(29.8)	471(29.4)	447(24.8)	1,946(29.5)	
	한농대 졸업	236(42.8)	225(47.1)	194(41.2)	190(42.5)	845(43.4)	
	비농업계 졸업	1,049(65.6)	1,123(70.2)	1,129(70.6)	1,353(75.2)	4,654(70.5)	
	계	1,600	1,600	1,600	1,800	6,600	
귀농 여부	귀농	1,158(72.4)	1,115(69.7)	1,112(69.5)	1,292(71.8)	4,677(70.9)	
	재촌	442(27.6)	485(30.3)	488(30.5)	508(28.2)	1,923(29.1)	
	계	1,600	1,600	1,600	1,800	6,600	
영농 기반 마련	증여 상속	전체	156(9.8)	68(4.3)	62(3.9)	77(4.3)	363(5.5)
		일부	115(7.2)	262(16.4)	265(16.6)	292(16.2)	934(14.2)
	부모와는 별도	793(49.6)	451(28.2)	789(49.3)	882(49.0)	2,915(44.2)	
	부모기반 없음	536(33.5)	819(51.2)	484(30.3)	549(30.5)	2,388(36.2)	
	계	1,600	1,600	1,600	1,800	6,600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04.02.)

- 목표영농계획에 따른 주 생산 품목은 채소가 26.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과수(15.5%), 축산(13.3%), 식량작물(9.7%), 특용작물(7.0%) 순임
- 기타 품목 간 복합영농과 15.6%, 복합경영(축산·경종)은 9.1%로 나타남

〈표 2-7〉 청년창업농 선정자의 주 생산품목

구분	인원(명)	비율	구분	인원(명)	비율
채소(시설·노지)	1,720	26.1%	식량작물	643	9.7%
과수	1,022	15.5%	화훼	245	3.7%
축산	876	13.3%	기타(경종작물 복합 등)	1,029	15.6%
특용작물	462	7.0%	복합(축산+경종)	603	9.1%

주 : 예정 포함, 기타 - 총사육, 채소·과수·식량작물 등 경종 품목 간 복합영농 등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04.02.)

- 한편 2018~2020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자들의 영농정착률은 91.3~91.4%이었으며,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임

〈표 2-8〉 청년창업농 영농정착률

구분	2018	2019	2020(P)	지표산출	측정방식
정착률 (%)	91.4	91.3	91.3	12월말	(40세 미만 청년후계농 선발인원 중 영농 종사 인원/40세 미만 청년후계농 선발인원)×100

자료 : 2021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

제4절 일본 청년농업인 지원정책 사례

1. 중앙정부 정책2)

-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2020년)'에 따르면 ①원만한 경영승계, ②농업 교육의 충실, ③신규 취농과 정착 촉진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음
-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취농상담, 연수제도, 연수비용 지원, 영농비용 지원, 고용비용 지원, 연수수입농가에 대한 지원, 농지취득지원, 주택취득 지원(알선, 임대료 지원 등), 기타로 구분하여 유형화하고 있음

(1) 차세대 후계인력으로 원만한 경영승계

① 추진방향

- 농업경영상담소 전문가에 의한 상담 대응, 승계계획의 책정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지역의 중심이 되는 후계인력의 후계자에 의한 경영승계 후의 경영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
- 원예·축산 관련 시설, 과수원 등 경영자원에 대해 제3자 기관·조직도 활용하면서 재정비·개수 등을 위한 지원으로 원활한 승계를 촉진

② 주요사업

- 경영승계·발전 등 지원사업(2021년 신설)
 - 지역의 중심경영체 등 후계자가 경영승계 후 경영발전에 관한 계획(판로개척, 신제품 도입 등)을 수립하여 활동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시정촌과 함께 지원하는 제도(100만엔 상한)
- 경영승계에 관한 상담·전문가에 의한 반주(伴走) 지원(2018년 시행)
 - 원활한 경영승계, 농업경영 법인화, 사업계획서 작성, 규모 확대 등 후계인력에 대한 경영 상담·진단이나 전문가 파견·순회지도 등 반주(伴走)형 지

2) 일본 농림수산성,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2020), 레이와3년도 식료·농업·농촌 시책(2021)에서 작성

원을 실시하는 '농업경영 상담소'를 도도부현 단계에 구축하고 있음

(2) 농업을 지탱하는 인재의 육성을 위한 농업 교육의 충실

① 추진방향

- 농업고등학교나 농업대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선진 농업경영자 등의 출장수업이나 현장연수 등을 지원하고, 스마트농업 등 교육의 고도화를 위한 기계·설비 등의 정비를 추진하여 취농의욕을 고취
- 지역농업의 리더이자 농업경영자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농업교육의 학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적 감각을 가진 인재 육성을 위해 해외의 농업고등학교와 교류 및 농업연수를 지원
- 다양한 세대의 신규 취농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교육기관에서 실천적인 리커런트 교육을 실시

② 주요사업

- 젊은이의 취농 의욕을 고취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 지역의 농업 및 교육 관계자가 협력하여 청년층(대학생·고교생 등)에게 선진 농업경영과 첨단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 등 지원
- 농업대학교 : 농업분야 취업이나 경영발전을 위해 스킬 업을 목표로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기술이나 경영에 관한 연수교육 실시
- 농업교육 고도화 지원사업
 - 청년들이 농업의 매력을 느끼고 장래에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경영과 국제적 감각을 배양하는 농업교육 고도화를 지원
- 농업 인재력 강화 종합 지원사업 중 농업 교육 고도화 사업
 - 전국단위에서 농업교육기관의 지도자·학생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연수를 개최, 지역단위에서 도도부현이 수립한 '농업교육고도화플랜' 실행을 위한 활동을 지원

(3) 청년층의 신규 취농과 정착 촉진

① 추진방향

- 취농 전 연수(2년 이내)와 취농 직후(5년 이내) 경영확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초기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등 취득 시 보조나 무이자 용자를 지원 및 농업인 연금가입을 추진
- 취농 준비단계부터 경영개시 후까지 지역의 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 농업인, 농지중간관리기구, 민간기업 등이 제휴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
- 농업법인 등에서 실천연수를 진행하는 경우 노동시간 관리, 휴일·휴식 확보, 남녀 화장실 정비, 캐리어 패스, 커뮤니케이션 마련 등 직장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업의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
-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다양하고 매력적인 농업의 모습을 전하고, 민간기업 등과 제휴해 취농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 SNS, 이벤트 등을 통해 발신
- 다양한 취농상담 등에 원스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취농상담센터 상담원의 연수를 실시하여 상담체제를 강화

② 주요사업

- 청년 등 취농계획제도 : 취농계획을 시정촌이 인증하고, 계획에 맞춰 농업을 영위하는 '인증 신규취농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 취농자금(무이자용자), 후계인력확보·경영진원사업, 경영소득안정대책, 농업인연금보험료 국고보조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부여
- 농의 고용사업 : 농업법인 등이 신규 취농자인 고용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대상자·연수 목적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지원)
 - 고용 취농자 육성·독립지원 : 법인이 신규 취업자에 대해 실시하는 실천 연수 지원(조성금 120만엔, 지원기간 2년간)
 - 신법인 설립지원 : 신규취업자에 대한 새로운 법인 설립을 위한 연수 지원(조성금 120만엔, 지원기간 4년, 단 3년 이후 60만엔)
 - 차세대 경영자 육성 유형 : 법인에 의한 직원 등의 국내·해외 파견 연수 지원(조성금 120만엔, 지원기간 2년)

-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자금(구 청년취농 급부금)
 - 취농전 연수를 뒷받침하는 자금(준비형, 2년 이내) 및 취농 직후 경영확립 지원 자금(경영 개시형, 5년이내) 지원
- 신규 취농자를 위한 무이자 자금 제도
 - 신규 농업경영 개시 청년 등에 대해 필요 자금을 장기 무이자로 대출
- 농협 등을 위한 신규 취농자 세제 혜택
 - 농협 등이 기계 설비나 시설하우스를 취득해 사람·농지 플랜의 중심 경영 체로 자리매김한 인증 신규취농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고정 자산세를 경감(2020년 시작)
- 취업빙하기세대 신규취농촉진사업
 - 취업빙하기 세대(사업 신청당시 30세 이상, 취농 예정시 49세 이하)의 취농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수기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청년취농 정보제공 사이트(농업을 시작한다.jp) 운영
 - 농림수산성 보조사업으로 전국농업회의소가 운영, 취농알기, 체험하기, 상담하기, 연수/학습, 구인정보, 지원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

2. 북해도 정책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연수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행정기관과 농업기관, 관련기구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해도농업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후계인력육성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음

(1) 북해도 농업 후계인력 육성센터

- 공익재단법인 북해도농업공사가 시정촌 단계의 지역후계인력센터와 연계하여 후계인력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였으며, 주로 정부의 보조사업과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

- 취농촉진 홍보·상담활동 : 상담창구 상설운영 및 상담회 개최, 홈페이지 운영, 지역농업 및 취농 관련 정보제공, 가이드북 및 사례집 작성 제공
- 취농연수자 주택임대료 지원사업 : 선진농가 연수 중 임대료의 일부 지원
- 농가연수수입체제 강화사업 : 취농연수·체험실습 등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손해보험금 등 지출비용 일부 지원
- 농장리스사업 : 초기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사가 농장을 매입하여 일정 기간 신규취농자에게 임대하고 추후 양도를 실시(낙농부문)
- 대형 특수면허 취득, 신규 취농 우량 농업경영자 표창 등 지원

(2) 기술보급과 후계인력대책

- 신규취농 박람회, 취농상담회 개최 : 취농희망자와 시정촌의 매칭기회 제공
- 농업견학 버스투어 : 신규참입자와 간담회 및 시설 등 견학, 구체적인 취농이미지를 그릴 수 있도록 지원

(3) 북해도립농업대학교

- 연수를 중심으로 청년농업인 등 신규취농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 신규참입자 연수(연수생코스), 농업경영자육성연수(재배경영기초코스, 농업경영분석코스, 농업경영실천코스, 낙통경영관리자 코스), 농업부기통신 강좌, 농업·건설기계 등 연수, 용접기능강습 등

(4) 북해도립종합연구기구 화훼·야채기술센터

- 연수를 중심으로 북해도 화훼·야채 기술연수(종합기술연수, 기초기술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3. 기타 지역의 지원사업

- 일본 지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취농상담, 연수제도 제외)을 유형별로 정리하였음

(1) 연수비용지원 사업

- 취농예정자 장학금 지급사업(미야기현)
 - 차세대인재투자자금(준비형)을 받고 있지 않은 대학생, 전문대생, 고교 3년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
- 청년농업인 육성 대책사업(미야기현)
 - 차세대인재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단기간 국내외 농가 연수에 대해 25만엔 이내 지원
 - 경영개선 등 목적의 현외 시찰조사 지원(취농 3년 이내, 6만엔 상한)

(2) 영농비용지원

- 취농 조건 정비사업(도토리현)
 - 신규 취농자에게 기계·시설을 스스로 정비하거나 농협 등이 리스하기 위해 정비할 경우 필요경비를 지원
- 취농 응원 교부금(도토리현)
 - 취농초기에 들어가는 운전자금, 기반정비비 등에 활용하도록 교부금 교부
 - 3년간 지원, 1년차 월 10만엔, 2년차 월 6.5만엔, 3년차 월 4만엔

(3) 고용비용지원

- 기업연계 추진사업(교토부)
 - 민간기업으로부터 파견된 인재 및 인력을 채용한 집락영농조직 등에 대해 인건비를 보조(상한 월 10만엔, 24개월)
- 신규농업취업자 정착촉진사업(정착지원금부금, 야마구치현)

- 신규취농자를 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채용한 법인에 대해 5년간 OJT 연수를 지원

(4) 연수수입농가에 대한 지원

- 연수수입농가 등 조성사업(미야기현)
 - 공사 중개에 의해 농업연수생(신규취농희망자)을 수용하는 선진농가에게 농업체험(3일 이상)을 실시할 경우 1명당 최대 15,000엔 지원, 당일 농가 시찰은 명당 5,000엔 지원
- 뉴파머 육성 연수조성사업(이바라키현)
 - 취농을 예정하고있는 인증취농자 또는 공사이사장이 연수계획을 승인한 신규취농희망자를 연수생으로 수용한 기관에 필요한 경비일부를 지원

(5) 농지취득지원

- 시설원예 등 취농추진사업(기후현)
 - 취농희망자에게 농지를 임대한 농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교부(30만 엔/10a)
- 쿠마모토 농업의 승계지원사업(쿠마모토현)
 - 인증신규취농자가 농지중간관리사업을 활용하여 농용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보조

3 장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현황

-
1. 청년농업인 현황
 2.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3. 청년창업농 지원 현황

제 3 장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현황

제1절 청년농업인 현황

1. 시도별 현황

- 전국의 청년농(45세 미만 농가경영주)은 2000년 202,077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16% 수준인 31,411명까지 축소됨
- 도내 청년농은 2020년 기준 3,316명(도내의 3.6%)으로 전국의 10.6%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 비해 23.3% 감소하였음(특광역시 제외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감소세)

〈표 3-1〉 전국 시도별 청년농 현황

(단위 : 가구)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증감률 (‘15/’20)
					청년농	비율	
전 국	202,077	109,758	83,497	42,709	31,411	100.0%	-26.5%
전 북	17,590	9,502	7,574	4,322	3,316	10.6%	-23.3%
특광역시	9,946	6,855	6,581	3,084	3,973	12.6%	28.8%
경 기	30,804	16,902	11,809	5,369	3,930	12.5%	-26.8%
강 원	14,891	7,911	5,202	2,694	1,634	5.2%	-39.3%
충 북	14,915	7,776	5,208	2,563	1,564	5.0%	-39.0%
충 남	27,180	13,620	9,620	4,601	3,049	9.7%	-33.7%
전 남	26,618	13,666	9,679	5,416	4,038	12.9%	-25.4%
경 북	29,819	15,527	12,060	6,506	4,548	14.5%	-30.1%
경 남	21,260	11,842	9,226	4,669	3,272	10.4%	-29.9%
제 주	9,053	6,157	6,538	3,485	2,087	6.6%	-40.1%

자료 : 농림어업총조사, 각 년도.

2. 연령별 현황

- 2020년 기준 도내의 전체 농가수는 93,305명으로 2015년에 비해 7.0%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음

- 2015년 대비 연령대별 증가율은 20대 이하가 43.8%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80대 이상이 36.2% 증가함
- 30~60대의 경우 모든 연령대가 감소한 가운데 특히 40대와 50대의 감소폭 각각 25.7%, 21.3%로 큰 것이 특징적임

〈표 3-2〉 전라북도 연령별 농가수 현황

(단위 : 가구, %)

구분	2015		2020		증감률 (‘15/’20)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20대이하	105	0.1	151	0.2	43.8
30대	1,462	1.5	1,284	1.4	-12.2
40대	7,796	7.8	5,789	6.2	-25.7
50대	21,126	21.0	16,622	17.8	-21.3
60대	30,807	30.7	28,974	31.1	-5.9
70대	30,285	30.2	28,525	30.6	-5.8
80대이상	8,781	8.7	11,960	12.8	36.2
합 계	100,362	100.0	93,305	100.0	-7.0

자료 : 농림어업총조사, 각 년도.

3. 성별 현황

- 2020년 기준 청년농은 남성이 2,715가구로 81.9%(여성 18.1%)를 차지하고 있으며, 45세 이상은 그보다 낮은 78.0%(22.0%)로 나타남
- 2015년 대비 남성이 29.7% 감소한 반면에 여성의 경우 33.0% 증가하였으며, 45세 이상도 남성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3-3〉 전라북도 성별 청년농 현황(2020년)

(단위 : 가구, %)

구분	전북 농가수	청년농		45세 이상		증감률(‘15/’20)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전체	청년농	45세~
합 계	93,305	3,316	100.0	89,989	100.0	-7.0	-23.1	-6.3
남 성	72,944	2,715	81.9	70,229	78.0	-10.5	-29.7	-9.5
여 성	20,361	601	18.1	19,760	22.0	7.9	33.0	7.3

자료 : 농림어업총조사, 각년도

4. 농지규모별 현황

- 청년농업인의 농지규모는 소규모인 0.1~1.0ha가 1,897명으로 가장 많은 57.2%를 차지한 반면, 대규모 농지인 10ha이상은 3.6%로 가장 낮았음
- 2015년 대비 증감률은 청년농업인과 45세 이상 농가의 특징이 뚜렷하게 구분되며, 청년농업인의 과반을 차지하는 0.1~1.0ha의 경우 14.9% 감소하였으나 45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2.9% 증가함
 - 감소폭이 큰 농지규모의 경우 청년농업인은 10ha이상이 45.7% 감소하였으며, 45세 이상은 0.1ha미만이 47.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표 3-4〉 전라북도 농지규모별 청년농 현황(2020년)

(단위 : 가구, %)

구분	전북 농가수	청년농		45세 이상		증감률('15/'20)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전체	청년농	45세~
합 계	93,305	3,316	100.0	89,989	100.0	-7.0	-23.1	-6.3
0.1ha미만	2,001	217	6.5	1,784	2.0	-45.1	-20.5	-47.1
0.1~1.0ha	60,158	1,897	57.2	58,261	64.7	2.2	-14.9	2.9
1.0~5.0ha	25,596	853	25.7	24,743	27.5	-17.5	-33.4	-16.8
5.0~10.0ha	3,743	229	6.9	3,514	3.9	-18.3	-25.4	-17.8
10.0ha이상	1,807	120	3.6	1,687	1.9	-19.3	-45.7	-16.4

자료 : 농림어업총조사, 각년도

5. 경영형태별 현황

- 2020년 청년농의 경영형태는 논벼가 4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며, 45세 이상에서도 논벼가 청년농보다 9.6%p 높은 52.0%를 차지함
- 재배 비중이 낮은 작물은 청년농과 45세 이상 모두 약용작물로 나타났으며, 청년농은 0.6%, 45세 이상은 0.7%로 나타남
- 2015년 대비 증가폭이 높은 작물은 청년농의 경우 기타작물이 유일하게 1.9배 증가하였으며, 45세 이상은 약용작물이 약 6.2배 이상 대폭 증가함
- 반면에 감소폭이 가장 큰 작물은 약용작물로 청년농의 경우 77.2% 감소하였으며, 45세 이상은 41.0% 감소하였음

〈표 3-5〉 전라북도 경영형태별 청년농 현황(2020년)

(단위 : 가구, %)

구분	전북 농가수	청년농		45세 이상		증감률('15/'20)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전체	청년농	45세~
합 계	93,305	3,316	100.0	89,989	100.0	-7.0	-23.1	-6.3
논 벼	48,173	1,408	42.4	46,765	52.0	-8.4	-29.3	-7.6
식량작물	10,330	329	9.9	10,001	11.1	8.2	-14.5	9.2
채소·산나물	13,486	478	14.4	13,008	14.5	-22.5	-23.5	-22.5
특용작물·버섯	3,086	95	2.9	2,991	3.3	-10.8	-23.4	-10.3
과 수	7,223	360	10.9	6,863	7.6	-18.9	-24.5	-18.6
약용작물	649	21	0.6	628	0.7	-43.9	-77.2	-41.0
화초·관상작물	1,882	85	2.6	1,797	2.0	2.6	-35.1	5.5
기타작물	4,310	162	4.9	4,148	4.6	583.0	189.3	621.4
축 산	4,166	378	11.4	3,788	4.2	-13.6	-11.9	-13.8

자료 : 농림어업총조사, 각년도

6. 전겸업별 현황

- 2020년 기준 전업비율은 청년농의 경우 44.8% 수준인 반면에 45세 이상의 경우 65.7%로 높은 편임
- 2015년 대비 2020년 증감률을 살펴보면 청년농과 45세 이상 모두 전업은 소폭 증가한 반면, 겸업은 각각 35.3%,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6〉 전라북도 전겸업별 청년농 현황(2020년)

(단위 : 가구, %)

구분	전북 농가수	청년농		45세 이상		증감률('15/'20)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전체	청년농	45세~
합 계	93,305	3,316	100.0	89,989	100.0	-7.0	-23.1	-6.3
전 업	60,636	1,484	44.8	59,152	65.7	0.9	0.4	0.9
겸 업	32,669	1,832	55.2	30,837	34.3	-18.8	-35.3	-17.6
1종 겸업	11,230	514	15.5	10,716	11.9	-38.7	-48.8	-38.1
2종 겸업	21,439	1,318	39.7	20,121	22.4	-2.3	-28.0	0.01

자료 : 농림어업총조사, 각년도

7. 영농경력별 현황

- 도내 청년농은 영농경력은 15년 이하가 78.5%인 반면에 45세 이상의 경우 20년 이상이 72.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15년 대비 증감률은 5년 미만 영농경력의 경우 청년농과 45세 이상 모두 증가세를 보인 반면, 20년 이상에서는 각각 43.1%, 12.6% 감소함

〈표 3-7〉 전라북도 영농경력별 청년농 현황(2020년)

(단위 : 가구, %)

구분	전북 농가수	청년농		45세 이상		증감률('15/'20)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전체	청년농	45세~
합 계	93,305	3,316	100.0	89,989	100.0	-7.0	-23.1	-6.3
5년 미만	6,034	904	27.2	5,130	5.7	27.7	9.1	31.6
5~10년	8,109	929	28.0	7,180	8.0	7.5	-21.8	13.0
10~15년	8,778	773	23.3	8,005	8.9	15.4	-24.0	21.5
15~20년	4,377	306	9.2	4,071	4.5	-6.7	-46.0	-1.2
20년 이상	66,007	404	12.2	65,603	72.9	-12.9	-43.1	-12.6

자료 : 농림어업총조사, 각년도

8.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현황

-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수는 청년농의 경우 120~1천만원(32.6%)과 1~5천만원(27.3%)의 비중이 높고, 45세 이상 역시 각각 46.7%, 24.5%로 높게 나타남
- 2015년에 비해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2억원 이상 농가수는 증가하였으며, 특히 청년농의 경우 유일하게 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청년농의 경우 2015년 대비 1~5천만원은 30.9%, 120만원~1천만원은 24.8%, 0~120만원은 2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8〉 전라북도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청년농 현황(2020년)

(단위 : 명, %)

구분	전북 농업인	청년농		45세 이상		증감률('15/'20)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전체	청년농	45세~
합 계	93,305	3,316	100.0	89,989	100.0	-7.0	-23.1	-6.3
0~120만원	18,699	644	19.4	18,055	20.1	-6.2	-20.7	-5.6
120~1천만원	43,079	1,081	32.6	41,998	46.7	-4.8	-24.8	-4.1
1~5천만원	22,912	906	27.3	22,006	24.5	-13.0	-30.9	-12.0
5천~1억원	5,810	378	11.4	5,432	6.0	2.8	-11.3	3.9
1~2억원	1,834	158	4.8	1,676	1.9	-18.8	-23.3	-18.4
2억원 이상	971	149	4.5	822	0.9	5.2	26.3	2.1

자료 : 농림어업총조사, 각년도

9. 청년 귀농·귀촌인

- 2020년 전국의 귀농·귀촌인은 230,282명으로 2015년 대비 귀농인은 17.3% 증가한 반면, 귀촌인은 4.3% 감소하였음
 - 전북의 경우 귀농인은 39.6% 증가하였으며, 귀촌인은 26.1% 감소함
- 전북의 경우 귀농인 비율은 2015년 대비 1.3%p 증가한 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표 3-9〉 청년 귀농·귀촌인 현황('15/'20)

(단위 : 명)

구분	2015년			2020년			증감 차이 (b)-(a)
	귀농인	귀촌인	귀농인 비율(a)	귀농인	귀촌인	귀농인 비율(b)	
전 국	1,168	239,565	0.5%	1,370	228,912	0.6%	0.1%p
전 북	144	9,617	1.5%	201	7,104	2.8%	1.3%p
특광역시	40	25,856	0.2%	49	23,962	0.2%	0.0%p
경 기	100	69,903	0.1%	165	76,261	0.2%	0.1%p
강 원	68	17,364	0.4%	78	15,321	0.5%	0.1%p
충 북	70	15,186	0.5%	97	15,690	0.6%	0.2%p
충 남	116	25,478	0.5%	162	22,297	0.7%	0.3%p
전 남	225	19,018	1.2%	268	17,547	1.5%	0.3%p
경 북	199	22,603	0.9%	187	22,767	0.8%	-0.1%p

구분	2015년			2020년			증감 차이 (b)-(a)
	귀농인	귀촌인	귀농인 비율(a)	귀농인	귀촌인	귀농인 비율(b)	
경 남	154	29,562	0.5%	128	22,318	0.6%	0.1%p
제 주	52	4,978	1.0%	35	5,645	0.6%	-0.4%p

자료 : 귀농어·귀촌인통계, 각년도

① 청년 귀농인

- 2020년 청년귀농인 1,370명 중 전북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14.7%(201명)을 차지하며, 2015년 대비 증가율도 2.3%p로 높은 편임

〈표 3-10〉 시도별 청년귀농인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5년		2020년		증감 차이 (b)-(a)
	청년귀농인	비율(a)	청년귀농인	비율(b)	
전 국	1,168	100.0%	1,370	100.0%	-
전 북	144	12.3%	201	14.7%	2.3%p
특광역시	40	3.4%	49	3.6%	0.2%p
경 기	100	8.6%	165	12.0%	3.5%p
강 원	68	5.8%	78	5.7%	-0.1%p
충 북	70	6.0%	97	7.1%	1.1%p
충 남	116	9.9%	162	11.8%	1.9%p
전 남	225	19.3%	268	19.6%	0.3%p
경 북	199	17.0%	187	13.6%	-3.4%p
경 남	154	13.2%	128	9.3%	-3.8%p
제 주	52	4.5%	35	2.6%	-1.9%p

자료 : 귀농어·귀촌인통계, 각년도

- 2015년 대비 증감률에서도 전북은 전국(17.3%)보다 높은 39.6%를 보이며, 이는 도내 40세 이상(26.3%)보다도 높은 증가율임

〈표 3-11〉 전라북도 청년귀농인 현황(2020년)

(단위 : 명, %)

구분	전체 귀농인	청년		40세 이상		증감률('15/'20)		
		귀농인	비율	귀농인	비율	전체	청년농	40세~
전 국	12,570	1,370	100.0	11,200	100.0	3.8	17.3	2.3
전 북	1,511	201	14.7	1,310	11.7	27.9	39.6	26.3

자료 : 귀농어·귀촌인통계, 각년도

② 청년 귀촌인

- 2020년 전국의 청년귀촌인은 228,912명으로 2015년 보다 4.4% 감소하였고, 전북의 경우 26.1% 감소한 7,104명으로 전국의 3.1%를 차지함

〈표 3-12〉 시도별 청년귀촌인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5년		2020년		증감 차이 (b)-(a)
	청년귀촌인	비율(a)	청년귀촌인	비율(b)	
전 국	239,565	100.0%	228,912	100.0%	-
전 북	9,617	4.0%	7,104	3.1%	-0.9%p
특광역시	25,856	10.8%	23,962	10.5%	-0.3%p
경 기	69,903	29.2%	76,261	33.3%	4.1%p
강 원	17,364	7.2%	15,321	6.7%	-0.6%p
충 북	15,186	6.3%	15,690	6.9%	0.5%p
충 남	25,478	10.6%	22,297	9.7%	-0.9%p
전 남	19,018	7.9%	17,547	7.7%	-0.3%p
경 북	22,603	9.4%	22,767	9.9%	0.5%p
경 남	29,562	12.3%	22,318	9.7%	-2.6%p
제 주	4,978	2.1%	5,645	2.5%	0.4%p

자료 : 귀농어·귀촌인통계, 각년도

- 2015년 대비 40세 이상 전국의 귀촌인은 9.2% 증가한 반면에 전북은 8.1% 감소하였으며, 청년귀촌인의 감소율(26.1%)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3-13〉 전라북도 청년귀촌인 현황(2020년)

(단위 : 명, %)

구분	전체 귀촌인	청년		40세 이상		증감률('15/'20)		
		귀촌인	비율	귀촌인	비율	전체	청년농	40세~
전 국	477,122	228,912	100.0	248,210	100.0	2.2	-4.4	9.2
전 북	18,537	7,104	3.1	11,433	4.6	-16.0	-26.1	-8.1

자료 : 귀농어·귀촌인통계, 각년도

제2절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1. 조례 제정

-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2019.10.11.)하고, 종합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대한 추진을 명시
 - 시·군 지역은 무주군('20.9), 익산시('20.11), 완주군('21.3), 장수군('21.7)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농업생산 활동과 농촌사회에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이를 통해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제정

〈표 3-14〉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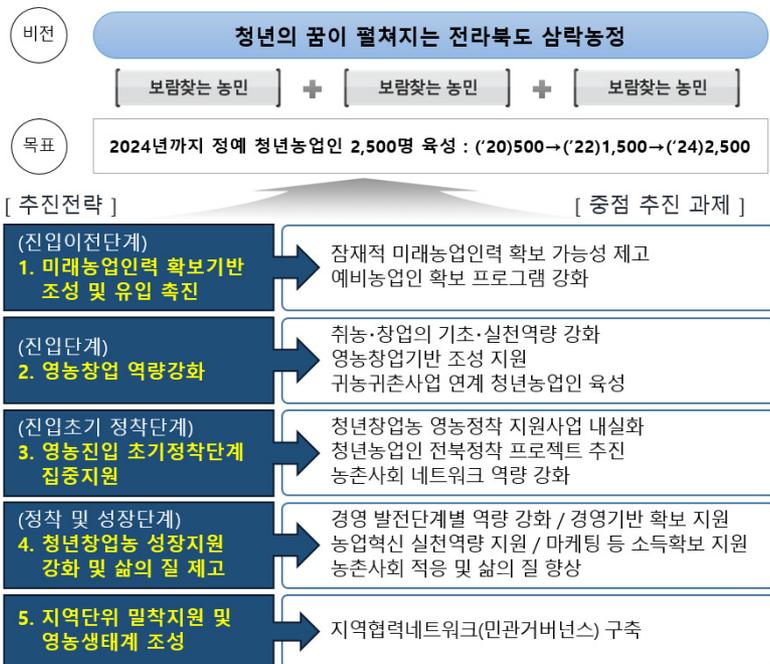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농업인 육성 제도·여건 조성, 전담부서 지정, 부서간 협조체계 구축 ○ 청년농업인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생산·제조·가공·유통과 농촌사회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하여야함
제4조 (종합계획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마다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시행 ○ (주요 내용) 지원방향과 목표,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 영농기술 습득과 농촌사회 정착·융화 지원 방안,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의 애로사항 ○ 청년농업인의 농촌사회 정착 실태 ○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 청년농업인의 인턴제 지원 ○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장·농업법인·민간단체 등 지원 ○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 주거시설 등 농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 :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2019.10.11)

2. 청년농업인 육성 중장기 종합계획(2020~2024)

- 2020년 10월에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한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중장기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
- 농업인력과 유입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농업 혁신 관점에서 종합적인 청년농업인 육성 대책을 마련을 주요한 목적으로 설정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을 도모
 - 청년들의 영농창업을 위한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매매 연계 지원 등을 통해 건실한 경영체 성장을 유도
- '청년의 꿈이 펼쳐지는 전라북도 삼락농정 구현'을 위해 2024년까지 정예 청년농업인 2,500명 육성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 14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함

〈그림 3-1〉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체계



* 자료 :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중장기 종합계획(2020~2024)

(1)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 전북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청년농업인 육성 추진
 - 삼락농정 및 스마트 농생명산업 육성정책과 밀착연계, 새로운 농업주체 육성
 - 스마트팜·첨단농업 거점 등의 핵심적인 주체로 육성, 성공사례 창출로 선순환구조 구축
 - 한국농수산대학 등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청년농업인 육성 프로젝트 추진
- 청년층의 농업 분야 유입 촉진 프로그램 강화
 - 진입경로를 세분화해 유형에 따른 유입~정착 전략 구축을 위한 시책 지향
 - 직업교육 강화, 실천적 연수기회 제공, 농고·농대생 등 전문 승계교육 강화
 - 청년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다양화로 창농 유도
- 창농단계별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및 핵심시책 발굴 추진
 - 창농경영체의 개별적 육성을 중심으로 영농·활동을 전개해나가는 사회여건, 지역여건, 사람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핵심시책 추진
 - 청년농업인 진입과 육성 관점에서 취농준비기를 시작으로 진입단계-정착단계-성장·유지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지향
- 전북형 청년창업농 정착 및 성장 지원 시책 확대
 - 영농초기에 겪게 되는 소득불안, 영농자금, 영농기술, 삶의 질 관련 복지서비스 부족 등 제반 문제 해소에 중점(도 차원의 일괄 지원체계 마련)
 - 청년농업인의 기술수준별, 경영규모별, 지역별 경영지표에 따라 면밀한 경영지도 실현 및 경영유형별 영농모델 등의 정보 제공
-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체계 혁신
 - 단계별 정책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 구축
 - 지역 참여형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창농단계별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 정부정책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효율화 도모 등

(2) 추진전략별 중점 추진 과제

- 전략① - 미래농업인력 확보 기반 및 유입 촉진
 - 농업에 대한 관심양성 단계로 초중고 학생 및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농업

- 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진하여 농촌 유입 유도
- 비농업 분야 우수인재 유입을 위해 우수사례 홍보, 중학생 자유학기제 활용 등 농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프로그램 운영
 - 농고·농대생, 비농업 전공학생, 청년 귀농희망자 등 다양한 유입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업교육 및 전문 승계 교육도 강화

구분	주요 지원사업
1-1. 미래농업인력 확보 가능성 제고	농촌유학 지원사업,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도시와 농촌청년 공동 삼락캠프 운영 등
1-2. 예비농업인 확보 프로그램 운영	농업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교육 등

○ 전략② - 영농창업 역량 강화

- 취농·창업 또는 귀농·귀촌 결정자를 대상으로 지역·작목 선택, 농지 등 확보 계획, 자금 등 준비, 기초기술 습득, 실천적 농가연수 등의 교육 추진
- 다양한 경로의 영농진입자들에 대한 취농·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분야 진출 촉진 및 농가경영주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
-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하여 정예농업인력으로 육성,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등 지원

구분	주요 지원사업
2-1. 취농·창업의 기초역량 및 실천역량 강화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친환경희망농부 육성 지원, 청년농 명품브랜드 육성, 청년창업농 신규취농 멘토-멘티 지원,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지원 등
2-2. 영농창업기반 조성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
2-3. 귀농·귀촌 연계 청년농업인 육성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조성,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등

○ 전략③ - 미래농업인력 확보 기반 및 유입 촉진

- 청년창업농 선발, 독립경영 5년차 종료까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지원
- 진입초기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영농자금 저리 용자 지원, 영농기반 마련, 주거환경 개선 등 안정적 정착과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
- 농촌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만40세~만45 세 미만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해 안정적 정착 도모

구분	주요 지원사업
3-1.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내실화 추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전북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지원
3-2. 청년농업인 전북정착 프로젝트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 지원,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 영농 기업승계 우수청년농 영농기반 지원
3-3. 농촌사회 네트워크 역량 강화	청년창업농인 생생동아리 지원

○ 전략④ - 청년창업농 성장지원 강화 및 삶의 질 제고

-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영농기술, 농업경영능력, 투자효율성을 제고
- 첨단기술 고도화, 규모화, 융복합산업화, 경영다각화, 판로 구축 및 확대, 협력경영 등 지원으로 전문경영체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청년농업인들의 다양한 문화·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개선을 통해 농업·농촌의 안정적 정착 도모

구분	주요 지원사업
4-1. 경영 발전단계별 역량 강화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 미래농산업 CEO과정 운영,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 컨설팅 등
4-2. 경영기반 확보 지원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시설원에 현대화,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등
4-3. 농업혁신 실천 역량 지원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과수 ICT 융복합 확산 지원, 축산 ICT 융복합 사업,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확산 지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4-4. 마케팅 및 소득확보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지원,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등
4-5. 농촌사회 적응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이동식 놀이 교실 지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등

○ 전략⑤ - 지역단위 밀착지원 및 영농생태계 조성

- 생생마을만들기, 귀농어 및 귀촌, 농촌유학, 농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 도시-농어촌간 교류 확대, 지역공동체 강화 등에 기여

구분	주요 지원사업
5-1. 지역협력네트워크 (민관거버넌스) 구축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농촌과소화마을 대응인력 육성 지원

제3절 청년창업농 지원 현황

1. 선발현황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6,600명이 선발되었으며, 전북은 2번째로 많은 1,093명(전체의 16.7%)이 선정됨

〈표 3-15〉 전국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단위 : 명)

연도	전국	전북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광 역시
2018	1,600	247	14.8%	207	83	83	152	240	255	162	67	104
2019	1,600	270	16.9%	160	80	82	144	258	292	187	53	74
2020	1,600	282	17.7%	151	82	82	175	270	268	170	46	74
2021	1,800	294	16.3%	166	112	101	192	282	304	195	71	83
합 계	6,600	1,093	16.7%	684	357	348	663	1,050	1,119	714	237	335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04.02.)

- 전라북도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별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99명(’20년 49명, ’21년 50명)을 선정함
 - 농식품부의 정책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농촌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 40~44세(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창업농에게도 별도의 영농정착금(2년간 매월 80만원, 지역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음
- 한편 일반후계농업인은 2017년부터 5년간 도내 1,028명이 선정되었으며 전국의 17.0%를 차지함

〈표 3-16〉 전라북도 일반후계농업인 선발내역

연도	전북형 청년창업농	일반후계농업인	
		전국	전북 (비중)
2021	50명	1,000명	148명 (14.8%)
2020	49명	1,200명	182명 (15.2%)
2019	-	1,000명	177명 (11.1%)
2018	-	1,036명	213명 (20.5%)
2017	-	1,815명	308명 (16.9%)
합계	99명	6,051명	1,028명 (17.0%)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2. 일반현황

(1) 청년창업농 선정자의 일반특성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남성이 80.5%를 차지하며,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은 56.2%를 차지함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선정자가 92.2%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농업계학교를 졸업자는 70.2%, 귀농한 경우가 70.5%를 차지함

〈표 3-17〉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선발자의 특성

(단위 : 명)

구분		예정자	1년차	2년차	3년차	합계	비중(%)
영농 경력		556	325	104	65	1,050	100.0
	비중(%)	53.0	31.0	9.9	6.2	100.0	-
성별	남	425	279	83	58	845	80.5
	여	131	46	21	7	205	19.5
연령	10대	2	-	1	-	3	0.3
	20대	184	90	26	13	313	29.8
	30대	311	180	58	41	590	56.2
	40대	59	55	19	11	144	13.7
경영체등록	미등록	80	-	1	1	82	7.8
	등록	476	325	103	64	968	92.2
농업계학교 졸업	비전공	400	220	74	43	737	70.2
	전공	156	105	30	22	313	29.8
귀농여부	귀농	379	227	84	50	740	70.5
	재촌	177	98	20	15	310	29.5
협업경영	부부공동	96	75	32	20	223	21.2
	법인공동	47	22	12	9	90	8.6
영농기반 마련	부모기반 별도	283	173	63	35	554	52.8
	부모기반 없음	151	93	28	20	292	27.8
	증여/상속 일부	100	50	8	5	163	15.5
	증여/상속 전체	22	9	5	5	41	3.9

자료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내부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 영농기반의 경우 부모의 기반 외에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인원이 52.8%로 가장 많았으며, 영농기반이 없는 경우는 27.8%를 차지함
 - 증여·상속을 통해 영농기반을 마련하는 인원은 19.4%(전체 3.9%, 일부 15.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협업경영의 경우 부부공동 경영이 전체의 21.2% 수준이며, 법인공동 경영은 8.6%의 비중을 차지함
- 영농경력별 현황을 비교해보면 예정자가 5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독립경영 1년차가 31.0%, 2년차가 9.9% 수준임
 - 예정자의 비중은 2018년(29.6%) 이후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2021년에는 예정자가 7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독립경영자의 비중은 연차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표 3-18〉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선발자의 영농경력별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합계	
	명	%	명	%	명	%	명	%	명	%
예정자	69	29.6	107	42.6	173	63.6	207	70.6	556	53.0
1년차	96	41.2	79	31.5	78	28.7	72	24.6	325	31.0
2년차	33	14.2	45	17.9	15	5.5	11	3.8	104	9.9
3년차	35	15.0	20	8.0	6	2.2	4	1.4	65	6.2
총합계	233	100.0	251	100.0	272	100.0	293	100.0	1050	100.0

자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내부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2) 청년창업농 선정자의 지역별 현황

- 청년창업농 선정자수는 김제시(14.5%)의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서 익산시(12.0%), 정읍시(11.1%) 순이며, 전주시(2.3%)와 무주군(3.0%)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함
 - 도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군산시·김제시·남원시·부안군·장수군 등이며, 나머지 지역의 경우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9〉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선발자의 연차별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합계	
	명	%	명	%	명	%	명	%	명	%
고창군	20	8.6	17	6.8	19	7.0	21	7.1	77	7.3
군산시	15	6.4	23	9.2	22	8.1	27	9.2	87	8.3
김제시	29	12.4	34	13.5	41	15.1	48	16.3	152	14.5
남원시	18	7.7	23	9.2	24	8.8	26	8.8	91	8.7
무주군	7	3.0	8	3.2	8	2.9	9	3.1	32	3.0
부안군	18	7.7	22	8.8	24	8.8	25	8.5	89	8.5
순창군	11	4.7	9	3.6	12	4.4	8	2.7	40	3.8
완주군	14	6.0	10	4.0	17	6.3	17	5.8	58	5.5
익산시	30	12.9	26	10.4	32	11.8	38	12.9	126	12.0
임실군	11	4.7	10	4.0	12	4.4	11	3.7	44	4.2
장수군	10	4.3	14	5.6	13	4.8	16	5.4	53	5.0
전주시	8	3.4	3	1.2	7	2.6	6	2.0	24	2.3
정읍시	26	11.2	32	12.7	31	11.4	28	9.5	117	11.1
진안군	16	6.9	20	8.0	10	3.7	14	4.8	60	5.7
총합계	233	100.0	251	100.0	272	100.0	294	100.0	1,050	100.0

자료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내부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 모든 지역에서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무주군의 경우 30대가 84.4%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

- 대부분 지역이 40대보다 20대의 비중이 높았으나 순창군과 전주시의 경우에는 4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0〉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선발자의 연령대 현황

구분	10대 (명)	비중 (%)	20대 (명)	비중 (%)	30대 (명)	비중 (%)	40대 (명)	비중 (%)	합계 (명)	비중 (%)
고창군	-	-	18	23.4	45	58.4	14	18.2	77	7.3
군산시	-	-	27	31.0	52	59.8	8	9.2	87	8.3
김제시	1	0.7	50	32.9	80	52.6	21	13.8	152	14.5
남원시	-	-	27	29.7	52	57.1	12	13.2	91	8.7
무주군	-	-	3	9.4	27	84.4	2	6.3	32	3.0
부안군	-	-	32	36.0	52	58.4	5	5.6	89	8.5

구분	10대 (명)	비중 (%)	20대 (명)	비중 (%)	30대 (명)	비중 (%)	40대 (명)	비중 (%)	합계 (명)	비중 (%)
순창군	-	-	6	15.0	24	60.0	10	25.0	40	3.8
완주군	-	-	14	24.1	35	60.3	9	15.5	58	5.5
익산시	-	-	42	33.3	64	50.8	20	15.9	126	12.0
임실군	1	2.3	14	31.8	19	43.2	10	22.7	44	4.2
장수군	1	1.9	18	34.0	30	56.6	4	7.5	53	5.0
전주시	-	-	3	12.5	14	58.3	7	29.2	24	2.3
정읍시	-	-	35	29.9	72	61.5	10	8.5	117	11.1
진안군	-	-	24	40.0	24	40.0	12	20.0	60	5.7
총합계	3	0.3	313	29.8	590	56.2	144	13.7	1050	100.0

자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내부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 대부분 지역에서 예정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부안군과 무주군의 경우 1년차의 비중이 각각 44.9%, 37.5%로 높게 나타남

- 예정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익산시(65.1%), 완주군(63.8%), 정읍시(63.2%) 순이며, 무주군(28.1%)이 가장 낮음
- 고창군의 경우 영농경력별 선정자의 비중이 비교적 고른 것으로 나타남

○ 귀농인은 무주군(84.4%), 고창군(81.8%), 순창군(80.0%), 진안군(80.0%)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부안군(58.4%)이 가장 낮음

〈표 3-21〉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선발자의 영농경력·귀농여부 현황

구분	독립경영 영농경력 기간								귀농여부			
	예정자 (명)	비중 (%)	1년차 (명)	비중 (%)	2년차 (명)	비중 (%)	3년차 (명)	비중 (%)	귀농 (명)	비중 (%)	재촌 (명)	비중 (%)
고창군	23	29.9	19	24.7	16	20.8	19	24.7	63	81.8	14	18.2
군산시	47	54.0	30	34.5	5	5.7	5	5.7	63	72.4	24	27.6
김제시	84	55.3	51	33.6	15	9.9	2	1.3	94	61.8	58	38.2
남원시	48	52.7	30	33.0	6	6.6	7	7.7	66	72.5	25	27.5
무주군	9	28.1	12	37.5	5	15.6	6	18.8	27	84.4	5	15.6
부안군	33	37.1	40	44.9	11	12.4	5	5.6	52	58.4	37	41.6
순창군	18	45.0	13	32.5	5	12.5	4	10.0	32	80.0	8	20.0
완주군	37	63.8	13	22.4	7	12.1	1	1.7	41	70.7	17	29.3
익산시	82	65.1	30	23.8	9	7.1	5	4.0	88	69.8	38	30.2

구분	독립경영 영농경력 기간								귀농여부			
	예정자 (명)	비중 (%)	1년차 (명)	비중 (%)	2년차 (명)	비중 (%)	3년차 (명)	비중 (%)	귀농 (명)	비중 (%)	재촌 (명)	비중 (%)
임실군	23	52.3	16	36.4	4	9.1	1	2.3	33	75.0	11	25.0
장수군	32	60.4	11	20.8	7	13.2	3	5.7	37	69.8	16	30.2
전주시	15	62.5	6	25.0	3	12.5	-	0.0	17	70.8	7	29.2
정읍시	74	63.2	33	28.2	8	6.8	2	1.7	79	67.5	38	32.5
진안군	31	51.7	21	35.0	3	5.0	5	8.3	48	80.0	12	20.0
총합계	556	53.0	325	31.0	104	9.9	65	6.2	740	70.5	310	29.5

자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내부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3. 영농계획

- 청년창업농 선정자의 목표영농계획 품목은 채소(시설·노지)가 21.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식량작물(19.7%), 기타(17.3%), 축산(14.6%) 순임
 - 복합영농(경종·축산)을 계획하는 인원도 8.9%를 차지해 식량작물과 축산의 비중은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 품목에 대한 선호도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지역적 특성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품목 선택에 대한 유리성이 작용한 결과 파악됨
 - 식량작물에 대한 비중이 높은 지역은 군산시·부안군·익산시·김제시, 채소는 고창군·김제시·순창군·완주군·익산시·전주시·진안군, 과수는 무주군과 장수군, 축산은 남원시·순창군·임실군 등이었음
 - 화훼와 복합영농(경종·축산)의 경우 신청 인원이 없는 지역이 존재함

〈표 3-22〉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선발자의 목표영농계획 현황

구분	식량	채소 (시설·노지)	과수	축산	특용	화훼	복합 (축산·경종)	기타	합계
고창군	빈도(명)	11	17	6	9	11	2	11	77
	비중(%)	14.3	22.1	7.8	11.7	14.3	2.6	14.3	100.0
군산시	빈도(명)	38	19	2	7	4	-	7	87
	비중(%)	43.7	21.8	2.3	8.0	4.6	-	8.0	100.0
김제시	빈도(명)	44	43	7	15	8	3	12	152
	비중(%)	28.9	28.3	4.6	9.9	5.3	2.0	7.9	100.0

구분		식량	채소 (시설·노지)	과수	축산	특용	화훼	복합 (축산·경종)	기타	합계
남원시	빈도(명)	8	21	10	23	5	-	8	16	91
	비중(%)	8.8	23.1	11.0	25.3	5.5	-	8.8	17.6	100.0
무주군	빈도(명)	1	3	18	1	3	-	-	6	32
	비중(%)	3.1	9.4	56.3	3.1	9.4	-	-	18.8	100.0
부안군	빈도(명)	32	6	5	13	7	1	12	13	89
	비중(%)	36.0	6.7	5.6	14.6	7.9	1.1	13.5	14.6	100.0
순창군	빈도(명)	3	9	3	9	3	1	4	8	40
	비중(%)	7.5	22.5	7.5	22.5	7.5	2.5	10.0	20.0	100.0
완주군	빈도(명)	4	15	9	3	6	5	2	14	58
	비중(%)	6.9	25.9	15.5	5.2	10.3	8.6	3.4	24.1	100.0
익산시	빈도(명)	34	34	10	16	4	4	3	21	126
	비중(%)	27.0	27.0	7.9	12.7	3.2	3.2	2.4	16.7	100.0
임실군	빈도(명)	2	9	2	14	4	-	6	7	44
	비중(%)	4.5	20.5	4.5	31.8	9.1	-	13.6	15.9	100.0
장수군	빈도(명)	1	13	14	13	1	-	-	11	53
	비중(%)	1.9	24.5	26.4	24.5	1.9	-	-	20.8	100.0
전주시	빈도(명)	3	9	1	1	1	1	1	7	24
	비중(%)	12.5	37.5	4.2	4.2	4.2	4.2	4.2	29.2	100.0
정읍시	빈도(명)	23	15	1	19	7	2	20	30	117
	비중(%)	19.7	12.8	0.9	16.2	6.0	1.7	17.1	25.6	100.0
진안군	빈도(명)	3	16	10	10	5	-	7	9	60
	비중(%)	5.0	26.7	16.7	16.7	8.3	-	11.7	15.0	100.0
총합계	빈도(명)	207	229	98	153	69	19	93	182	1,50
	비중(%)	19.7	21.8	9.3	14.6	6.6	1.8	8.9	17.3	100.0

자료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내부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S)

○ 영농경력별로 가장 많은 인원이 선정된 예정자의 경우 채소(시설·노지)가 2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식량작물(18.7%), 기타(18.2%), 축산(15.8%) 순이었음

- 독립경영 1년차의 경우 식량작물(21.2%), 채소(19.4%), 기타(14.8%) 순
- 2년차는 식량작물과 기타가 각각 21.2%, 채소(18.3%), 과수(12.5%) 순
- 3년차는 과수가 23.1%를 차지하며, 식량작물(18.5%), 기타(16.9%) 순

〈표 3-23〉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선발자의 영농경력별 목표영농계획

구분	예정자 (명)	비중 (%)	1년차 (명)	비중 (%)	2년차 (명)	비중 (%)	3년차 (명)	비중 (%)	합계 (명)	비중 (%)
식량작물	104	18.7	69	21.2	22	21.2	12	18.5	207	19.7
채소(시설노지)	139	25.0	63	19.4	19	18.3	8	12.3	229	21.8
과수	44	7.9	26	8.0	13	12.5	15	23.1	98	9.3
축산	88	15.8	46	14.2	10	9.6	9	13.8	153	14.6
특용작물	32	5.8	23	7.1	9	8.7	5	7.7	69	6.6
화훼	13	2.3	5	1.5	1	1.0	-	-	19	1.8
복합(축산경종)	35	6.3	45	13.8	8	7.7	5	7.7	93	8.9
기타	101	18.2	48	14.8	22	21.2	11	16.9	182	17.3
합계	556	100.0	325	100.0	104	100.0	65	100.0	1,050	100.0

자료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내부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4. 연계사업 신청현황

(1) 농지은행 농지지원사업

- 청년창업농 선정자 가운데 57.9%에 해당하는 인원이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지원사업을 신청함
- 지원사업을 신청한 인원은 2018년 54.5% 수준에서 2021년 63.6%로 증가하였으며, 신청자의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표 3-24〉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선발자의 농지은행 농지지원 신청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합계
미신청	빈도(명)	106	113	116	107	442
	비중(%)	45.5	45.0	42.6	36.4	42.1
신청	빈도(명)	127	138	156	187	608
	비중(%)	54.5	55.0	57.4	63.6	57.9
합계	빈도(명)	233	251	272	294	1,050

자료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내부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표 3-25〉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선발자의 영농기반별 농지은행 농지지원 신청현황

구 분	부모기반 별도	부모기반 없음		증여/상속				합계	비중(%)		
				일부		전체					
매 입	논	554	52.8	292	27.8	163	15.5	41	3.9	1050	100.0
	밭	192	53.3	97	26.9	54	15.0	17	4.7	360	100.0
	과수원	65	42.5	64	41.8	18	11.8	6	3.9	153	100.0
임 차	논	14	56.0	6	24.0	4	16.0	1	4.0	25	100.0
	밭	174	55.1	70	22.2	57	18.0	15	4.7	316	100.0
	과수원	67	46.5	51	35.4	21	14.6	5	3.5	144	100.0
신청자 합계		309	50.8	180	29.6	95	15.6	24	3.9	608	100.0

자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내부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S)

- 지원사업 신청자(608명) 가운데 부모의 기반 외에 별도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인원은 50.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과수원의 경우 부모의 기반이 없는 신청자의 비중이 논·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 신청면적을 비교할 때 부모의 기반이 없는 인원은 부모의 기반 외에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에 비해 밭 매입 기준 약 3.4배 이하 수준을 신청함
- 신청내역을 살펴보면 매입과 임차의 신청인원수는 비슷한 수준이며, 논·밭의 경우 매입을 신청한 인원이 34.3%, 임차는 30.1%로 파악됨
- 평균 신청면적은 매입의 경우 2020년과 2021년, 임차의 경우 2019년과 2020년에서 논보다 밭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것으로 파악됨³⁾
 - 전국의 평균 신청면적과 비교해볼 때 논·밭·과수원 등 모든 용지에서 매우 많은 면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매입을 신청한 평균 면적은 논이 14,046.1㎡, 밭이 3,248,971.2㎡, 과수원이 13,229,979.0㎡ 수준임
 - 2021년 기준 임차를 신청한 평균 면적은 논이 2,371,839.7㎡, 밭이 12,635,080.5㎡, 과수원이 20,666,674.1㎡ 수준임

3) 서남부 평야지대에서 식량작물에 대한 영농을 계획하고 있는 일부 인원의 신청면적이 지나치게 많은 측면이 있으며, 평균에 의한 분석결과를 해석하는데 중의가 요구됨

〈표 3-26〉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선발자의 연차별 농지은행 농지지원 신청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합계	비중(%)	
매입	논	빈도(명)	77	76	89	118	360	34.3
		평균(㎡)	23,847.0	1,055,353.5	6,508,620.1	14,046.1	1,841,577.0	-
	밭	빈도(명)	31	29	40	53	153	14.6
		평균(㎡)	6,289.0	920,660.3	9,102,918.3	2,001,542.5	3,248,971.2	-
	과수원	빈도(명)	6	4	7	8	25	2.4
		평균(㎡)	11,353.7	7,455.8	3,702.4	41,328,201.8	13,229,979.0	-
임차	논	빈도(명)	60	84	76	96	316	30.1
		평균(㎡)	44,125.8	23,600.4	9,764,315.3	28,993.8	2,371,839.7	-
	밭	빈도(명)	28	35	41	40	144	13.7
		평균(㎡)	6,467.8	28,351,136.1	20,163,094.4	7,346.4	12,635,080.5	-
	과수원	빈도(명)	4	3	4	5	16	1.5
		평균(㎡)	7,300.3	3,333.3	6,621.8	66,120,219.6	20,666,674.1	-

주 : 일부 인원 가운데 대규모의 농지 매입 및 임차를 신청한 경우가 있어 분석결과 해석에 주의가 요구됨
 자료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내부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2) 기타 연계사업

- 후계농자금은 전체의 71.4%가 신청한 반면, 선도농가 실습지원은 39.4%, 농업법인 인턴제는 31.1%만 신청(희망)하였음
 - 선도농가 실습지원과 농업법인 인턴제의 경우 예정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7〉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선발자의 영농경력별 연계사업 신청현황

연계사업	구분	예정자	1년차	2년차	3년차	합계	비중(%)
후계농자금	미신청	105	125	43	27	300	28.6
	신청	451	200	61	38	750	71.4
선도농가 실습지원	미신청(미희망)	287	227	74	48	636	60.6
	신청(희망)	269	98	30	17	414	39.4
농업법인 인턴제	미신청(미희망)	325	255	90	53	723	68.9
	신청(희망)	231	70	14	12	327	31.1

자료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내부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 후계농자금, 선도농가실습지원, 농업법인 인턴제 등 연계사업에 대하여

부모의 기반 외에 별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인원의 신청(희망) 비중이 약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등 높은 것이 특징적임

- 이어서 부모의 기반이 없는 인원의 신청(희망) 비중이 높았으며, 증여 및 상속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는 경우 연계사업에 대한 비중이 낮게 나타남

〈표 3-28〉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선발자의 영농기반별 연계사업 신청현황

구 분		부모기반 별도	부모기반 없음	증여/상속		합계
				일부	전체	
후계농 자금	신청자수(명)	399	202	121	28	750
	비중(%)	53.2	26.9	16.1	3.7	100.0
선도농가 실습지원	신청자수(명)	202	131	65	16	414
	비중(%)	48.8	31.6	15.7	3.9	100.0
농업법인 인턴제	신청자수(명)	164	98	55	10	327
	비중(%)	50.2	30.0	16.8	3.1	100.0

자료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내부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5. 기타현황

- 도내 청년창업농 선정자로 확정된 1,050명 가운데 미개시자는 총 93명으로 2021년 81명, 2020년 8명, 2018년과 2019년 각각 2명이었음
- 자격이 취소된 인원은 5명, 포기한 인원은 73명이었으며, 주요한 사유로는 취업 및 타 업종 종사, 과도한 부채로 인한 영농영위 불가, 영농지 이탈, 사망 등으로 파악됨

4

장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실태

Jeonbuk Institute

-
1. 청년창업농 실태조사
 2. 청년창업농 면접조사
 3. 조사결과 종합

제 4 장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실태

제1절 청년창업농 실태조사

1. 조사개요

- 청년농업인의 영농 창업과 지속적인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농업 차원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 조사대상은 도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18~2021년)’ 선정자 957명(포기자 등 제외)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음⁴⁾
- 조사기간은 2021년 11월 2일부터 11월 12일 동안 11일 간 이루어졌으며,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한 비대면 조사로 진행하였음
- 비대면 조사를 위해 별도의 온라인폼을 활용하여 모바일과 이메일로 모집단 전체에게 조사표를 배포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함⁵⁾
- 조사의 주요내용은 청년창업농 관련 선행연구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간담회 등을 토대로 설문항목을 마련하였음
- 세부적으로 일반현황, 준비 및 진입 과정, 영농 및 정착 현황, 정책 평가 및 수요 등 4개 영역에 대하여 30개 항목(5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 조사내용 중 영농정착과정에서 어려운 정도,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지원사업과 영농수준에 대한 평가, 행정지원·유관기관에 대한 만족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7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음
- 주된 분석방법으로 기술통계를 진행하였으며, 평균값을 기준으로 항목별

4)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18~2021년)’에 전라북도는 1,093명이 선정되었으나 중도 포기한 대상자 136명은 설문조사에서 제외하였음

5) 조사대상에 대한 연락처는 전라북도 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의 협조를 통해 확보하였으며, 조사원을 활용하여 설문조사에 대한 안내와 참여를 독려했음

집단 간 수준을 비교분석하였음

〈표 4-1〉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실태조사 설문항목 및 세부내용

조사분야	조사 항목	항목수
응답자 일반현황	성별, 연령, 거주지, 결혼여부, 자녀유무, 부모세대 동거유무, 창업농 선정시기, 독립경영 연차, 영농경험 유무, 농업계 학교 전공유무, 승계농 유무, 농업경영체 등록유형 등	12항목
준비 및 진입 과정	영농 창업 결정 동기, 현재 지역 선택 이유, 농업 창업 직전 직업, 영농 창업 준비기간, 영농정착에 도움이 된 교육 내용, 준비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 등	6항목
영농 및 정착 현황	현재 주 품목, 보유 영농시설, 보유 농기계, 사업선정 전후 영농규모 변화정도, 사업선정 전후 농가소득 변화정도, 영농규모 변화 계획, 영농정착과정에서 어려운 정도(7문항), 생활수준에 만족하는 정도(9문항) 등	8항목 (세부포함 22문항)
정책 평가 및 수요	소비지출(월) 중 지원금 비율, 지원사업과 영농수준 평가(5문항), 행정지원·유관기관 만족도(2문항), 청년창업농 육성에 필요한 정책분야	4항목 (세부포함 9문항)

2. 응답자 현황

(1) 일반현황

- 조사결과 도내 청년창업농 중 38.7%에 해당하는 371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회수된 조사표 전체를 분석에 활용하였음
- 지역별로 김제시가 14.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익산시(13.2%), 군산시(10.2%), ‘정읍시(8.6%) 순이었음
- 성별은 남성이 78.2%(290명)를 차지하며, 연령은 30대(58.0%), 40대(22.4%), 20대(19.7%)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부모 동거유무는 비동거가 75.0%로 조사되었으며, 결혼여부에서는 기혼이 50.5%(186명)이며, 자녀가 있는 인원이 44.7%(165명)로 기혼자 대부분이 양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4-2〉 청년창업농 실태조사 응답자의 일반현황

지역	빈도(명)	비율	성별	빈도(명)	비율
전주	11	3.0%	남 성	290	78.2%
군산	38	10.2%	여 성	81	21.8%
익산	49	13.2%	합 계	371	100.0%
정읍	36	9.7%	연령	빈도(명)	비율
남원	22	5.9%	20대	73	19.7%
김제	54	14.6%	30대	215	58.0%
완주	31	8.4%	40대	83	22.4%
진안	14	3.8%	합 계	371	100.0%
무주	14	3.8%	부모동거	빈도(명)	비율
장수	17	4.6%	동 거	92	25.0%
임실	16	4.3%	비동거	276	75.0%
순창	13	3.5%	합 계	368	100.0%
고창	32	8.6%	결혼여부	빈도(명)	비율
부안	24	6.5%	미 혼	171	46.5%
합 계	371	100.0%	기 혼	186	50.5%
자녀유무	빈도(명)	비율	기 타	11	3.0%
없 음	204	55.3%	합 계	368	100.0%
있 음	165	44.7%			
합 계	369	100.0%			

* 조사기간 2021.11.2~12, 모바일·이메일 조사

*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설문응답 371명(38.7%)

(2) 영농현황

- 비승계농(54.9%)이 승계농(45.1%)보다 약간 많았으며, 영농경험이 있다(52.3%)고 응답한 인원이 없다(47.7%)고 응답한 경우보다 많았음
- 사업 선정시기에 따라 2020년(30.7%), 2021년(28.0%), 2019년(21.0%), 2018년(20.2%)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독립경영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1년차(30.5%)와 2년차(28.8%)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업경영체 등록유형은 개인이 95.9%, 농업계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인원이 74.8%로 대다수를 차지함

〈표 4-3〉 청년창업농 실태조사 응답자의 영농현황

승계농여부	빈도(명)	비율	영농경험	빈도(명)	비율
비승계농	202	54.9%	없 음	177	47.7%
승계농	166	45.1%	있 음	194	52.3%
합 계	368	100.0%	합 계	371	100.0%
선정시기	빈도(명)	비율	경영체등록	빈도(명)	비율
2018년	75	20.2%	개 인	355	95.9%
2019년	78	21.0%	농업법인	6	1.6%
2020년	114	30.7%	등록준비	8	2.2%
2021년	104	28.0%	기 타	1	0.3%
합 계	371	100.0%	합 계	370	100.0%
독립경영	빈도(명)	비율	농업전공	빈도(명)	비율
1년차	113	30.5%	없 음	276	74.8%
2년차	107	28.8%	있 음	93	25.2%
3년차	95	25.6%	합 계	369	100.0%
4년차	56	15.1%			
합 계	371	100.0%			

* 조사기간 2021.11.2~12, 모바일·이메일 조사
*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설문응답 371명(38.7%)

3. 준비 및 진입 과정

(1) 농업창업 동기 및 지역선택 이유

○ 창농의 주요 동기는 ‘농업의 비전과 매력’이 34.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정환경이 농업·농촌과 가까워서’라고 응답한 인원이 23.4%를 차지함

〈그림 4-1〉 농업창업 동기

(단위 : 명)



〈그림 4-2〉 지역선택 이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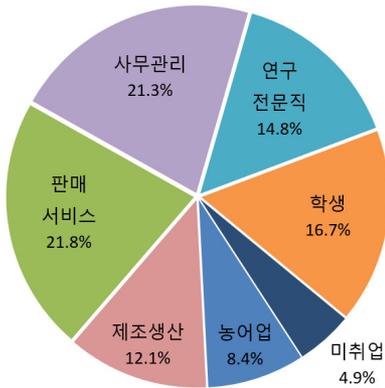
주 : 2개 중복 응답

- 지역선택의 이유는 '고향 또는 연고지'가 54.9%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이어서 '품목 선택에 유리'로 응답한 인원이 15.8%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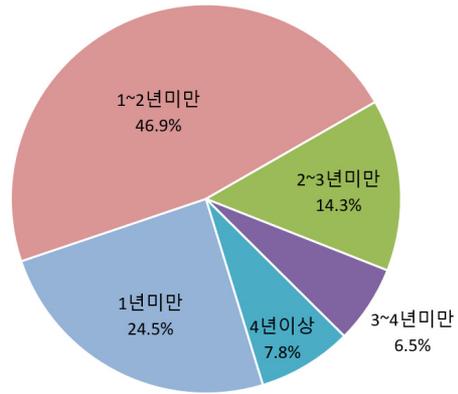
(2) 창농 직전 직업 및 준비기간

- 농업 창업 직전 직업으로는 판매·서비스(21.8%), 사무관리(21.3%), 학생 (16.7%), 연구·전문직(14.8%) 순으로 많았으며, 다양하게 존재함
- 창농을 위한 준비기간은 1~2년 미만이 46.9%로 가장 많고, 1년 미만이 24.5%를 차지하는 등 2년 미만이 전체의 71.4%에 이름

〈그림 4-3〉 농업창업 직전직업



〈그림 4-4〉 농업창업 준비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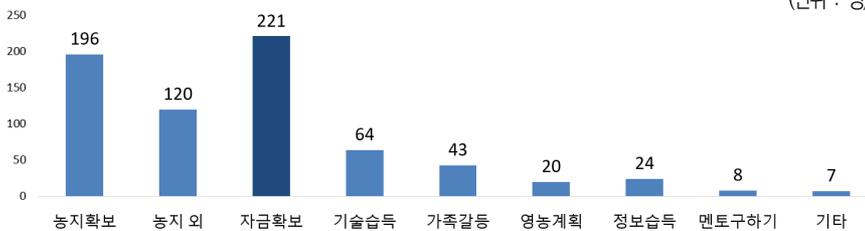


(3) 농업창업 준비과정의 애로사항

- 농업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자금확보가 31.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농지확보(27.9%), 농지 외 기반마련(17.1%) 순이었음

〈그림 4-5〉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준비과정의 애로사항

(단위 : 명)



주 : 2개 중복 응답

4. 영농 및 정착 현황

(1) 주 재배 품목

- 주 재배 품목으로는 벼와 그 외 식량작물이 각각 23.5%, 17.6%로 식량작물이 전체의 41.1%를 차지함
 - 채소·과채는 전체의 28.4%를 차지하며, 시설재배(21.6%)가 노지재배(6.8%)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응답함
 - 축산은 한우(9.7%)의 비중이 높고, 젓소와 양계·오리는 각각 2.2%였음
- 〈표 4-4〉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주요 재배 품목

구 분	벼	벼외식량작물	노지채소과채	시설채소과채	과수	버섯	약용특용
빈도(명)	87	65	25	80	34	6	1
비율(%)	23.5	17.6	6.8	21.6	9.2	1.6	0.3
구 분	화훼조경	한우	양돈	젓소	양계오리	기타	합계
빈도(명)	8	36	2	8	8	10	370
비율(%)	2.2	9.7	0.5	2.2	2.2	2.7	100.0

주 : 매출액 기준 1순위

(2) 영농 시설 및 장비

- 보유하고 있는 영농시설은 비닐하우스(29.2%)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창고(21.0%), 저온저장고(16.2%), 축사(12.8%) 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4-5〉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시설 보유현황

구 분	비닐 하우스	유리 온실	축사	저온 저장고	사무실	가공 시설	창고	기타	합계
빈도(명)	171	2	75	95	54	22	123	43	585
비율(%)	29.2	0.3	12.8	16.2	9.2	3.8	21.0	7.4	100.0

주 : 모두 응답

- 영농장비의 경우 트랙터(21.0%) 보유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업용 트랙터(19.3%), 관리기(11.1%), 농산물 건조기(9.9%) 순으로 조사됨

〈표 4-6〉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장비 보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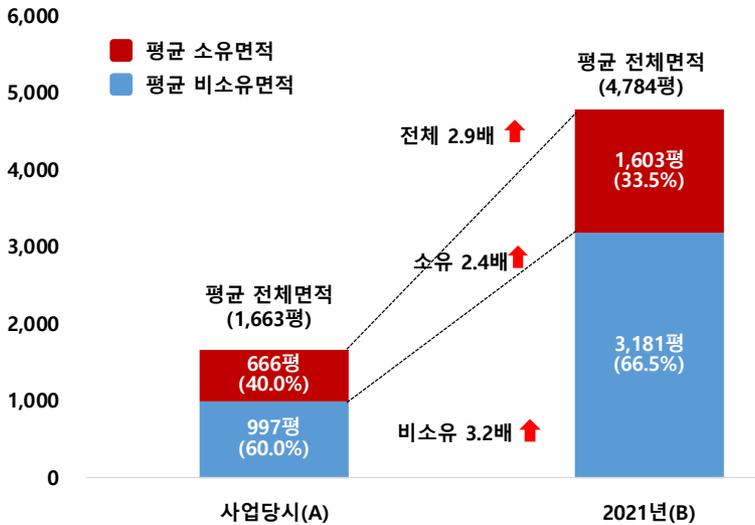
구분	트랙터	S-S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곡물건 조기	농업용 트럭	농업용 드론	기타	합계
빈도(명)	168	17	74	54	89	79	60	154	42	63	800
비율(%)	21.0	2.1	9.3	6.8	11.1	9.9	7.5	19.3	5.3	7.9	100.0

주 : 모두 응답

(3) 농지규모 변화

- 2021년 기준 전체 응답자의 평균 재배면적은 4,784평으로 사업 선정당시의 1,663평보다 약 2.9배 확대된 것으로 파악됨
- 본인 소유면적은 선정당시 666평에서 2021년 1,603평으로 약 2.4배 확대되었으나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0%에서 33.5%로 감소함
- 비소유면적은 선정당시 997평에서 2021년 3,181평으로 약 3.2배 증가하였으며,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0%에서 66.5%로 증가함
- 사업 선정당시보다 최근 2021년의 전체 농지면적은 약 2.9배 증가하였으나 소유면적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6〉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농지면적 변화



주 : 사업당시(A)는 2018~2020년의 평균 농지면적

① 승계여부에 따른 농지면적

○ 사업 선정당시 전체 농지면적의 평균은 비승계농이 1,163평으로 승계농(2,357평)의 49.3% 수준으로 파악됨

- 2021년 기준 농지면적은 비승계농의 약진으로 평균 4,595평까지 증가하였으며, 승계농 농지면적의 90.4% 수준까지 도달함

○ 소유면적은 사업 선정당시 비승계농의 경우 전체면적의 54.2%, 승계농이 29.8%였으나 2021년에 비승계농은 27.3%, 승계농은 39.0%로 나타남

- 승계농의 경우 소유면적이 증가한 반면, 비승계농의 경우 임차 등을 통해 전체 농지면적을 확대해온 것으로 파악됨

〈표 4-7〉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승계여부별 농지면적 변화

구분		소유면적 (평)		비소유면적		전체면적 (평)
			비율		비율	
사업당시 (A)	비승계	630	54.2%	533	45.8%	1,163
	승계	703	29.8%	1,655	70.2%	2,357
	전체	661	39.5%	1,012	60.5%	1,672
2021년 (B)	비승계	1,254	27.3%	3,341	72.7%	4,595
	승계	1,984	39.0%	3,097	61.0%	5,081
	전체	1,583	32.9%	3,231	67.1%	4,814
규모변화	비승계	+2.0배	-26.9%p	+6.3배	26.9%p	+4.0배
	승계	+2.8배	9.2%p	+1.9배	-9.2%p	+2.2배
	전체	+2.4배	-6.6%p	+3.2배	6.6%p	+2.9배

주 : 비율의 규모변화는(B)-(A)값임.

② 연령별 농지면적

○ 연령별 평균 농지면적은 사업 선정당시 20대가 2,031평, 30대는 1,638평 40대는 1,380평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면적이 많았음

- 반면에 최근 2021년에는 30대가 5,076평, 40대 4,686평, 20대가 4,035평으로 20대의 농지면적이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됨

○ 사업 선정당시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소유면적 비율은 20대가 31.8%, 30대 36.9%, 40대 57.0%였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면

적을 소유하면서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농지면적의 규모변화는 40대가 약 3.4배 확대되었으며, 30대 3.1배, 20대 1.9배 순이었음

- 소유면적 비율의 변화는 6.5%p 감소한 가운데 20대가 유일하게 증가하였으며, 30대와 40대는 각각 4.4%p, 21.0%p 하락하였음

〈표 4-8〉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연령별 농지면적 변화

(단위 : 평)

구 분	소유면적	비율		비소유면적	비율	전체면적
사업당시 (A)	20대	677	31.8%	1,454	68.2%	2,131
	30대	604	36.9%	1,034	63.1%	1,638
	40대	787	57.0%	594	43.0%	1,380
	전체	666	40.0%	997	60.0%	1,663
2021년 (B)	20대	1,373	34.0%	2,661	66.0%	4,035
	30대	1,648	32.5%	3,428	67.5%	5,076
	40대	1,687	36.0%	2,998	64.0%	4,686
	전체	1,603	33.5%	3,181	66.5%	4,784
규모변화	20대	+2.0배	2.3%p	+1.8배	-2.3%p	+1.9배
	30대	+2.7배	-4.4%p	+3.3배	4.4%p	+3.1배
	40대	+2.1배	-21.0%p	+5.1배	21.0%p	+3.4배
	전체	+2.4배	-6.5%p	+3.2배	6.5%p	+2.9배

주 : 비율의 규모변화는 (B)-(A)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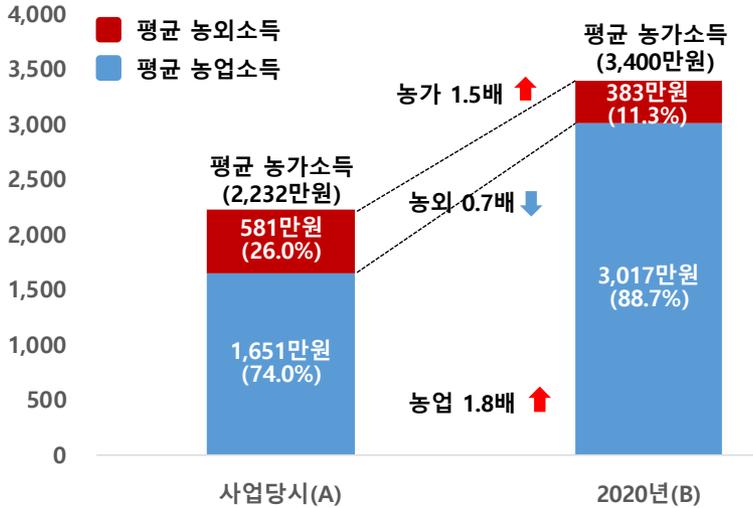
(4) 농가소득 변화

○ 2020년 기준 연평균 농가소득 규모는 3,400만원으로 사업 선정당시 (2018~2019년)의 2,232만원보다 1,168만원 향상됨

○ 농업소득은 선정당시 연평균 1,651만원에서 2020년 3,017만원으로 약 1.8배 증가하였으며,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4.0%에서 88.7%로 증가하는 등 집중도가 높아짐

○ 농외소득의 경우 선정당시 연평균 581만원에서 2020년 383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0%에서 11.3%로 축소됨

〈그림 4-7〉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농가소득 변화



주 : 사업당시(A)는 2018~2019년 평균소득

① 승계여부 농가소득

- 사업 선정당시 비승계농의 연평균 농가소득은 1,793만원으로 승계농의 2,746만원에 비해 65.3% 수준이었음
- 농업소득·농외소득 규모는 모두 승계농이 많았으나 사업 선정당시 농업소득의 비중은 비승계농이 84.0%로 승계농(64.6%)보다 높은 편이었음
- 2020년 기준 승계농의 농업소득은 사업 선정당시보다 약 2.2배 증가하였으며, 농외소득은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비승계농의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은 각각 약 1.5배, 1.1배 증가하였음
- 2020년 기준 비승계농의 농가소득은 승계농의 61.2% 수준으로 사업 선정당시 보다 낮아진 것으로 분석됨
 - 비승계농의 전체 농지면적은 승계농의 49.3%에서 90.4% 수준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비율은 더욱 낮아진 결과로 비승계농이 농업경영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9〉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승계여부별 농가소득 변화

(단위 : 만원)

구분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가소득
			비율		비율	
사업당시 (A)	비승계	1,506	84.0%	286	16.0%	1,793
	승계	1,773	64.6%	973	35.4%	2,746
	전체	1,627	73.5%	585	26.5%	2,213
2020년 (B)	비승계	2,326	88.0%	317	12.0%	2,643
	승계	3,846	89.1%	471	10.9%	4,316
	전체	3,012	88.6%	386	11.4%	3,398
규모변화	비승계	+1.5배	4.0%	+1.1배	-4.0%	+1.5배
	승계	+2.2배	24.5%	+0.5배	-24.5%	+1.6배
	전체	+1.9배	15.1%	+0.7배	-15.1%	+1.5배

주 : 비율의 규모변화는(B)-(A)값임.

② 연령별 농가소득

○ 연령별 연평균 농가소득을 비교해보면, 40대가 2,688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2,128만원), 20대(1,721만원) 순이었음

〈표 4-10〉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연령별 농가소득 변화

(단위 : 만원)

구분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가소득
			비율		비율	
사업당시 (A)	20대	1,505	87.4%	217	12.6%	1,721
	30대	1,761	82.8%	366	17.2%	2,128
	40대	1,517	56.4%	1,172	43.6%	2,688
	전체	1,651	74.0%	581	26.0%	2,232
2021년 (B)	20대	3,209	90.5%	337	9.5%	3,546
	30대	3,082	87.4%	442	12.6%	3,524
	40대	2,680	90.8%	271	9.2%	2,951
	전체	3,017	88.7%	383	11.3%	3,400
규모변화	20대	+2.1배	3.1%p	+1.6배	-3.1%p	+2.1배
	30대	+1.7배	4.7%p	+1.2배	-4.7%p	+1.7배
	40대	+1.8배	34.4%p	+0.2배	-34.4%p	+1.1배
	전체	+1.8배	14.8%p	+0.7배	-14.8%p	+1.5배

주 : 비율의 규모변화는 (B)-(A)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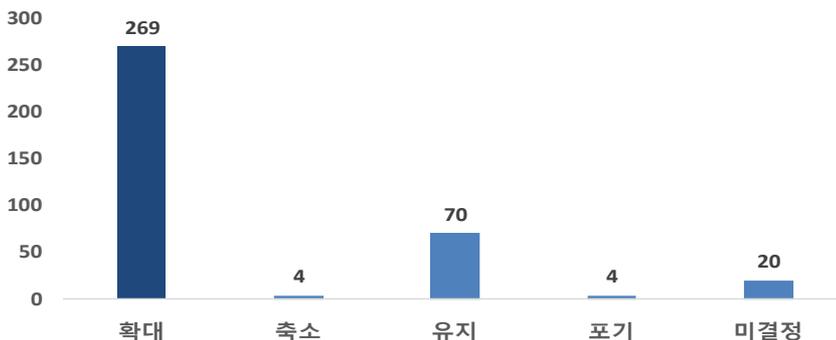
- 사업 선정당시 농업소득 비율은 20대와 30대가 각각 87.4%, 82.8%인 반면에 40대는 56.4%로 낮았으며, 농외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사업당시 40대의 농외소득이 높은 이유는 직장·사업 등 근로활동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됨
- 2020년에는 전반적으로 농가소득이 상승한 가운데 20대의 농업소득은 약 2.1배 증가하는 등 가장 높은 소득규모를 달성하였음
 - 반면에 사업 선정당시 농가소득이 가장 높았던 40대의 경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으며, 농외소득 하락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5) 향후 영농규모 확대 계획

- 응답자의 73.3%가 향후 영농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유지는 19.1%, 축소나 포기는 각각 2.2%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40대의 확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65.9%였으며, 유지는 26.8%로 높아 비교적 안정적인 영농계획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됨
- 영농규모 확대는 승계농(80.4%)이 비승계농(67.3%)보다, 자녀가 있는 인원(75.0%)이 없는 인원(71.6%)보다, 영농경험 경험이 있는 인원(76.4%)이 없는 인원(69.9%)보다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그림 4-8〉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향후 영농규모 확대 계획

(단위 : 명)



〈표 4-11〉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유형별 영농규모변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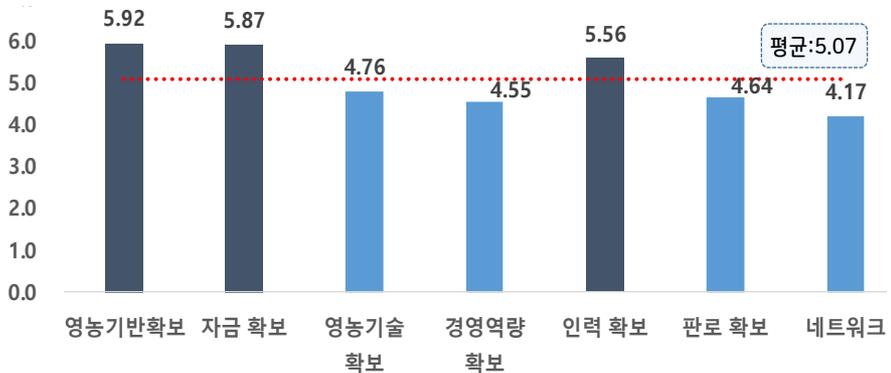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확 대		축 소		유 지		포 기		미결정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대	20대	52	72.2	0	0.0	14	19.4	3	4.2	3	4.2	72	100.0
	30대	163	76.5	1	0.5	34	16.0	1	0.5	14	6.6	213	100.0
	40대	54	65.9	3	3.7	22	26.8	0	0.0	3	3.7	82	100.0
	합계	269	73.3	4	1.1	70	19.1	4	1.1	20	5.4	367	100.0
승계여부	비승계	136	67.3	3	1.5	44	21.8	3	1.5	16	7.9	202	100.0
	승계	131	80.4	1	0.6	26	16.0	1	0.6	4	2.5	163	100.0
	합계	267	73.2	4	1.1	70	19.2	4	1.1	20	5.5	365	100.0
자녀유무	없음	144	71.6	2	1.0	39	19.4	3	1.5	13	6.5	201	100.0
	있음	123	75.0	2	1.2	31	18.9	1	0.6	7	4.3	164	100.0
	합계	267	73.2	4	1.1	70	19.2	4	1.1	20	5.5	365	100.0
영농경험유무	없음	123	69.9	3	1.7	37	21.0	3	1.7	10	5.7	176	100.0
	있음	146	76.4	1	0.5	33	17.3	1	0.5	10	5.2	191	100.0
	합계	269	73.3	4	1.1	70	19.1	4	1.1	20	5.4	367	100.0

(6) 영농정책과정의 애로사항

- 영농정책과정에서 느낀 전반적인 어려움의 정도는 5.07(7점 척도) 수준이었으며, 항목별로 영농기반확보(5.92), 자금확보(5.87), 인력확보(5.56)의 경우 평균 이상보다 높게 응답함

〈그림 4-9〉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책과정의 애로사항



- 모든 유형에서 영농기반 확보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령대 별로 30대(6.07)의 어려움 정도가 크고, 비승계농(6.04)이 승계농(5.77)보다 높았음
- 자녀가 있는 인원(5.96)이 없는 인원(5.88)보다, 영농경험이 없는 인원(6.07)이 없는 인원(5.79)보다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응답함

〈표 4-12〉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과정의 애로사항

구분		영농기반 확보	자금 확보	영농기술 확보	경영역량 확보	인력 확보	판로 확보	네트 워크	평균
연령대	20대	5.77	5.87	4.91	4.88	5.58	4.80	4.10	5.13
	30대	6.07	5.99	4.80	4.53	5.61	4.60	4.16	5.11
	40대	5.69	5.58	4.54	4.31	5.43	4.61	4.24	4.92
승계 여부	비승계	6.04	5.99	4.92	4.61	5.59	4.76	4.32	5.17
	승계	5.77	5.71	4.56	4.46	5.54	4.48	3.99	4.93
자녀 유무	없음	5.88	5.84	4.90	4.69	5.65	4.77	4.16	5.13
	있음	5.96	5.92	4.62	4.37	5.44	4.50	4.21	5.00
영농 경험	없음	6.07	5.98	4.96	4.59	5.65	4.71	4.49	5.21
	있음	5.79	5.78	4.58	4.51	5.48	4.58	3.87	4.94
전체 평균		5.92	5.87	4.76	4.55	5.56	4.64	4.17	5.07

주 : 7점 리커트척도

① 연령대별 차이

- 연령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영농기반 확보와 자금 확보의 경우 30대, 20대, 40대 순으로 어려움 정도가 컸음
- 경영역량 확보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인식하는 정도가 20대, 30대, 4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4-13〉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과정의 연령대별 애로사항

구분		평균	S.D.	F
1. 영농기반 확보(농지·시설·장비 등)	20대	5.77	1.31	3.42* (0.034)
	30대	6.07	1.18	
	40대	5.69	1.37	

구 분		평균	S.D.	F
2. 자금 확보(운영·관리비 등)	20대	5.87	1.22	3.45* (0.033)
	30대	5.99	1.12	
	40대	5.58	1.38	
3. 영농기술 확보(비용절감 등)	20대	4.91	1.48	1.41
	30대	4.80	1.52	
	40대	4.54	1.29	
4. 경영역량 확보(회계관리, 경영관리 등)	20대	4.88	1.51	3.03* (0.050)
	30대	4.53	1.50	
	40대	4.31	1.16	
5. 인력 확보	20대	5.58	1.51	0.47
	30대	5.61	1.49	
	40대	5.43	1.34	
6. 판로 확보	20대	4.80	1.56	0.40
	30대	4.60	1.67	
	40대	4.61	1.48	
7. 네트워크(조직·모임활동, 인맥관리 등)	20대	4.10	1.48	0.19
	30대	4.16	1.46	
	40대	4.24	1.40	

주 : $P^* < 0.05$, $P^{**} < 0.01$, $P^{***} < 0.001$

② 승계여부 차이

- 승계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영농기반 확보, 자금 확보, 영농기술 확보, 네트워크 등이었으며, 이상의 항목에서 비승계농이 어려움 느끼는 정도가 큰 것으로 평가됨

〈표 4-14〉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과정의 승계여부별 애로사항

구 분		평균	S.D.	T
1. 영농기반 확보(농지·시설·장비 등)	비승계	6.04	1.18	2.02* (0.044)
	승계	5.77	1.34	
2. 자금 확보(운영·관리비 등)	비승계	5.99	1.15	2.16* (0.031)
	승계	5.71	1.27	
3. 영농기술 확보(비용절감 등)	비승계	4.92	1.39	2.34* (0.020)
	승계	4.56	1.54	

구 분		평균	S.D.	T
4. 경영역량 확보(회계관리, 경영관리 등)	비승계	4.61	1.46	0.96
	승계	4.46	1.42	
5. 인력 확보	비승계	5.59	1.48	0.30
	승계	5.54	1.44	
6. 판로 확보	비승계	4.76	1.55	1.68
	승계	4.48	1.66	
7. 네트워크(조직·모임활동, 인맥관리 등)	비승계	4.32	1.53	2.14* (0.033)
	승계	3.99	1.31	

주 : $P^* < 0.05$, $P^{**} < 0.01$, $P^{***} < 0.001$

③ 자녀유무 차이

○ 자녀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경영역량 확보였으며, 자녀가 없는 인원의 어려움이 보다 큰 것으로 평가됨

〈표 4-15〉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과정의 자녀유무별 애로사항

구 분		평균	S.D.	T
1. 영농기반 확보(농지·시설·장비 등)	자녀없음	5.88	1.33	-0.55
	자녀있음	5.96	1.16	
2. 자금 확보(운영·관리비 등)	자녀없음	5.84	1.22	-0.63
	자녀있음	5.92	1.18	
3. 영농기술 확보(비용절감 등)	자녀없음	4.90	1.49	1.80
	자녀있음	4.62	1.40	
4. 경영역량 확보(회계관리, 경영관리 등)	자녀없음	4.69	1.49	2.06* (0.040)
	자녀있음	4.37	1.37	
5. 인력 확보	자녀없음	5.65	1.42	1.37
	자녀있음	5.44	1.50	
6. 판로 확보	자녀없음	4.77	1.54	1.61
	자녀있음	4.50	1.66	
7. 네트워크(조직·모임활동, 인맥관리 등)	자녀없음	4.16	1.40	-0.32
	자녀있음	4.21	1.49	

주 : $P^* < 0.05$, $P^{**} < 0.01$, $P^{***} < 0.001$

④ 영농경험유무

- 영농경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영농기반 확보, 영농기술 확보, 네트워크 등이었으며, 영농경험이 없는 인원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게 평가됨

〈표 4-16〉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과정의 영농경험유무별 애로사항

구 분		평균	S.D.	T
1. 영농기반 확보(농지·시설·장비 등)	경험없음	6.07	1.15	2.21* (0.028)
	경험있음	5.79	1.33	
2. 자금 확보(운영·관리비 등)	경험없음	5.98	1.14	1.59
	경험있음	5.78	1.26	
3. 영농기술 확보(비용절감 등)	경험없음	4.96	1.35	2.50* (0.013)
	경험있음	4.58	1.54	
4. 경영역량 확보(회계관리, 경영관리 등)	경험없음	4.59	1.44	0.57
	경험있음	4.51	1.45	
5. 인력 확보	경험없음	5.65	1.38	1.079
	경험있음	5.48	1.53	
6. 판로 확보	경험없음	4.71	1.54	0.81
	경험있음	4.58	1.66	
7. 네트워크(조직·모임활동, 인맥관리 등)	경험없음	4.49	1.52	4.17*** (0.000)
	경험있음	3.87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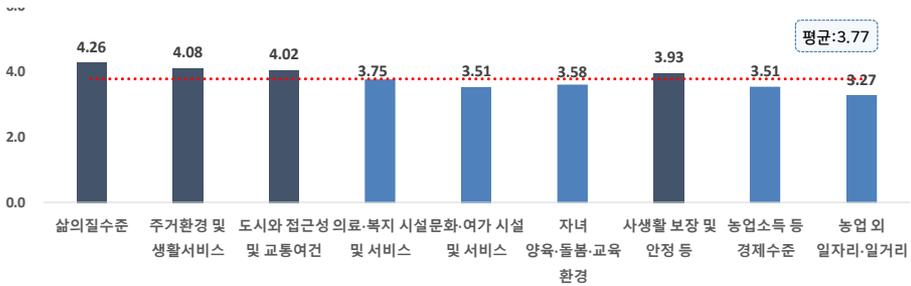
주 : $P^* < 0.05$, $P^{**} < 0.01$, $P^{***} < 0.001$

(8) 생활수준에 만족하는 정도

- 현재 생활수준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는 평균 3.77(7점 척도)의 낮은 수준이었으며, 전반적인 삶의 수준은 4.26으로 평가하고 있음
- 만족도가 높았던 항목은 주거환경 및 생활서비스(4.08), 도시접근성 및 교통여건(4.02), 사생활 보장 및 안정(3.93) 순이었음
- 반면에 농업 외 일자리·일거리(3.27)를 가장 낮게 평가하였으며, 다음으로 문화·여가 시설 및 서비스(3.51), 농업소득 등 경제수준(3.51), 자녀·양육 돌봄·교육 환경(3.58) 순이었음

- 전반적으로 문화·의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및 인프라와 일자리·일거리 등 경제활동 관련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0〉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생활수준 만족도



주 : 7점 리커트척도

- 연령대별 만족도는 20대(4.06), 40대(3.81), 30대(3.66) 순으로 높았으며, 승계농(3.90)이 비승계농(3.66)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자녀가 있는 인원(3.88)이 없는 인원(3.68)보다, 영농경험이 있는 인원(3.92)이 없는 인원(3.60)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며, 모든 세부항목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남

〈표 4-17〉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유형별 생활수준 만족도

구분	삶의질 수준	주거환경 및 생활 서비스	도시접근성 및 교통여건	의료·복지 시설 및 서비스	문화·여가 시설 및 서비스	자녀양육·돌봄·교육 환경	사생활 보장 및 안정	농업소득 경제수준	농업외 일자리 일거리	평균	
연령대	20대	4.48	4.41	4.30	4.12	3.83	3.77	4.19	3.77	3.70	4.06
	30대	4.17	3.98	3.88	3.58	3.37	3.48	3.87	3.47	3.12	3.66
	40대	4.31	4.08	4.16	3.87	3.61	3.69	3.86	3.40	3.28	3.81
승계여부	비승계	4.17	3.97	3.95	3.66	3.46	3.54	3.73	3.33	3.14	3.66
	승계	4.37	4.21	4.12	3.87	3.56	3.64	4.17	3.72	3.43	3.90
자녀유무	없음	4.15	4.01	3.86	3.70	3.34	3.41	3.93	3.45	3.27	3.68
	있음	4.39	4.16	4.22	3.82	3.70	3.81	3.97	3.60	3.27	3.88
영농경험	없음	4.14	3.92	3.88	3.58	3.35	3.44	3.70	3.34	3.05	3.60
	있음	4.37	4.23	4.15	3.91	3.66	3.71	4.15	3.66	3.47	3.92
전체 평균	4.26	4.08	4.02	3.75	3.51	3.58	3.93	3.51	3.27	3.77	

① 연령대별 차이

- 연령대에 따라 의료·복지 시설 및 서비스, 농업 외 일자리·일거리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20대, 40대, 30대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음

〈표 4-18〉 전라북도 청년창업농의 연령대별 생활수준 만족도

구 분		평균	S.D.	F
1.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	20대	4.48	1.18	1.44
	30대	4.17	1.42	
	40대	4.31	1.25	
2. 주거환경 및 생활서비스	20대	4.41	1.43	2.30
	30대	3.98	1.50	
	40대	4.08	1.30	
3. 도시와 접근성 및 교통여건	20대	4.30	1.52	2.47
	30대	3.88	1.58	
	40대	4.16	1.34	
4. 의료·복지 시설 및 서비스	20대	4.12	1.49	3.39* (0.035)
	30대	3.58	1.59	
	40대	3.87	1.50	
5. 문화·여가 시설 및 서비스	20대	3.83	1.57	2.50
	30대	3.37	1.55	
	40대	3.61	1.54	
6. 자녀 양육·돌봄·교육 환경	20대	3.77	1.33	1.29
	30대	3.48	1.51	
	40대	3.69	1.45	
7. 사생활 보장 및 안정 등	20대	4.19	1.29	1.41
	30대	3.87	1.49	
	40대	3.86	1.28	
8. 농업소득 등 경제수준	20대	3.77	1.34	1.63
	30대	3.47	1.41	
	40대	3.40	1.25	
9. 농업 외 일자리·일거리	20대	3.70	1.36	4.82** (0.009)
	30대	3.12	1.38	
	40대	3.28	1.17	

주 : $P^* < 0.05$, $P^{**} < 0.01$, $P^{***} < 0.001$

② 승계여부 차이

○ 승계여부에 따라 사생활 보장 및 안정, 농업소득 등 경제수준, 농업 외 일 자리·일거리 등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이상의 항목에서 승계농이 비승계농보다 상대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표 4-19〉 전라북도 청년창업농의 승계여부별 생활수준 만족도

구분		평균	S.D.	T
1.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	비승계	4.17	1.38	-1.40
	승계	4.37	1.30	
2. 주거환경 및 생활서비스	비승계	3.97	1.50	-1.56
	승계	4.21	1.39	
3. 도시와 접근성 및 교통여건	비승계	3.95	1.56	-1.11
	승계	4.12	1.46	
4. 의료·복지 시설 및 서비스	비승계	3.66	1.60	-1.27
	승계	3.87	1.49	
5. 문화·여가 시설 및 서비스	비승계	3.46	1.58	-0.61
	승계	3.56	1.53	
6. 자녀 양육·돌봄·교육 환경	비승계	3.54	1.51	-0.67
	승계	3.64	1.40	
7. 사생활 보장 및 안정 등	비승계	3.73	1.42	-3.03** (0.003)
	승계	4.17	1.37	
8. 농업소득 등 경제수준	비승계	3.33	1.35	-2.76** (0.006)
	승계	3.72	1.34	
9. 농업 외 일자리·일거리	비승계	3.14	1.35	-2.11* (0.035)
	승계	3.43	1.31	

주 : $P^* < 0.05$, $P^{**} < 0.01$, $P^{***} < 0.001$

③ 자녀유무 차이

○ 자녀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도시와 접근성 및 교통여건, 자녀 양육·돌봄·교육 환경 등으로 분석됨

○ 이상의 항목에 대하여 자녀가 있는 인원이 없는 인원보다 상대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표 4-20〉 전라북도 청년창업농의 자녀유무별 생활수준 만족도

구 분		평균	S.D.	T
1.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	자녀없음	4.15	1.45	-1.72
	자녀있음	4.39	1.17	
2. 주거환경 및 생활서비스	자녀없음	4.01	1.52	-1.02
	자녀있음	4.16	1.34	
3. 도시와 접근성 및 교통여건	자녀없음	3.86	1.50	-2.24* (0.026)
	자녀있음	4.22	1.55	
4. 의료·복지 시설 및 서비스	자녀없음	3.70	1.46	-0.75
	자녀있음	3.82	1.67	
5. 문화·여가 시설 및 서비스	자녀없음	3.34	1.53	-2.18
	자녀있음	3.70	1.56	
6. 자녀 양육·돌봄·교육 환경	자녀없음	3.41	1.36	-2.60** (0.009)
	자녀있음	3.81	1.55	
7. 사생활 보장 및 안정 등	자녀없음	3.93	1.41	-0.26
	자녀있음	3.97	1.39	
8. 농업소득 등 경제수준	자녀없음	3.45	1.45	-1.07
	자녀있음	3.60	1.24	
9. 농업 외 일자리·일거리	자녀없음	3.27	1.38	-0.06
	자녀있음	3.27	1.31	

주 : $P^* < 0.05$, $P^{**} < 0.01$, $P^{***} < 0.001$

④ 영농경험유무 차이

- 영농경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주거환경 및 생활서비스, 사생활 보장 및 안정, 농업소득 등 경제수준, 농업 외 일자리·일거리 등으로 분석됨
- 이상의 항목에서 영농경험이 있는 인원이 없는 인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1〉 전라북도 청년창업농의 영농경험유무별 생활수준 만족도

구 분		평균	S.D.	T
1.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	경험없음	4.14	1.24	-1.62
	경험있음	4.37	1.43	

구 분		평균	S.D.	T
2. 주거환경 및 생활서비스	경험없음	3.92	1.44	-2.05* (0.041)
	경험있음	4.23	1.44	
3. 도시와 접근성 및 교통여건	경험없음	3.88	1.57	-1.70
	경험있음	4.15	1.47	
4. 의료·복지 시설 및 서비스	경험없음	3.58	1.59	-2.02* (0.043)
	경험있음	3.91	1.52	
5. 문화·여가 시설 및 서비스	경험없음	3.35	1.59	-1.91
	경험있음	3.66	1.52	
6. 자녀 양육·돌봄·교육 환경	경험없음	3.44	1.44	-1.81
	경험있음	3.71	1.47	
7. 사생활 보장 및 안정 등	경험없음	3.70	1.46	-3.08** (0.002)
	경험있음	4.15	1.33	
8. 농업소득 등 경제수준	경험없음	3.34	1.39	-2.32* (0.021)
	경험있음	3.66	1.32	
9. 농업 외 일자리·일거리	경험없음	3.05	1.36	-3.02** (0.003)
	경험있음	3.47	1.31	

주 : $P^* < 0.05$, $P^{**} < 0.01$,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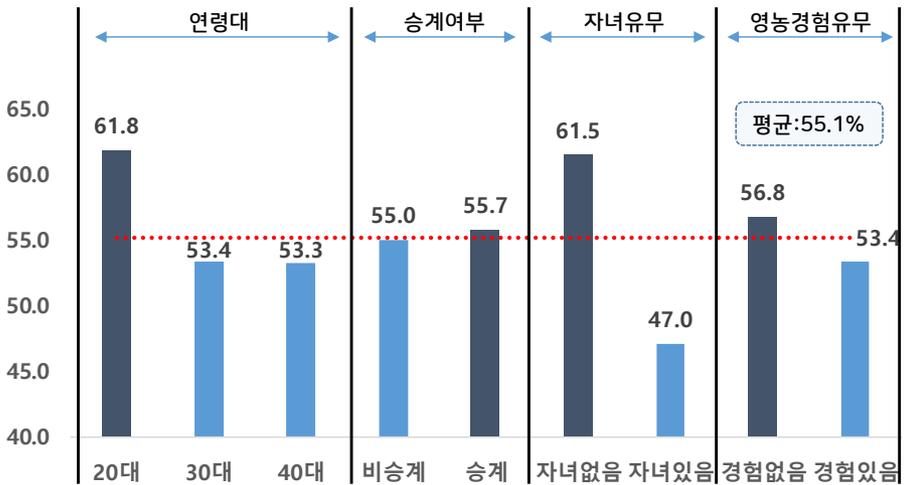
5. 정책 평가 및 수요

(1) 영농정착지원금 소비지출 비율

- 월 평균 소비지출 중에서 영농정착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55.1%로 조사됨
- 연령대에 따라 20대가 61.8%로 가장 높았으며, 30대(53.4)와 40대(53.3)는 평균이하의 비율로 나타남
- 승계농은 55.7% 수준이었으며, 자녀자녀가 없는 인원(61.5%)이 있는 인원(47.0%)보다 많은 지출성향을 보이고 있음⁶⁾
- 영농경험이 없는 인원(56.8%)이 있는 인원(53.4%)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6) 소비지출에서 영농정착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것으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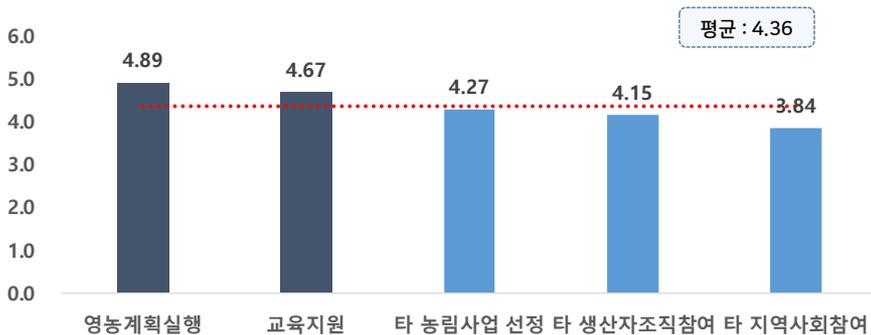
〈그림 4-11〉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유형별 영농정착지원금 소비지출 비율
(단위 : %)



(2) 지원사업 및 영농수준 평가

- 영농계획에 맞게 실행(4.89), 교육지원이 영농에 도움(4.67), 다른 농림사업 선정에 도움(4.27) 정도에 대하여 보통수준으로 평가하였음
- 반면에 다른 생산자조직 등 참여(4.15), 다른 지역사회 참여(3.84) 증가 정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2〉 전라북도 청년창업농의 지원사업 및 영농수준 평가



- 연령대에 따라 20대(4.75), 30대(4.28), 40대(4.24)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승계농(4.54)이 비승계농(4.2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 자녀가 없는 인원(4.46)이 있는 인원(4.24)보다 대체로 높게 평가하였으며, 영농경험이 있는 인원(4.53)이 없는 인원(4.18)보다 높게 평가함

〈표 4-22〉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유형별 지원사업 및 영농수준 평가

구분		영농계획 실행	교육 지원	타 농림 사업선정	타 생산자 조직참여	타 지역사회 참여	평균
연령 대	20대	5.04	5.07	4.64	4.66	4.34	4.75
	30대	4.88	4.55	4.26	4.01	3.71	4.28
	40대	4.80	4.62	3.98	4.05	3.72	4.24
승계 여부	비승계	4.82	4.58	4.06	4.01	3.61	4.22
	승계	4.99	4.80	4.52	4.29	4.12	4.54
자녀 유무	없음	4.88	4.73	4.46	4.21	4.04	4.46
	있음	4.91	4.59	4.06	4.06	3.57	4.24
영농 경험	없음	4.79	4.57	4.11	3.91	3.52	4.18
	있음	4.98	4.77	4.41	4.36	4.13	4.53
전체 평균		4.89	4.67	4.27	4.15	3.84	4.36

① 연령대별 차이

○ 연령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교육지원이 영농에 도움이 된 정도, 다른 생산자조직 참여 증가, 다른 지역사회 참여 증가 등이었으며, 이상의 항목에서 20대, 40대, 30대 순으로 높게 평가하였음

〈표 4-23〉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연령대별 지원사업 및 영농수준 평가

구분		평균	S.D.	F
1. 영농계획에 맞게 실행해가고 있다	20대	5.04	1.36	0.64
	30대	4.88	1.33	
	40대	4.80	1.36	
2. 교육지원이 영농에 도움이 되었다	20대	5.07	1.35	3.58* (0.029)
	30대	4.55	1.55	
	40대	4.62	1.14	
3. 다른 농림사업 선정에 도움이 되었다	20대	4.64	1.60	2.99
	30대	4.26	1.71	
	40대	3.98	1.76	

구 분		평균	S.D.	F
4. 다른 생산자조직 등에 참여가 늘었다	20대	4.66	1.55	4.96** (0.008)
	30대	4.01	1.57	
	40대	4.05	1.50	
5. 다른 지역사회 등에 참여가 늘었다	20대	4.34	1.67	4.53* (0.011)
	30대	3.71	1.65	
	40대	3.72	1.44	

주 : $P^* < 0.05$, $P^{**} < 0.01$, $P^{***} < 0.001$

② 승계여부 차이

○ 승계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다른 농림사업 선정에 도움이 된 정도, 다른 지역사회 참여 증가 등으로 분석됨

○ 이상의 항목에서 승계농이 비승계농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표 4-24〉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승계여부별 지원사업 및 영농수준 평가

구 분		평균	S.D.	T
1. 영농계획에 맞게 실행해가고 있다	비승계	4.82	1.36	-1.21
	승계	4.99	1.32	
2. 교육지원이 영농에 도움이 되었다	비승계	4.58	1.41	-1.41
	승계	4.80	1.47	
3. 다른 농림사업 선정에 도움이 되었다	비승계	4.06	1.75	-2.52* (0.012)
	승계	4.52	1.63	
4. 다른 생산자조직 등에 참여가 늘었다	비승계	4.01	1.56	-1.70
	승계	4.29	1.55	
5. 다른 지역사회 등에 참여가 늘었다	비승계	3.61	1.59	-3.06** (0.002)
	승계	4.12	1.61	

주 : $P^* < 0.05$, $P^{**} < 0.01$, $P^{***} < 0.001$

③ 자녀유무 차이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다른 농림사업 선정에 도움된 정도, 다른 지역사회 참여 증가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자녀가 없는 인원이 있는 경우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임

〈표 4-25〉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자녀유무별 지원사업 및 영농수준 평가

구 분		평균	S.D.	T
1. 영농계획에 맞게 실행해가고 있다	자녀없음	4.88	1.35	-0.24
	자녀있음	4.91	1.33	
2. 교육지원이 영농에 도움이 되었다	자녀없음	4.73	1.40	0.92
	자녀있음	4.59	1.48	
3. 다른 농림사업 선정에 도움이 되었다	자녀없음	4.46	1.61	2.23* (0.026)
	자녀있음	4.06	1.80	
4. 다른 생산자조직 등에 참여가 늘었다	자녀없음	4.21	1.60	0.87
	자녀있음	4.06	1.51	
5. 다른 지역사회 등에 참여가 늘었다	자녀없음	4.04	1.70	2.74** (0.006)
	자녀있음	3.57	1.48	

주 : $P^* < 0.05$, $P^{**} < 0.01$, $P^{***} < 0.001$

④ 영농경험유무 차이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다른 생산자조직 참여 증가, 다른 지역사회 참여 증가였으며, 영농경험이 있는 인원의 이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임

〈표 4-26〉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영농경험유무별 지원사업 및 영농수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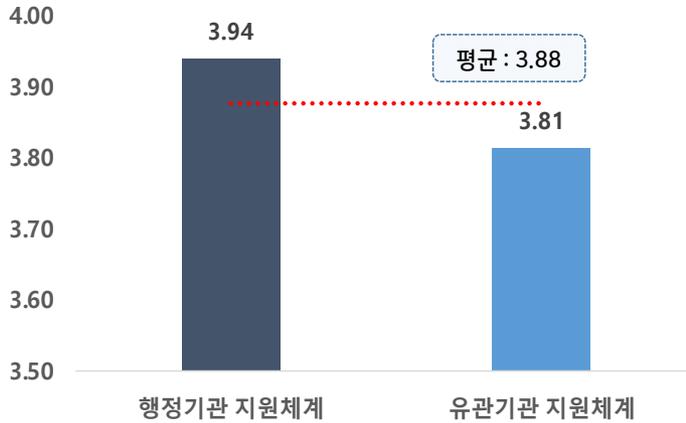
구 분		평균	S.D.	T
1. 영농계획에 맞게 실행해가고 있다	경험없음	4.79	1.31	-1.36
	경험있음	4.98	1.37	
2. 교육지원이 영농에 도움이 되었다	경험없음	4.57	1.41	-1.36
	경험있음	4.77	1.46	
3. 다른 농림사업 선정에 도움이 되었다	경험없음	4.11	1.79	-1.67
	경험있음	4.41	1.63	
4. 다른 생산자조직 등에 참여가 늘었다	경험없음	3.91	1.60	-2.75** (0.006)
	경험있음	4.36	1.51	
5. 다른 지역사회 등에 참여가 늘었다	경험없음	3.52	1.59	-3.63*** (0.000)
	경험있음	4.13	1.60	

주 : $P^* < 0.05$, $P^{**} < 0.01$, $P^{***} < 0.001$

(3) 농정조직 및 유관기관 만족정도

- 행정 등 농정조직의 지원체계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는 3.88(7점 척도) 수준이었으며,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역농협 등)과의 협력 및 지원 정도는 3.81 수준으로 비교적 낮게 평가하였음

〈그림 4-13〉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농정조직 및 유관기관 만족도



주 : 7점 리커트척도

〈표 4-27〉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농정조직 및 유관기관 만족도

구분		행정기관 지원체계	유관기관 지원체계	평균
연령대	20대	4.08	4.12	4.10
	30대	3.85	3.64	3.75
	40대	4.05	3.98	4.01
승계여부	비승계	3.71	3.58	3.64
	승계	4.23	4.12	4.18
자녀유무	없음	4.05	3.85	3.95
	있음	3.81	3.77	3.79
영농경험	없음	3.78	3.67	3.72
	있음	4.08	3.95	4.02
전체 평균		3.94	3.81	3.88

주 : 7점 리커트척도

- 연령대별로 20대(4.10)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전체 평균과 달리 행정 등 농정기관(4.08)보다 지역사회 유관기관(4.12)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승계농(4.18)이 비승계농(3.64)보다, 자녀가 없는 인원(3.95)이 있는 인원(3.79)보다, 영농경험이 있는 인원(4.02)이 없는 인원(3.72)의 만족도가 대체로 높게 응답하였음

① 연령대별 차이

- 연령대에 따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20대, 40대, 30대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표 4-28〉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연령대별 농정조직 및 유관기관 만족도

구 분		평균	S.D.	F
1. 행정 등 농정조직의 지원체계	20대	4.08	1.64	0.90
	30대	3.85	1.57	
	40대	4.05	1.29	
2. 지역사회 유관기관	20대	4.12	1.62	3.39* (0.035)
	30대	3.64	1.52	
	40대	3.98	1.29	

주 : $P^* < 0.05$, $P^{**} < 0.01$, $P^{***} < 0.001$

② 승계여부 차이

- 승계여부의 경우 모든 항목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승계농이 비승계농에 비해 상대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9〉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승계여부별 농정조직 및 유관기관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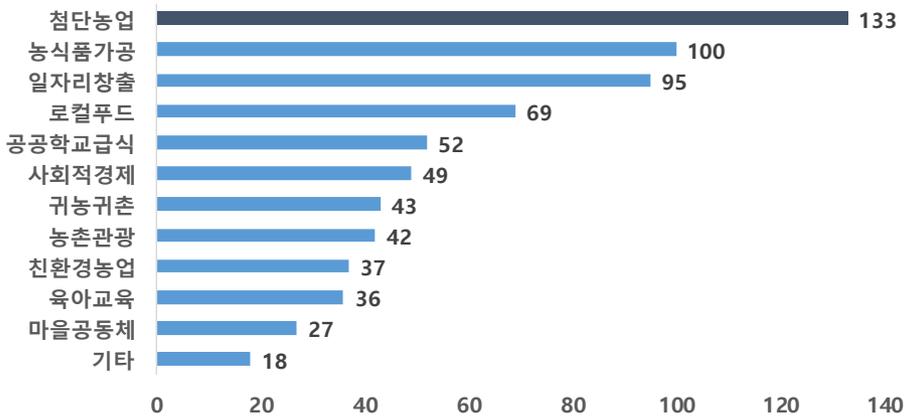
구 분		평균	S.D.	T
1. 행정 등 농정조직의 지원체계	비승계	3.71	1.59	-3.30** (0.001)
	승계	4.23	1.39	
2. 지역사회 유관기관	비승계	3.58	1.50	-3.51*** (0.000)
	승계	4.12	1.46	

주 : $P^* < 0.05$, $P^{**} < 0.01$, $P^{***} < 0.001$

(4) 청년창업농 육성 필요 연계사업

-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사업 가운데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해 연계가 필요한 영역은 첨단농업이 1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다음으로 농식품가공(14.3%), 일자리 창출(13.6%),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 등의 순이었음

〈그림 4-14〉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해 연계가 필요한 정책영역
(단위 : 명)



주 : 2개 중복 응답

제2절 청년창업농 면접조사

1. 조사 목적 및 내용

- 청년창업농의 진입과정과 영농정착 현황에 대한 실태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면접조사 진행하였음
- 통계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창농 동기와 준비과정의 어려움, 실제 경영현황과 영농정착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조사대상자는 청년창업농의 주요한 특성에 따라 지역별 분포, 주 품목, 승계여부, 성별, 결혼유무, 지원단위(농림축산식품부/전라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면접조사 대상자는 전라북도 담당부서로부터 추천받은 청년창업농 가운데 이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16명을 최종 선정하였음
- 조사기간은 2021년 10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대상자별 면접조사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진행함
- 주요 조사내용은 청년창업농 준비과정, 경영현황(영농기반 등), 농촌생활, 정책사업 등 영농정착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과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함

〈표 4-30〉 청년창업농 심층면접조사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일반현황	성별, 연령, 지역, 가족형태, 지역연고 등
준비·진입과정	창농유형, 창농시기, 농업전공 여부, 농업·농촌 경험, 창농전 거주지역 및 사회경험, 창농동기, 정보획득 방법, 준비과정, 사전교육, 지역선택 이유, 초기자금 마련 등
경영현황	자금마련, 농지확보, 경영형태, 영농규모, 시설규모, 농기계 보유현황, 생산 품목, 유통·판매 방법, 연차별 규모·품목·수익 변화, 농업소득, 영농목표 등
농촌생활	가계경제, 기타 소득활동, 지역주민 관계, 지역사회 활동, 주거, 정주환경, 문화·여가 생활, 창농전후 변화정도, 바우처 사용처 등
정책수요	지원사업 영향정도, 농림가업 연계 활용, 교육·컨설팅 경험, 모니터링 현황, 지자체 지원·관심 정도, 주된 문제의식, 개선방안 제안 등

2. 조사대상자 일반현황

- 조사대상자의 지역은 중서부 6명, 남서부와 서남부가 각각 5명이었으며, 남성이 62.5%(10명)로 여성보다 많음
- 연령을 기본으로 20대와 30대가 각각 7명, 40대가 2명이었으며, 농업계 전공자가 7명, 비전공자는 7명이었음
- 비승계 인원이 9명, 승계는 7명이며, 결혼유무는 각각 8명으로 같았음
- 지원단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87.5%(14명)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북형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인원은 2명이었음
- 현재 생산하고 있는 주 품목은 채소류 5명, 식량작물(벼 포함) 4명, 축산 2명 순으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각각 1명이 참여함

〈표 4-31〉 청년창업농 심층면접조사 조사대상자 현황

구분	지역	성별	연령대	전공여부	승계여부	결혼유무	주 품목	판로	지원단위
1	중서부	남	20대	비전공	비승계	미혼	기타	기업·직매장·급식	농식품부
2	중서부	여	20대	전공	승계	기혼	화훼	인터넷	농식품부
3	중서부	남	40대	비전공	비승계	기혼	채소	공판장	전북
4	중서부	남	20대	전공	승계	미혼	식량작물	수매	농식품부
5	중서부	남	30대	전공	비승계	미혼	식량작물	수매	농식품부
11	중서부	여	20대	전공	승계	미혼	채소	직거래	농식품부
6	서남부	여	20대	전공	비승계	미혼	채소	대형마트	농식품부
7	서남부	남	30대	비전공	비승계	기혼	채소	직매장·택배	농식품부
8	서남부	남	30대	비전공	비승계	기혼	식량작물	수매, SNS	농식품부
9	서남부	남	30대	전공	승계	기혼	축산	계통출하	농식품부
10	서남부	여	20대	전공	승계	미혼	축산	준비중	농식품부
12	동남부	남	30대	비전공	비승계	기혼	가공	대형마트·직거래	농식품부
13	동남부	남	30대	비전공	승계	기혼	과수	공판장	농식품부
14	동남부	남	40대	비전공	비승계	기혼	채소	대형마트	전북
15	동남부	여	30대	전공	승계	미혼	식량작물	업체·직매장	농식품부
16	동남부	여	20대	전공	비승계	미혼	특용	직거래·SNS	농식품부

* 지역 : 서남부(평야지대) - 정읍·김제·고창·부안, 동남부(중산간지대) -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중서부(도시근교) - 전주, 군산, 익산, 완주

* 주 품목(기타) : 채소·과수·식량작물 등 경종 품목 간 복합영농

3. 준비 및 진입 과정

(1) 정보수집 경로와 방법

- 관련 제도나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며, 전반적인 과정과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해주는 곳이 없었음
- 주로 인터넷과 지인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기가 지났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정보, 교육자료 등으로 인해 준비과정에서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음
- 매달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만 알고 들어오는 사례도 많음

(2) 창농동기와 지역선택

- 다양한 동기로 창농을 선택하고 있으며, 농업·농촌의 비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부모의 영향, 자라온 환경이 농업·농촌과 가까운 사례가 많음
- 고향(연고지)로 정착하거나 재배하려고 하는 품목에 적합한 지역을 고려하여 지역을 선택
- 농업계 전공자들이 진입초기에 유리한 측면은 있지만 본인의 전공분야와 사회경험을 통해 축적한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함

(3) 품목선정과 영농계획

- 고소득 작목, 작부체계를 고려해 연중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을 선택
- 승계농과 농업전공자의 경우 부모의 경험이나 풍부한 정보를 토대로 품목을 선정하지만 신규 진입자의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품목을 선택하는 경우 공동구매와 농기계 활용 등 생산단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었음

- 새로운 품목을 시도하거나 진입과정에서 품목을 전환해야하는 경우 지원 체계가 없어 어려움을 느낌
- 신청당시 5개년 영농계획을 제출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성하여 실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필요
- 창업과 같이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데 스스로 계획을 수립·조정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사업을 신청하다보니 실패확률이 높아짐
- 상대적으로 규모화에 성공한 경우 품목선정을 비롯해 철저한 분석을 통해 영농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준비에 많은 공을 들임

(4) 초기 자금마련 방법

- 대부분 용자지원사업을 통해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지인을 통해 확보하는 방식으로 마련
-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해 신용문제로 인한 자금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며, 농업 진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농협에서 거래실적, 비료구매, 매출실적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요건을 채울 수 없어서 대출을 받는 데에도 어려움으로 작용
- 전북형의 경우 농지나 시설·장비에 대한 연계사업이 없어 귀농창업자금 등 다양한 정책자금을 최대한 활용
- 화훼 등 시설원예의 경우 수도작보다 더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농지를 구입하는 것에 비해 대출이 어려움

4. 영농정책 과정

(1) 농지확보 문제

- 농지구입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으며, 최근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용자 3억원으로는 농업을 통한 당초 매출액 목표달성에 한계가 있음

- 농지은행의 공시지가보다 시세가 2배 이상 비싼 경우가 많은데 용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지구입에 어려움이 있음
- 농지은행을 통해 토지를 구하고자 했으나 좋은 농지는 전무한 상황이며, 토질이 좋지 못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 질이 좋은 농지는 대부분 기존 대농 위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자 간의 커넥션이 있어 필요한 농지구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지은행에서 임대를 신청할 때에도 인맥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고시공고를 통해 신청하면 오히려 취소해달라고 연락을 받기도함

(2) 교육지원 다양화 부족

- 교육과정은 많은데 대부분 이론과 기초적인 내용이며, 주요 작물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농가수가 적은 품목의 경우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필요한 교육은 직접 찾아서 듣는 편이며, 이론보다는 실용적인 내용,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음
-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과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 먼저 진입하여 성공한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많이 기울이며, 현실성과 현장감 있는 교육을 선호함

(3) 멘토링과 선도농가실습

- 주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 어려움을 겪음
- 멘토링을 통해 스터디그룹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필요
- 기존 멘토링 사업은 홍보·마케팅이나 법률 등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정작

필요한 농업기술 등 정보와는 거리가 있었음

- 선도농가실습 5개월 동안 매월 20일 이상 멘토 농가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본인 농장관리에 소홀해지고, 적당히 악용하는 사례도 있음

(4) 행정의 지원과 협력

- 지역마다 담당부서가 다르거나 명확하지 않고, 관리·지원에도 차이가 있으며, 담당 주무관이 자주 바뀌어 연속성을 잃어버리기 일쑤임
- 주로 초임 공무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기 어려웠던 경험이 많음
- (예) 청년창업농도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은행과 공무원이 몰라서 신청서류들을 챙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용자지원사업에서 청년창업농이 1순위라고 하지만(2030세대 2순위, 후계 농업경영인 3순위, 40대 농업인 4순위)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인식됨
- 농림사업에서도 청년창업농이 1순위라고 하지만 배점기준이 농지면적, 영농규모, 경작면적, 매출액 등으로 되어있어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짐

5. 경영현황

(1)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가중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인건비가 30~40% 가량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비중이 높은 품목의 경우 경영비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음
- 농번기에 인력난이 심각하고, 외국인들을 고용하는데에도 어려움이 많음
- 6차산업으로 경영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2·3차 산업의 비중을 높일수록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2) 용자상환 도래에 따른 어려움

- 현재 용자지원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조정되었으나 1기(2018년)의 경우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거치기간 3년, 5년 상황임
-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거치기간 동안 농업소득을 올리지 못해 4년차부터 4~5천 만원에 이르는 원금을 상환해야하는 위기에 노출되어 있음
- 원금상환이 어려워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음식배달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벌여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가 많음
- 과수, 축산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2~3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용자상환 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

(3) 시장경쟁력 제고 노력

- 농산물의 특성상 시장에서 레드오션이라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하여 전환을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
- 인터넷 쇼핑몰과 SNS 등을 활용한 판로개척을 시도하는 농가들의 경우 스토리텔링을 통한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음

(4) 생산자조직 참여 및 활동

- 비교적 연령이 낮은 경우 생산자조직에 대한 참여 및 활동이 미진함
- 승계농의 경우 부모세대가 생산자조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참여는 미진한 것으로 파악됨

(5) 영농확대 계획과 지원의 한계

- 유통 및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뤄져 고정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농가의 경우 영농규모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영농규모 확충을 위한 농림사업은 기존 대농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

고 있으며, 연계사업의 경우 가공·체험 등에 집중되어 있음

- 농업생산 기반이 안정적이지 못한 현실에서 소득증대를 위해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높은 2·3차 산업에 도전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음

(6) 농외소득을 위한 일거리 필요

- 초기에는 대부분 영농규모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희시간이 많아 시간을 활용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거리가 필요함
- 규모가 있는 영농조합 등 법인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비교적 정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음
- 영농 외 다른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농업법인 등에서 소득활동을 하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음
- 한편 농업·농촌형 사회적기업을 통해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데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밖에 없는 청년층도 취약계층에 해당함
- 영농기반이 취약한 청년창업농들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농장, 영농조합 법인 등을 통해 농업·농촌과 관련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됨

6. 농촌생활

(1) 영농정착지원금 사용처

- 대상자마다 상이하나 농업생산에 필요한 비료·농약·장비·주유 등을 구입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영농정착금을 지원받게 되면서 소비지출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지원기간 완료 후 지출규모를 줄여야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함
- 농업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농가, 특히 결혼한 가정에서 육아를 하는 경우

지원금이 당장의 생활비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함

(2) 부족한 인프라와 생활서비스

- 농촌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예상하고 진입하기 때문에 정주여건 등에 대한 불만은 적은 편이며, 정보화기기 사용과 이동성이 좋아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는 편임
- 지속적인 신규 유입을 위해서는 문화·의료·교육 등의 부족한 인프라와 생활서비스에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음
- 한편 인근 도시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영농활동을 유지하거나 정책사업을 받는 사례들에 대하여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음
- 즐길거리가 많지 않고, 혼자서 일하는 경우도 많아서 농촌생활에 익숙해질 때까지 심리적으로 많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됨

(3) 여성, 육아와 교육 문제

- 교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고, 육아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인해 가족들이 떨어져 지내는 사례도 있음
- 바쁜 영농철에 자녀들의 등하원 문제로 어려움이 많으며, 돌봄서비스가 있지만 거리가 멀어 꺼려하는 경우가 많고, 인원이 적어 비용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
- 물리적 거리로 인해 자녀들이 친구들과 어울리기에 어려운 환경조건
- 여성은 임신과 출산 기간에 영농활동에 대한 제약이 많고, 배우자에 따라서 정착지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적으로 불편함을 느낌

(4) 지역사회 융화와 주민갈등 문제

- 연고지가 아닌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거나 인정받기가 어려움

- 지역주민은 사회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 온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거나 생활방식이나 영농활동에 간섭하는 경우가 많음(사생활 보장 문제 등)
- 청년창업농 등록을 준비는 과정부터 농지를 구매·임대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 지역주민과의 관계형성에 성공한 사례들은 상호 도움을 주는 방식이나 지역농업을 잘 알고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어르신들을 멘토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음

(5) 네트워크 참여

- 청년창업농이 시행되면서 청년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바뀌는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음
- 지역적 차이는 있지만 주로 4-H를 중심으로 청년농업인의 커뮤니티와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편임
-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난해부터 모임이 어려워짐
-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한 반응은 좋은 편이지만 지역에 따라 예산활용이 제한이 있고, 친목 중심의 모임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수준임
- 시·군에서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워크숍·간담회 등 다양한 모임들이 추진하고 있으며, 소통과 교류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
- 다양한 행사나 자리에서 '청년'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홍보와 이미지화에 소모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7. 정책수요

(1) 지원대상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추진

- 창업농과 후계농, 승계농과 비승계농 간에 차이가 존재함에도 동일한 사

업으로 지원하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승계농의 경우 부모가 기반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농지구입보다 노후 시설을 교체하는 등 고민의 출발선이 다음
- 신규농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이뤄내야 하는 상황에서 영농정착을 위한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세밀한 지원이 절실함
- 정책대상을 완전승계농, 부분승계농, 신규농 등으로 분리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 대상별로 가이드라인(안내책자)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농업경영과 영농정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을 요구함

(2) 물가수준을 반영한 융자 지원

- 융자지원자금이 최대 3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농지 및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 소득증대를 위한 충분한 영농기반 확보가 어려운 현실
- 적정 소득을 달성하지 못하면 청창농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

(3) 융자지원 거치 및 상환 기간 연장

- 1기(2018년)에 대하여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
- 청년창업농이 농업소득을 통해 융자를 상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융자지원 사업 재설계와 장기상환 대책마련이 요구됨

(4) 시설·장비 대출조건 완화

- 시설 및 장비 마련을 위해 농협 대출을 고려하고 있지만 농지와 달리 담보가 없어 조달이 불가능하거나 금액이 적은 형편임
- 농지확보에 모든 자금력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투자는 더욱 어려운 실정임

(5) 행정과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소통

- 행정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네트워크가 비활성화되거나 소통의 부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
- 행정과 청창농과의 소통과 교류는 정보공유 측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6) 장기적인 지원과 대상 확대

- 영농정착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 해 농사를 망친 경우 이를 복구할 자본이 없다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사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사업종료 후에도 연계할 수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해줄 것을 요청
- 대상연령을 50세까지 높일 필요가 있으며, 40~50대의 경우 30대 이하보다 자본력과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영농정착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

(7)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청년창업농들이 어떻게 사는지 영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책임과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음
- 지원사업 완료 후에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을 했는지, 상황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함
- 멘토가 농장을 돌면서 정기적으로 지도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

(8) 정책사업 대상선정 강화

- 지원금이 정말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되도록 의료보험 등 단순한 기준이 아니라 면밀한 검토와 선정기준이 필요함(부정운용 신고제 등 고려)
- 서류와 1회 면접만으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대상을 판별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기간을 두어 교류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함

- 청년창업농에 선정되었지만 서류상 농지명의만 만들고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아예 다른 직업을 갖고 생활하는 사례들이 많음
- 지역사회에서 인맥에 대한 중요성을 경험하게 되는데 청년창업농을 비롯해서 각종 사업을 신청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공정성이 요구됨

(9) 경영안정성 제고 방안

-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빚쟁이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지원방안이 요구됨
- 1년 이상 장기과정을 통해 직접 품목을 선택하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험을 갖도록 한 이후 사업을 신청하는 방식이 필요함
- 이론교육도 중요하지만 임대농장과 같이 실제 농업경영을 통해 창농과정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훈련과정이 요구됨(예 : 김제스마트팜혁신벨리 청년임대농장)

제3절 조사결과 종합

1. 조사결과 요약

(1) 실태조사 결과

- 도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18~'21년) 선정자 957명을 대상으로 영농정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응답률 38.7%)
 - '비승계농'과 '승계농'은 각각 54.9%, 45.1%로 비슷한 수준이며, 영농경험도 '없음'이 47.7%, '있음'이 52.3%로 파악됨
 - 경영체등록은 개인이 95.9%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독립경영은 1년차가 30.5%, 2년차가 28.8%를 차지하며, 비전공자가 74.8%로 조사됨
- 준비 및 진입 과정
 - 창농의 주요 동기는 '농업의 비전과 매력'이 34.9%로 가장 많고, 지역 선택 이유는 '고향 및 연고지'가 54.9%로 과반을 차지함
 - 농업창업 직전 직업으로는 판매서비스(21.8%), 사무관리(21.3%)의 비중이 높고, 창업 준비기간은 1~2년 미만(46.9%)이 가장 많았음
 - 농업창업 시 애로사항은 자금확보(31.4%), 농지확보(27.9%), 농지 외 기반 마련(17.1%) 순이었음
- 영농 및 정착 현황
 - 주요 재배 품목은 채소·과채(시설 21.6%, 노지 6.8%), 벼(23.5%), 식량작물(17.6%), 한우(9.7%), 과수(9.2%) 순이었음
 - 평균 재배면적은 선정당시 1,663평에서 2020년 4,783.6평으로 약 2.9배 상승하였으며, 소유면적은 665.8평에서 1,602.7평으로 약 2.4배 상승함
 - 비승계농의 전체면적 증가율은 승계농에 비해 높았으나 소유면적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음
 - 평균 농가소득은 선정당시 2,232만원에서 2021년 3,400만원으로 11.3% 증가하였으며, 농업소득은 약 1.8배 증가한 반면 농외소득은 34.1% 감소
 - 비승계농의 전체면적 증가율 대비 농업소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
 - 영농규모는 확대(73.3%), 유지(19.1%), 미결정(5.4%), 축소(1.1%) 순임
 - 영농정착과정에서 느낀 전반적인 어려움 정도는 5.07(7점 척도) 수준이며,

- 항목별로는 영농기반확보(5.92), 자금확보(5.87), 인력확보(5.56) 순이었음
- 모든 유형에서 영농기반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30대(6.07), 비승계(6.04), 자녀있음(5.96), 영농경험 없음(6.07)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은 보통(4.26)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며, 농업 외 일자리·일거리(3.27), 경제수준(3.51), 문화·여가(3.51), 자녀 양육·교육(3.58), 의료·복지, 사생활보장·안전, 교통여건 순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정책 평가 및 수요

- 월 평균 소비지출에서 영농정착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55.1%이며, 20대(61.8%), 30대(53.4), 40대(53.3) 순으로 높았음
- 영농계획에 맞게 실행계획(4.89), 교육지원이 영농에 도움(4.67), 다른 농업사업 선정에 도움(4.27) 정도는 보통수준으로 평가함
- 반면에 다른 생산자조직 참여(4.15)와 다른 지역사회 참여(3.84) 증가 정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정조직 지원체계(3.94), 유관기관 협력·지원(3.81)는 비교적 낮게 평가함
-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해 연계가 필요한 영역은 첨단농업(19.0%), 농식품가공(14.3%), 일자리창출(13.6%) 순으로 높게 나타남

(2) 면접조사 결과

- 청년창업농의 집입과정과 영농정착 실태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면접조사 추가로 진행하였음(창업농 특성을 고려, 도내 16명 조사)

○ 준비 및 진입 과정

- 관련 제도·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인터넷·지인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부모·환경 등 영향이 크게 작용
- 정착지의 주 생산 작목이나 연중생산이 가능한 고소득 작목을 선택하고 있으며, 영농계획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어 어려움을 겪음
- 대부분 융자지원을 통해 영농기반을 마련, 개인조건에 따라 어려움 발생

○ 영농정착 과정

- 가장 큰 애로사항은 농지구입으로 지가상승, 농지은행 이용의 어려움 호소
- 교육 프로그램은 이론보다는 실용성과 시장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선호하며, 자신의 영농활동을 고려한 멘토링과 선도농가실습 지원을 요구
- 지역마다 담당부서와 관리·지원 내용이 상이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연속

성이 저해되며, 농림사업 우선지원에 대한 현실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경영현황

- 인건비 상승, 용자상환, 영농확대에 따른 지원규모의 한계 등 어려움 호소
- 인터넷 쇼핑몰과 SNS 등을 활용한 판로개척 등에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
- 연령이 낮거나 부모공동경영의 경우 생산자조직 참여·활동이 미진한 편임
- 농외소득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영농 외 활동 제한으로 기회가 한정적임

○ 농촌생활

- 정주여건 등에 대한 불만은 적은 편이지만, 문화·의료·교육 등의 부족한 인프라와 생활서비스에 장기 대책 마련 필요(특히 육아·교육 문제 취약)
-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거나 인정받기 어렵지만 영농활동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
- 4-H 중심으로 커뮤니티와 네트워킹이 이뤄지고 있으며, 청년대상 다양한 워크숍·간담회 등이 추진되지만 홍보와 이미지화 소모에 대한 우려도 존재

○ 정책수요

- 창업농/후계농, 승계농/비승계농 등 지원대상 차이를 고려한 정책 요구
- 물가수준과 영농계획을 고려한 용자 지원과 거치·상환 기간의 연장 필요
- 장기적인 접근과 지원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정책사업 대상선정에 대한 강화, 창농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경영안정성 제고 방안 등 요청

2. 정책의 시사점

○ 도내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다양한 동기와 사회경험을 가진 청년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의 시각과 수요를 고려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개선이 요구됨

- 실태조사 결과 창농 직전 직업으로 판매서비스(21.8%), 사무관리(21.3%) 등 농업 외 직종에 종사하거나 비전공자(74.8%), 영농경험이 없는 인원(47.7%), 기혼(50.5%) 등 다양한 구성을 보임
- 창농의 동기가 다양한 가운데 농업에 대한 비전과 매력(34.9%), 가정환경 영향(23.4%)이 주된 동기로 응답할 만큼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창농을 위한 준비기간은 2년 미만(71.4%)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진행되고 있으며, 충분한 정보제공과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갖춰있지 않아 정착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둘째, 승계농과 비승계농의 차이가 확연한 가운데 비승계농의 경우 영농 기반과 생활수준 등 대부분 항목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준비 및 영농 정착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관심과 지원방식이 요구됨

- 이러한 특징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영농정착과정에서 비승계농이 영농기반, 자금, 기술, 네트워크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비승계농의 전체 농지면적 증가율 대비 소유면적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며, 농업소득 역시 승계농에 비해 낮아 임차 등을 통한 경영비 지출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됨
-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도 승계농(4.37)에 비해 비승계농(4.17)의 만족도가 낮았으며, 특히 농업외 일자리·일거리, 경제수준, 사생활 보장·안전 항목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게 평가됨

○ 셋째,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정책 사업은 진입초기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용자지원과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에 집중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농업창업 준비과정에서 자금확보(31.4%), 농지확보(27.9%), 농지 외 기반 마련(17.1%) 등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 이는 창농이후 영농정착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영농기반 확보(5.92), 자금확보(5.87), 인력확보(5.56) 등에 대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농업·농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온전히 감내하며, 개인의 선택에 대한 결과로 책임을 전가하는 단기적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
- 단순한 보조금 지급방식을 통한 정책사업이 대부분이며, 영농정착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경영지원 및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인 관점의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됨

○ 넷째, 청년창업농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과 농촌사회 정착을 필요한 생

활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됨

- 표면적으로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률은 91.3~91.4% 수준이지만 의무사항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며, 정착의 '질'에 집중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4.26)에 비해 농업 외 일자리·일거리(3.27), 경제수준(3.51), 문화·여가(3.51), 자녀 양육·교육(3.58) 등 모든 항목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여 농촌사회 정착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과제로 제기됨
- 청년들이 농촌사회와 융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며, 청년들의 시각과 필요에서 정책을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요구되는 시점임
- 기상재해와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경영위기에 처해있는 청년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함
-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영농기반과 농업기술뿐만 아니라 농촌사회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생활역량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야함

○ 다섯째, 지역사회와 관계형성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단절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 접근방식의 개선이 요구됨

- 창업농·후계농 등 정책사업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있지만 시작단계부터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홀로서기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임
- 지역농업을 지탱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청년들은 삶을 유지하기에도 벅찬 상황에 놓여있음
- 청년창업농 선정이후 다른 생산조직 참여(4.15)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3.84)에 대한 증가 정도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 준비단계부터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선행적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역량을 높여가는 연수의 과정으로 정책을 전환해야할 것임
- 단순히 청년들이 유입된다고 해서 농촌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청년과 지역이 서로 대상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극복해가는 노력이 필요함
- 농촌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협력을 이끌어내고, 단순한 농업생산자가 아니라 지역의 주체로 성장해갈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이 중요함

○ 여섯째, 창농 이전과 이후까지 책임지는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행정 등 농정조직의 지원체계(3.9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3.81)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함

- 청년창업능 정책의 경우 중앙정부의 사업을 지자체가 단순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차원의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못함
-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지역 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가는 것이 과제임

5

장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육성 방안

Jeonbuk Institute

-
1. 정책 방향
 2. 추진 전략
 3. 중점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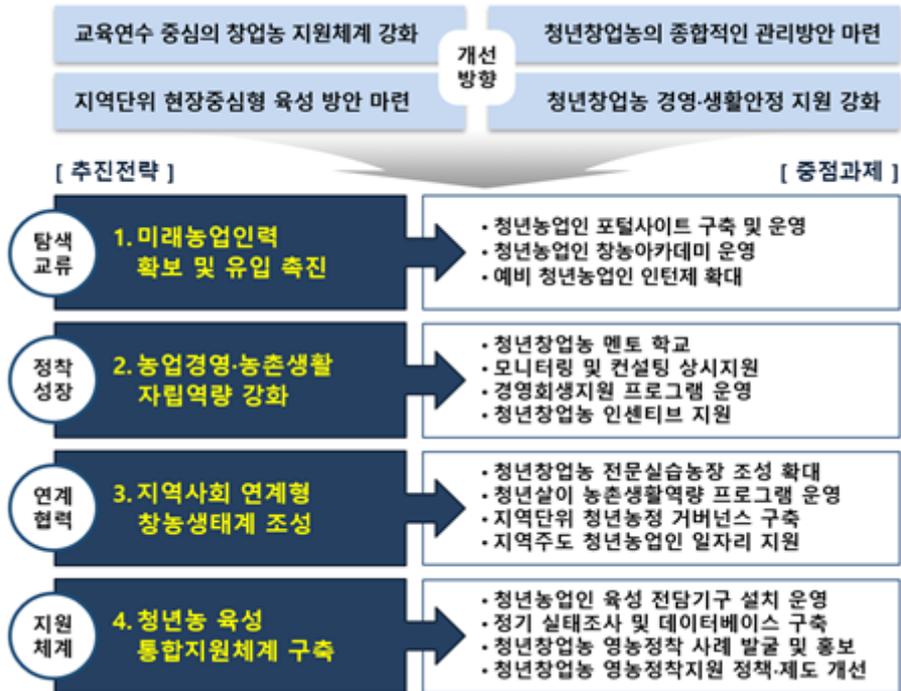
제 5 장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육성 방안

제1절 정책 방향

1. 교육연수 중심의 창업농 지원체계 강화

- 지금까지 추진해온 청년창업농의 ‘수’를 늘리는 방식에서 영농정착의 ‘질’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됨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을 위해서 현장에 밀착하여 문제를 정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

〈그림 5-1〉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육성 방안



- 보조금 중심의 일회성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청년농업인의 능동적인 학습과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연수중심의 지원체계로 전환
- 청년농업인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교류 및 연계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연착륙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

2. 청년창업농의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

- 안정적인 청년창업을 위해 사전적 준비와 선형적 실습과정을 중시하고, 영농계획의 실행가능성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
- 창농을 위한 탐색단계부터 영농정착과 사업완료 이후 과정까지 일원화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마련
- 청년창업농 육성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는 등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
- 종합계획의 시행과 정책사업 추진을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융합행정 실현하고, 관련 기관·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3. 지역단위 현장중심형 육성 방안 마련

- 청년농업인이 지역농업을 혁신해가는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준비된 정도와 역할수행이 가장 중요
- 기관중심의 일방향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직접적인 교육공간이 되어 필요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지원해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함
- 지역사회가 다양한 주체들이 학습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해가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가는 훈련과 축적의 과정이 필요
- 청년들에게 선형적 경험과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

- 이를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 방식의 지역단위 청년농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

4. 청년창업농 경영·생활안정 지원 강화

- 청년창업농의 영농활동을 통한 경영의 안정성과 농촌생활 정착에 필요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재정비해야함
- 청년층의 창농 및 취농에 대한 수요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관점의 정책사업 발굴 및 자원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승계농과 비승계농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사업 지원이 요구되며, 영농기반과 생활수준 등에서 취약한 비승계농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함
- 청년창업농의 경영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부서·사업 간 연계를 통해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주요한 과제임

제2절 추진전략

1. 탐색·교류 → 미래농업인력 확보 및 유입 촉진

- 잠재적 미래농업인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청년농업인이 지역에 유입될 수 있도록 탐색 및 진입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
- 청년창업농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지역농업을 홍보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선도지역 이미지를 선점
- 예비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 수립과 실행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창발성을 확산시킬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부족한 영농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고용형 취농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과 영농실행 과정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

〈표 5-1〉 '미래농업인력 확보 및 유입 촉진' 중점과제

중 점 과 제	주 요 내 용
청년농업인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	창농·취농 등 청년농업인 관련 종합콘텐츠 제공
청년농업인 창농아카데미 운영	예비 청년농업인 창농과정, 사업화 과정 등 운영
예비 청년농업인 인턴제 확대	미취업자 대상, 농업법인 인턴과정 급여 50% 지원

2. 정착·성장 → 농업경영·농촌생활 자립역량 강화

-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와 문제에 대응해갈 수 있도록 지역의 지원체제와 네트워크를 강화
- 농업경영과 농촌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청년농업인과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
- 영농정착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영농계획 실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시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 경영위기에 놓인 청년농업인의 영농활동 유지와 경영회생을 위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건실한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영농정착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한 청년창업농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실행의지와 정책효과를 제고

〈표 5-2〉 '농업경영·농촌생활 자립역량 강화' 중점과제

중 점 과 제	주 요 내 용
청년창업농 멘토 학교	청년농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멘토 활동비 지원
모니터링 및 컨설팅 상시지원	정기 모니터링, 현장방문 컨설팅지원단 상시운영
경영회생지원 프로그램 운영	융자상환 대상 저금리 적용 및 이자보전, 경영회생지원 프로그램 지원, 농지매입사업과 연계 환매권 보장 등
청년창업농 인센티브 지원	영농정착과정 성실이행 청년동 시상 및 인센티브 지원

3. 연계·협력 → 지역사회 연계형 창농생태계 조성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년들의 창농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실습농장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연수과정으로 운영
- 농촌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지식·태도 등을 학습하고,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농업인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역농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당사자성을 제고(삼락농정위원회 참여)
- 청년들이 농촌사회의 구성원이자 활동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분야에 특화된 지역주도형 일자리 발굴 및 연계 활성화 추진

〈표 5-3〉 '농업경영·농촌생활 자립역량 강화' 중점과제

중 점 과 제	주 요 내 용
청년창업농 전문실습농장 조성 확대	청년창업농 전문실습농장 조성 지원 및 실습교육 운영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 운영, 주거공간 연계 지원 등
청년살이 농촌생활역량 프로그램 운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과 연계추진 청년창업농 농촌생활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단위 청년농정 거버넌스 구축	삼락농정위원회 청년농업인 현안대응 TF 운영 삼락농정포럼, 시·군단위 청년농업인 거버넌스 지원
지역주도 청년농업인 일자리 지원	만39세 이하 청년, 임금지원(2년, 월1백만원 한도)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조직 등 일자리 연계

4. 지원체계 → 청년농 육성 통합지원체계 구축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담기구인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가칭 :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종합지원센터)을 설치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
- 포털사이트 운영, 실태조사, 상담 및 모니터링, 상시 컨설팅지원단 운영, 네트워크 구축,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발굴·확산 등 기능과 역할 수행

- 도와 시·군,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등 연계협력을 통한 정책의 확장성과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 청년농업인 육성 종합계획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결과와 통계자료의 통합 DB를 구축
-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농업인의 예측가능한 창농과 정착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농지확보를 위한 농지은행 지원방식 개선 : 시세 반영, 공정경쟁
 - 지원대상 구분 맞춤형 지원사업 개선 : 창업농/후계농, 승계농/비승계농
 - 융자지원자금 상향 및 대출조건 완화 : 지가 상승 반영, 심사기준 강화
 - 영농기반 마련 융자지원 거치 및 장기상환 전환 : 1기('18년) 소급조정
 - 영농정착지원금 정책기간과 바우처 자율설계 지원 : 5년 내 하향 조정
 - 청년창업농 선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 교류·연수경험 중시
 -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농외소득 경제활동 완화 : 취약계층 청년 농업·농촌형 사회적기업, 사회적농장, 영농조합법인 등 경제활동 지원 등

〈표 5-4〉 '청년농 육성 통합지원체계 구축' 중점과제

중 점 과 제	주 요 내 용
청년농업인 육성 전담기구 설치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등 필요경비 등 지원 포털사이트, 매뉴얼, 실태조사, 상담, 모니터링, 컨설팅지원단, 네트워크, 사례 발굴·확산, 정보제공 등 담당
정기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년 단위 정기 실태조사 및 통합DB 구축 조사항목 및 지표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사례 발굴 및 홍보	영농정착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콘테스트 개최 사례집 발간 및 온라인 홍보 등 추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정책·제도 개선	농지은행 개선, 지원대상 구분 맞춤형 지원, 융자지원 상향 및 대출조건 완화, 융자지원 거치·상환기간 연장, 영농정착지원 기간 및 바우처 자율설계, 청년창업농 선정 지방정부 권한 강화, 농외소득 경제활동 완화 등

제3절 중 점 과 제

1) 탐색·교류 → 미래농업인력 확보 및 유입 촉진

(1) 청년농업인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

목적 및 필요성

- 창농에 관한 정책, 제도 등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이 없어 탐색 및 진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주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착안하여 청년창업농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⁷⁾는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며,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례가 없음
- 창농·취농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선도지역 이미지를 선점하는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

추진방안

-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농 및 취농 등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
- 전라북도 지원정책과 다양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지역선택 등 유입을 촉진하는데 주력
- 시·군 및 관련 기관·조직(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결하여 관련 정보에 대한 확장성을 강화

7)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https://www.mafra.go.kr/young/index.do>

주요내용

- 지원내용 :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 지원
- 운영주체 :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종합지원센터
- 주요내용 : 창농·취농 등 청년농업인 관련 종합콘텐츠 제공
 - 관련 정책 및 제도, 지원체계 등 정보제공
 - 청년농업인 정책사업 관리, 커뮤니티 지원
 - 청년농업인 통합DB 업데이트, 영농정착 사례 홍보 등

(2) 청년농업인 창농아카데미 운영

목적 및 필요성

-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영농을 기획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
- 청년농업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추진방안

-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청년농업인 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과정 운영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 청년농업인
- 지원내용 : 2개 과정 운영
 - 예비 청년농업인 창농과정 : 비전 및 가치창출 역량개발 → 영농기획 및 실행계획 수립 → 발표 평가 → 전문가 컨설팅
 - 청년농업인 사업화 과정 : 아이디어 발굴 → 사업기획 → 전문가 컨설팅 → 공모사업 대응

(3) 예비 청년농업인 인턴제 확대

목적 및 필요성

- 영농경험이 없는 청년농업인의 창농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지원 방안 필요
- 예비 청년농업인이 창농에 앞서 부족한 영농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추진방안

- 예비 청년농업인 등록, 도내 농업법인 등과 연계하여 인턴제 과정에 참여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만 45세 미만 미취업자(농업전공자 및 귀농·귀촌 희망자 등)
-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등
- 지원내용 : 급여의 50% 지원(월 100만원 한도)
 -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영농기반 지원사업 선정 우대

2) 정착·성장 → 농업경영·농촌생활 자립역량 강화

(1) 청년창업농 멘토 학교

목적 및 필요성

-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경제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농정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네트워크에 한계가 있음
- 농업과 농촌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고,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과 방안을 제시해주는 모델이 필요

추진방안

- 안정적으로 정착한 청년농업인의 경험과 사례 공유를 통해 학습하고, 이들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주요내용

- ‘청년창업농, 기뻐 나무를 찾다’ 멘토 학교 운영
- 청년창업농을 위한 교육 및 멘토 지원사업 추진
 - 청년창업농의 기초역량, 선호 교육주체와 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요조사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향을 설정
 - 관련 기관과 협약을 통해 농업·농촌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교육생과 수강생, 기수별 모임 운영 지원
- 교육 수료생을 강사진 또는 멘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비 지원

(2) 모니터링 및 컨설팅 상시지원

목적 및 필요성

-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정책 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임
-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과정에서 농업기술, 농장관리, 품목전환 등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실효적인 영농계획 수립과 실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하여 교류하면서 지도해주는 방식을 선호함

추진방안

- 전문가가 농장을 방문하여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한 영농기술과 경영역량을 지원하는 방식의 상시 컨설팅을 지원
- 청년창업농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영농

현황과 용자상환 수준을 점검하여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 지원체계를 마련

주요내용

청년창업농 정기 모니터링 실시

-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영농정착 현황 및 애로사항 등 파악
- 시·군 담당자와 연계한 상시점검 및 사후관리 지원체계 구축

현장방문 컨설팅지원단 운영

-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지원단 구성, 현장방문을 통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영농계획 실행·조정, 영농기술, 농장관리 등 상시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3) 경영회생지원 프로그램 운영

목적 및 필요성

- 기상이변,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농업기반이 무너지거나 농업소득이 저조해 경영위기에 놓인 청년창업농이 증가하고 있음
- 용자지원금 상환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경영위기에 처해있는 청년농들이 배달·건설 등 위험한 노동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임
- 경영위기에 처해있는 청년창업농이 영농활동을 유지하면서 건실한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제 대책이 필요

추진방안

-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경영위기 수준을 진단하여 지원대상을 선정
- 영농활동을 유지하면서 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지원

주요내용

- 용자상환기간이 도래한 경영위기 청년농업인 대상 저금리 적용 및 이자보전 지원 확대

-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컨설팅 등 경영회생지원 프로그램 지원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한국농어촌공사)과 연계하여 용자를 상환하고, 매입농지에 대한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

(4) 청년창업농 인센티브 지원

목적 및 필요성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단순히 바우처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인식개선이 요구됨
- 영농계획에 맞춰 영농정착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한 청년농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행의지를 높이는 방안을 도입

추진방안

- 청년창업농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영농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 마련

주요내용

- 영농정착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한 우수 청년농 선정 및 시상
- 연계가능한 정책사업, 추가 시설 및 장비 등 인센티브 지원

3) 연계·협력 → 지역사회 연계형 창농생태계 조성

(1) 청년창업농 전문실습농장 조성 확대

목적 및 필요성

- 연수과정을 통해 영농활동과 농촌사회 정착을 위한 선행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실습형 지원체계를 마련

- 장기교육을 통해 경영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자립 역량과 연락처를 지원함으로써 정착률을 제고

추진방안

- 시·군과 민간의 실습농장을 확대 조성하고, 연수 완료 후 임대방식을 통해 협업농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 영농기반과 생활수준 등에서 취약한 신규 청년농업인과 비승계농을 중심으로 기초적인 역량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중
- 행정안전부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 귀농·귀촌지원정책, 전라북도 생생마을만들기 정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
- 주요 사례 : 금산 체류형농업창업교육센터, 순창 귀농귀촌지원센터, 흥성젊은협업농장, 곡성 향꾸네협동조합 등

주요내용

- 청년창업농 전문실습농장 조성 지원 : 농업기술센터, 법인경영체 등
 - 시·군별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연수완료 후 청년들의 협업농장으로 확장할 경우 추가 지원
- 6개월~1년 동안 생산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해 실습교육 운영
- 영농교육과 더불어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 연수기간 동안 생생마을, 귀농인의 집, 체류형 거점시설 등과 연계하여 주거공간 등 제공

(2) 청년살이 농촌생활역량 프로그램 운영

목적 및 필요성

- 농촌은 생산의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일터, 쉼터, 삶

터, 공동체터로 다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 귀농·귀촌인에 대한 농업중심의 교육지원체제로 인해 농촌생활에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필요한 기술, 태도, 지식 등을 갖추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농촌에서 필요한 생활역량을 키우며, 자신의 역량을 농촌사회에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농촌사회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농촌생활역량 프로그램의 기획과 시행이 필요함

□ 추진방안

- 교육주관 :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 교육주체 :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관련 기관·단체
- 교육내용 : 농촌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지식·태도 등을 학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청년창업농이 농촌사회의 구성원이자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지원

□ 주요내용

- 전라북도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조원지 외, 2021)과 연계하여 청년창업농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농촌생활역량교육 코디네이터의 지역별 청년창업농 교육수요조사 및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 맞춤형 커리큘럼 구성
- 프로그램(안) : 적정기술, 기획, 디자인, 영상, 생활농사, 먹거리교육 등
- 지역 공동시설, 공공기관, 관련 교육기관·단체의 공간에서 코디네이터가 교육을 운영·관리
- 교육수료생은 농촌생활역량교육프로그램 강사진이나 보조지원자로 활용 가능

(3) 지역단위 청년농정 거버넌스 구축

목적 및 필요성

- 청년농업인 관련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당사자성이 부족한 현실이며, 현장의 문제를 직접해결하기 위한 참여구조가 요구됨
- 질적으로 청년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기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 자율성과 주체성 확보가 필요하며, 논의되고 제안된 내용에 대한 결정권이 필요
- 청년농업인의 관점에서 정책이 발굴되고 시행되도록 참여형 지역농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추진방안

-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청년농업인 정책과 현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논의기구를 마련
- 삼락농정과 연계하여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농업인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을 지원

주요내용

- 삼락농정위원회 청년농업인 현안대응 TF 운영
 - 청년농업인의 문제를 정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가는 과정으로 운영
 - TF 운영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운영 및 분과 전환 등 추진방식 검토
- 삼락농정포럼을 통해 청년농업인 정책세미나 및 워크숍 등 지원
- 시·군 지역단위 청년농업인 거버넌스 운영 지원

(4) 지역주도 청년농업인 일자리 지원

목적 및 필요성

-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정착할 수 있

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사업을 추진

-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 과소화와 지역소멸 이슈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유지에 기여

추진방안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농업·농촌 분야에 특화된 지역사회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 전라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공공급식, 로컬푸드 등 농촌사회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농촌사회 활동역량을 강화는 교육과정 의무화 : 직무교육, 자격증 취득 등
- 지원완료 후 고용승계 또는 코디네이터, 퍼실리테이터, 컨설턴트, 로컬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해당 시·군 주민등록 유지)
- 지원분야 : 마을기업(마을공동법인), 중간지원조직,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지원조직, 사회적경제조직 등
- 지원내용 : 2년간 2,400만원 임금 지원(월 100만원 한도)

4) 지원체계 → 청년농 육성 통합지원체계 구축

(1) 청년농업인 육성 전담기구 설치 운영

목적 및 필요성

- 청년들의 창농과 취농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을 담당할 전담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

- 귀농·귀촌과 마을만들기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 도와 시·군 단위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청년들의 창농과 정착을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함
- 전담조직을 통해 창농을 위한 탐색 및 준비 과정부터 유입과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추진방안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담기구인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을 설치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
-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 2019.10)」에 전담기구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지원근거를 마련
-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등과 연계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

□ 주요내용

- ‘(가칭)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 포털사이트 운영 및 관련 정책 등 정보제공
 - 창농 대상 및 과정별 정책지원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청년창업농 육성 전 과정에 대한 사업관리 및 정기 실태조사 진행
 - 청년창업농 상담 및 모니터링 진행, 상시 컨설팅지원단 운영 활성화
 - 관련 기관·조직 네트워크 구축 및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사례 발굴 및 확산, 뉴스레터(소식지) 발간 등

(2) 정기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목적 및 필요성

-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 2019.10)」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종합계획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 도내 청년농업인의 영농과 정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됨
- 청년농업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영농정착과 생활상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실효적인 계획수립과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

□ 추진방안

- '청년농업인 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DB 구축 및 관리 방안을 마련
-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통계 구축을 통해 정책의 평가와 수립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해가는 방안을 마련

□ 주요내용

-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2년 단위) 진행
 - 청년창업농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 일반 청년농업인의 경우 샘플조사 진행
- 실태조사 항목 및 지표 개발, 조사 운영 및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준비 및 진입 과정 : 창농동기, 지역·품목 선택 이유, 준비기간, 교육내용, 준비과정에 겪은 애로사항 등
 - 영농 및 정착 현황 : 주력 품목, 영농 시설·장비, 영농규모 변화, 농가소득 변화, 영농계획, 영농정착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 등
 - 농촌사회 생활수준 : 주거환경, 생활서비스, 교통, 의료, 복지, 문화·여가, 양육·교육, 사생활보장, 생활안전, 경제소득, 일자리·일거리 등
 - 정책 평가 및 수요 : 정책사업 평가, 영농수준 평가, 행정지원 평가, 유관

기관 협력정도, 정책사업 수요 등

-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및 관련 통계자료 구축

(3)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사례 발굴 및 홍보

목적 및 필요성

- 농촌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예측가능한 창농과 정착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여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
- 재촌보다 귀농하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에서 실효적인 정보제공과 유대감 형성을 통해 도내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례중심의 홍보를 강화

추진방안

- 소득과 영농규모를 내세운 성과중심의 우수사례는 청년층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선정에 주의가 요구됨
- 창농과 농촌사회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거나 청년층의 도전정신과 창발성을 실천해가는 사례에 초점을 맞춰 선정
- 다양한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의 관련 정책 및 지원 현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

주요내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콘테스트 개최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사례집 발간 및 온라인 홍보 등 추진

(4)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정책·제도 개선

목적 및 필요성

- 청년창업농 정책지원 및 연계사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영농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

- 도내의 경우 용자상황에 따른 리스크 경감 등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과 대상별·상황별 맞춤형 지원정책에 대한 요청이 많은 상황임
-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코로나19 확산 등 재난재해 발생,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와 특성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에 자발적으로 대응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대책이 요구됨

추진방안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창업농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
-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한 예산지원 및 가용자원의 활용방안 마련
- 관련 정책·제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은 지키되 청년창업농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해가는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

주요내용

① 농지확보를 위한 농지은행 지원방식 개선

- 청년창업농 대부분이 농지기반 마련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지은행 이용한 지원방식에 개선을 요구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에서 시세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공정한 경쟁방식에 의한 운영체제로 개편을 요구

② 지원대상 구분과 맞춤형 지원사업 개선

- 창업농과 후계농, 승계농과 비승계농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구분
-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재설계하고, 비승계농(신규농)의 영농정착을 보다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③ 용자지원자금 상향 및 대출조건 완화

- 지가 상승과 시세를 반영하여 용자지원자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해가는 방식으로 보완

- 시설 및 장비 마련을 위한 추가 용자지원의 경우 지원금액과 대출조건을 완화하여 충분한 영농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④ 영농기반 마련 용자지원 거치 및 상환 기간 연장

- 청년창업농이 농업소득을 통해 용자를 상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용자지원 사업 재설계와 장기상환 대책마련이 요구됨
- 특히 청년창업농 1기(2018년) 선정자에 대하여 상환조건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소급조정해줄 것을 요청

⑤ 영농정착지원금 정책기간과 바우처 자율설계 지원

-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기간은 현재의 지원기간인 3년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사업기간을 5년 이상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요구됨
- 대상별 영농계획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내에서 영농정착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요청
-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사업종료로 인해 급격하게 지출규모를 줄여야하는 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고려

⑥ 청년창업농 선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 청년창업농 선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육성하고자하는 청년농업인상에 적합한 인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됨
-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혁신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와 연수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정기준을 강화

⑦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농외소득 경제활동 완화

- 농업경영은 직접 영농활동 외에 다양한 경험과 역량이 요구되는 직군이지만 영농 외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있어 자기개발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영농기반이 취약한 신규농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역량과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창업농들이 농업·농촌형 사회적기업, 사회적농장,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경제활동을 통한 역량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됨

참고문헌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 김정호·강정일·김경덕·정영환·최은아(2015),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등 창출방안 연구, (사)환경농업연구원
- 김기흥(2016),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정책 추진 방향, 충남연구원
- 김기흥(2019), 충남의 청년 농업인 농지 접근 실태 분석 및 농지 확보 방안, 충남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201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
- 농림축산식품부(2021), 『농림어업총조사』
- 농림축산식품부(201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8~2022)
- 농림축산식품부(2020), 『농림어업조사』
- 농림축산식품부(2021), 『귀농어·귀촌인통계』
- 농림축산식품부(2020), 2021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웹사이트 <https://www.mafra.go.kr/young/index.do>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6.11.22.), “농식품부,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17~21) 추진” - “귀농귀촌 인구 50만, 농촌인구 증가 시대”·청년 귀농 창업, 귀농·귀촌인의 정착 지원 역점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4.2.), “2021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1,800명 선발” - 선발인원 확대(전년대비 200명↑)로 청년층의 농업 유입 활성화 기대
- 마상진·정은미·김경인(2017),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수행·이상훈·김정호·박정지(2018), 경기도 청년농부 육성 지원방안, 경기연구원
- 일본 농림수산업성(2020),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
- 일본 농림수산업성(2021), 레이와3년도 식료·농업·농촌 시책
- 장민기·황수철·유리나·이도현·황수진·김기현·정상택·송기선·노순웅·이지은·권재현

(2020),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사)농정
연구센터·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전라북도(2019),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증장기 종합계획(2020~2024)

부록

-
1.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실태조사 설문조사표
 2.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실태조사 분석결과

부록-1.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실태조사 설문조사표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와 (재)전북연구원은 '청년창업농 영농실태와 정착지원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도내 청년창업농의 영농현황과 정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지속적인 청년층 유입 및 정착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자료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개인의 인정사항이나 응답내용)는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와 제34조(통계종사자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 조사기관 : (재)전북연구원,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 연구책임 : 배균기 부연구위원 063-280-7138, ojikred@jthink.kr
- 조사담당(문의) : 이병훈 전문연구원 063-280-7184, bonita1935@jthink.kr

응답자 일반현황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거주 시군	①전주 ②군산 ③익산 ④경읍 ⑤남원 ⑥김제 ⑦완주 ⑧진안 ⑨무주 ⑩장수 ⑪임실 ⑫순창 ⑬고창 ⑭부안
결혼 여부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이혼 등)
자녀 유무	① 자녀없음 ② 자녀있음
부모세대 동거유무	① 부모와 동거 ② 독립가구
창업농 선정시기	① 2018년 ② 2019년 ③ 2020년 ④ 2021년
독립경영 연차	① 1년차 ② 2년차 ③ 3년차 ④ 졸업자
창업농 선정이전 영농경험	① 없음 ② 있음
농업계 학교 전공유무	① 해당없음 ② 농업계 학교 졸업
승계농 여부	① 비승계농 ② 승계농
농업경영체 등록 유형	① 개인 ② 농업법인 ③ 등록준비 중 ④ 기타

준비 및 진입 과정

1. 귀하가 농업 창업을 결정하게 된 주요 동기(계기)는 무엇입니까? (2개 응답)

- ① 가정환경이 농업·농촌과 가까워서 ② 관련 전공(학업)을 살리고 싶어서
- ③ 영농활동, 농촌생활이 적성에 맞아서 ④ 새로운 일자리의 선택수단
- ⑤ 농업이 비전과 매력이라고 판단해서 ⑥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해 ⑦ 기타

2. 귀하가 현재의 지역을 선택했던 주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응답)

- ① 고향 또는 연고지 ② 품목 선택에 유리 ③ 정책지원 풍부 ④ 생활여건이 좋아서
- ⑤ 대도시 접근성 유리 ⑥ 농촌경관이 좋아서 ⑦ 기타

3. 귀하의 농업 창업 직전에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농어업 ② 제조·생산 ③ 판매·서비스 ④ 사무·관리 ⑤ 연구·전문직 ⑥ 학생 ⑦ 미취업

4. 귀하가 농업 창업을 시작하기 위해 소요한 준비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년 미만 ② 1~2년 ③ 2~3년 ④ 3~4년 ⑤ 4년 이상

5. 귀하가 농업 창업을 위해 받은 교육 중 영농정착과정에 도움이 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2개 응답)

- ① 농산물 재배 및 사양 기술 ② 농산물 가공기술 ③ 농기계 이용 ④ 판매 및 마케팅
- ⑤ 농업경영관리 ⑥ 농촌 체험 및 관광 ⑦ 기타

6. 귀하가 농업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2개 응답)

- ① 농지 확보 ② 농지 외 기반 마련 ③ 자금 확보 ④ 기술습득 ⑤ 가족 간 갈등
- ⑥ 영농계획 수립 ⑦ 정보습득 ⑧ 멘토 구하기 ⑨ 기타

영농 및 정착 현황

1. 귀하의 현재 주 품목은 무엇입니까? (매출액 기준 1순위)

- ① 벼 ② 벼외 식량작물(콩·옥수수·감자·고구마 등) ③ 노지 채소·과채
- ④ 시설 채소·과채 ⑤ 과수 ⑥ 버섯 ⑦ 약용·특용작물 ⑧ 화훼/조경
- ⑨ 한우 ⑩ 양돈 ⑪ 젖소(낙농) ⑫ 양계·오리 ⑬ 기타 축산(양봉·곤충 등)

2. 귀하가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영농시설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 ① 비닐하우스 ② 유리온실 ③ 축사 ④ 저온저장고 ⑤ 사무실
- ⑥ 가공시설 ⑦ 창고 ⑧ 기타()

3. 귀하가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농기계·장비를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 ① 트랙터 ② S-S기 ③ 이앙기 ④ 콤바인 ⑤ 관리기 ⑥ 농산물건조기
- ⑦ 곡물건조기 ⑧ 농업용 트럭 ⑨ 농업용 드론 ⑩ 기타()

4. 청년창업농 선정이전과 비교한 귀하의 현재 영농규모 변화는 어떠하십니까?

※ 2021년 선정자는 현재 수준만 응답, 영농기반이 없으시면 '0'으로 응답

사업선정 당시 영농규모	구분	2021년 현재 영농규모
평	①전체 농지면적(평)	평
평	②본인소유 면적(평)	평
마리	③축산 사육두수(마리)	마리

5. 청년창업농 선정이전과 비교한 농가소득(연간)은 대략 어느 정도 변화하였습니까?

※ 2020~2021년 선정자는 2020년 기준 소득현황만 응답, 소득이 없으시면 '0'으로 응답

사업선정 당시 농가소득	구분	2020년 기준 농가소득
만원	①농업소득 (농업 생산+가공+판매 등)	만원
만원	②농외소득 (농업이외 활동 소득, 영농정착지원금 제외)	만원

6. 귀하는 앞으로 영농규모를 변화할 계획이십니까?

- ① 확대 ② 축소 ③ 유지 ④ 포기(타 산업으로 전환) ⑤ 미결정

7. 다음의 각 항목별로 귀하가 '영농정착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의 정도는 어떠한지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 → 매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영농기반 확보(농지·시설·장비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② 자금 확보(운영·관리비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③ 영농기술 확보(비용절감, 고품질 생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④ 경영역량 확보(회계관리, 경영관리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⑤ 인력 확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⑥ 판로 확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⑦ 네트워크(조직·모임 활동, 인맥관리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다음의 각 항목별로 귀하의 현재 '생활수준에 만족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매우 불만족 ← 보통 →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② 주거환경 및 생활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③ 도시와 접근성 및 교통여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④ 의료·복지 시설 및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⑤ 문화·여가 시설 및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⑥ 자녀 양육·돌봄·교육 환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⑦ 사생활 보장 및 안정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농업소득 등 경제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농업 외 일자리·일거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정책 평가 및 수요

1. 귀하의 월 평균 소비지출에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바우처)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월 평균 지출액 규모의 약 _____%)

2.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현재의 '영농수준'에 대하여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전혀 아니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① 청년창업농 선정으로 영농계획에 맞게 실행해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② 청년창업농 선정이후 교육지원이 영농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③ 청년창업농 선정이 다른 농림(보조)사업 선정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④ 청년창업농 선정이후 다른 생산자(농업)조직 등에 참여가 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⑤ 청년창업농 선정이후 다른 지역사회(조직) 등에 참여가 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다음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매우 불만족		←	보통	→	매우 만족	
① 행정 등 농정조직의 지원체계(사업지원·정보제공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②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역농협 등)과의 협력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다음에 제시된 전라북도 정책사업 중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해 연계가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응답)

- ① 로컬푸드 ② 공공급식·학교급식 ③ 친환경농업 ④ 첨단농업(스마트팜 등) ⑤ 귀농·귀촌
 ⑥ 농촌관광 ⑦ 농식품가공 ⑧ 마을공동체 ⑨ 사회적경제 ⑩ 육아·교육
 ⑪ 농어촌 일자리 창출 ⑫ 기타

※ 귀하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이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시오.

“성실한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록-2.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실태조사 분석결과

1. 응답자 현황

□ 일반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63	84.0	64	82.1	90	78.9	73	70.2	290	78.2
	여성	12	16.0	14	17.9	24	21.1	31	29.8	81	21.8
	계	75	100.0	78	100.0	114	100.0	104	100.0	371	100.0
연령대	20대	8	10.7	17	21.8	25	21.9	23	22.1	73	19.7
	30대	43	57.3	40	51.3	64	56.1	68	65.4	215	58.0
	40대	24	32.0	21	26.9	25	21.9	13	12.5	83	22.4
	계	75	100.0	78	100.0	114	100.0	104	100.0	371	100.0
지역	전주	2	2.7	3	3.8	3	2.6	3	2.9	11	3.0
	군산	6	8.0	11	14.1	10	8.8	11	10.6	38	10.2
	익산	11	14.7	12	15.4	13	11.4	13	12.5	49	13.2
	정읍	6	8.0	6	7.7	10	8.8	14	13.5	36	9.7
	남원	7	9.3	4	5.1	8	7.0	3	2.9	22	5.9
	김제	7	9.3	12	15.4	19	16.7	16	15.4	54	14.6
	완주	9	12.0	4	5.1	13	11.4	5	4.8	31	8.4
	진안	4	5.3	3	3.8	3	2.6	4	3.8	14	3.8
	무주	3	4.0	4	5.1	4	3.5	3	2.9	14	3.8
	장수	4	5.3	0	0.0	8	7.0	5	4.8	17	4.6
	임실	3	4.0	4	5.1	4	3.5	5	4.8	16	4.3
	순창	3	4.0	4	5.1	4	3.5	2	1.9	13	3.5
	고창	8	10.7	6	7.7	8	7.0	10	9.6	32	8.6
	부안	2	2.7	5	6.4	7	6.1	10	9.6	24	6.5
계	75	100.0	78	100.0	114	100.0	104	100.0	371	100.0	
자녀 유무	없음	33	44.0	43	55.1	67	59.3	61	59.2	204	55.3
	있음	42	56.0	35	44.9	46	40.7	42	40.8	165	44.7
	계	75	100.0	78	100.0	113	100.0	103	100.0	369	100.0
결혼 여부	미혼	28	37.8	35	47.3	57	51.4	51	52.0	171	47.9
	기혼	46	62.2	39	52.7	54	48.6	47	48.0	186	52.1
	계	74	100.0	74	100.0	111	100.0	98	100.0	357	100.0
부모 동거	동거	13	17.3	19	24.4	36	31.6	24	23.8	92	25.0
	비동거	62	82.7	59	75.6	78	68.4	77	76.2	276	75.0
	계	75	100.0	78	100.0	114	100.0	101	100.0	368	100.0

□ 영농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빈도(명)	비율(%)								
승계 여부	비승계	49	65.3	38	49.4	65	57.5	50	48.5	202	54.9
	승계	26	34.7	39	50.6	48	42.5	53	51.5	166	45.1
	계	75	100.0	77	100.0	113	100.0	103	100.0	368	100.0
독립 영농	1년차	0	0.0	1	1.3	17	14.9	95	91.3	113	30.5
	2년차	0	0.0	14	17.9	86	75.4	7	6.7	107	28.8
	3년차	31	41.3	52	66.7	11	9.6	1	1.0	95	25.6
	4년차	44	58.7	11	14.1	0	0.0	1	1.0	56	15.1
	계	75	100.0	78	100.0	114	100.0	104	100.0	371	100.0
농전권유	없음	47	62.7	59	76.6	90	79.6	80	76.9	276	74.8
	있음	28	37.3	18	23.4	23	20.4	24	23.1	93	25.2
	계	75	100.0	77	100.0	113	100.0	104	100.0	369	100.0
영농방법	없음	31	41.3	33	42.3	60	52.6	53	51.0	177	47.7
	있음	44	58.7	45	57.7	54	47.4	51	49.0	194	52.3
	계	75	100.0	78	100.0	114	100.0	104	100.0	371	100.0
경영체 등록	개인	70	93.3	78	100.0	109	96.5	98	94.2	355	95.9
	농업법인	5	6.7	0	0.0	0	0.0	1	1.0	6	1.6
	등록준비	0	0.0	0	0.0	4	3.5	4	3.8	8	2.2
	기타	0	0.0	0	0.0	0	0.0	1	1.0	1	0.3
	계	75	100.0	78	100.0	113	100.0	104	100.0	370	100.0

2. 준비 및 진입과정

□ 농업 창업을 결정하게 된 주요 동기(계기)

구분	가정환경 접근성		전공위해		농촌적성		일자리		농업비전		도시 회의감		기타		합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2018년	22	18.3	6	5.0	19	15.8	11	9.2	46	38.3	8	6.7	8	6.7	120	100.0
2019년	32	23.7	7	5.2	22	16.3	17	12.6	47	34.8	9	6.7	1	0.7	135	100.0
2020년	46	23.0	10	5.0	28	14.0	32	16.0	66	33.0	9	4.5	9	4.5	200	100.0
2021년	49	26.9	10	5.5	26	14.3	20	11.0	63	34.6	12	6.6	2	1.1	182	100.0
합 계	149	23.4	33	5.2	95	14.9	80	12.6	222	34.9	38	6.0	20	3.1	637	100.0

주 : 2개 중복 응답

□ 현재 지역을 선택한 주요 이유

구 분	고향		품목유리		정책지원 공부		좋은 생활여건		높은 도시접근성		좋은 농촌경관		기타		합 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2018년	58	52.7	20	18.2	2	1.8	6	5.5	6	5.5	5	4.5	13	11.8	110	100.0
2019년	69	58.5	19	16.1	3	2.5	8	6.8	3	2.5	6	5.1	10	8.5	118	100.0
2020년	90	50.3	35	19.6	10	5.6	11	6.1	5	2.8	12	6.7	16	8.9	179	100.0
2021년	93	58.9	15	9.5	10	6.3	13	8.2	9	5.7	9	5.7	9	5.7	158	100.0
합 계	310	54.9	89	15.8	25	4.4	38	6.7	23	4.1	32	5.7	48	8.5	565	100.0

주 : 2개 중복 응답

□ 농업 창업 직전의 직업

구 분	농어업		제조생산		판매 서비스		사무관리		연구 전문직		학생		미취업		합 계	
	빈도 (명)	비율 (%)														
2018년	8	10.7	9	12.0	14	18.7	21	28.0	8	10.7	13	17.3	2	2.7	75	100.0
2019년	8	10.3	13	16.7	17	21.8	14	17.9	8	10.3	13	16.7	5	6.4	78	100.0
2020년	8	7.0	10	8.8	26	22.8	25	21.9	20	17.5	19	16.7	6	5.3	114	100.0
2021년	7	6.7	13	12.5	24	23.1	19	18.3	19	18.3	17	16.3	5	4.8	104	100.0
합 계	31	8.4	45	12.1	81	21.8	79	21.3	55	14.8	62	16.7	18	4.9	371	100.0

□ 농업 창업 준비기간

구 분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년 이상		합 계	
	빈도 (명)	비율 (%)										
2018년	21	28.0	28	37.3	9	12.0	8	10.7	9	12.0	75	100.0
2019년	22	28.2	38	48.7	11	14.1	3	3.8	4	5.1	78	100.0
2020년	22	19.3	53	46.5	21	18.4	9	7.9	9	7.9	114	100.0
2021년	26	25.0	55	52.9	12	11.5	4	3.8	7	6.7	104	100.0
합 계	91	24.5	174	46.9	53	14.3	24	6.5	29	7.8	371	100.0

□ 농업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애로사항)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빈도 (명)	비율 (%)								
농지확보	39	27.5	34	23.0	65	30.1	58	29.4	196	27.9
농지외기반마련	28	19.7	32	21.6	33	15.3	27	13.7	120	17.1
자금확보	49	34.5	48	32.4	64	29.6	60	30.5	221	31.4
기술습득	8	5.6	14	9.5	23	10.6	19	9.6	64	9.1
가족갈등	8	5.6	9	6.1	11	5.1	15	7.6	43	6.1
영농계획	1	0.7	5	3.4	5	2.3	9	4.6	20	2.8
정보습득	5	3.5	2	1.4	11	5.1	6	3.0	24	3.4
멘토구하기	3	2.1	2	1.4	0	0.0	3	1.5	8	1.1
기타	1	0.7	2	1.4	4	1.9	0	0.0	7	1.0
합 계	142	100.0	148	100.0	216	100.0	197	100.0	703	100.0

주 : 2개 중복 응답

3. 영농 및 정착 현황

□ 주요 재배 품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빈도 (명)	비율 (%)								
벼	13	17.3	18	23.1	23	20.2	33	32.0	87	23.5
벼외식량작물	12	16.0	16	20.5	19	16.7	18	17.5	65	17.6
노지채소과채	5	6.7	5	6.4	9	7.9	6	5.8	25	6.8
시설채소과채	17	22.7	18	23.1	25	21.9	20	19.4	80	21.6
과 수	10	13.3	6	7.7	7	6.1	11	10.7	34	9.2
버섯	3	4.0	0	0.0	3	2.6	0	0.0	6	1.6
약용특용	1	1.3	0	0.0	0	0.0	0	0.0	1	0.3
화훼조경	1	1.3	2	2.6	4	3.5	1	1.0	8	2.2
한 우	7	9.3	8	10.3	15	13.2	6	5.8	36	9.7
양 돈	0	0.0	0	0.0	2	1.8	0	0.0	2	0.5
젖 소	1	1.3	1	1.3	1	0.9	5	4.9	8	2.2
양계오리	2	2.7	0	0.0	5	4.4	1	1.0	8	2.2
기 타	3	4.0	4	5.1	1	0.9	2	1.9	10	2.7
합 계	75	100.0	78	100.0	114	100.0	103	100.0	370	100.0

주 : 매출액 기준 1순위

□ 보유 영농시설

구분	비닐 하우스		유리 온실		축사		저온 저장고		사무실		가공 시설		창고		기타		합계	
	빈도 (명)	비율 (%)																
2018년	43	31.9	0	0.0	13	9.6	29	21.5	13	9.6	8	5.9	23	17.0	6	4.4	135	100.0
2019년	38	31.1	0	0.0	17	13.9	22	18.0	11	9.0	3	2.5	24	19.7	7	5.7	122	100.0
2020년	46	25.4	0	0.0	29	16.0	27	14.9	16	8.8	6	3.3	44	24.3	13	7.2	181	100.0
2021년	44	29.9	2	1.4	16	10.9	17	11.6	14	9.5	5	3.4	32	21.8	17	11.6	147	100.0
합계	171	29.2	2	0.3	75	12.8	95	16.2	54	9.2	22	3.8	123	21.0	43	7.4	585	100.0

주 : 모두 응답

□ 보유 농기계·장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빈도 (명)	비율 (%)								
트랙터	35	17.8	42	23.1	49	21.9	42	21.3	168	21.0
S-S기	6	3.0	5	2.7	4	1.8	2	1.0	17	2.1
이앙기	17	8.6	20	11.0	19	8.5	18	9.1	74	9.3
콤바인	15	7.6	11	6.0	16	7.1	12	6.1	54	6.8
관리기	22	11.2	23	12.6	23	10.3	21	10.7	89	11.1
농산물건조기	22	11.2	14	7.7	25	11.2	18	9.1	79	9.9
곡물건조기	13	6.6	17	9.3	16	7.1	14	7.1	60	7.5
농업용트럭	43	21.8	30	16.5	44	19.6	37	18.8	154	19.3
농업용드론	13	6.6	12	6.6	8	3.6	9	4.6	42	5.3
기타	11	5.6	8	4.4	20	8.9	24	12.2	63	7.9
합계	197	100.0	182	100.0	224	100.0	197	100.0	800	100.0

주 : 모두 응답

□ 재배면적(평균) 변화

구분	소유면적(평)			비소유면적(평)			전체면적(평)		
	선정당시 (A)	2021년 (B)	차이 (B)-(A)	선정당시 (A)	2021년 (B)	차이 (B)-(A)	선정당시 (A)	2021년 (B)	차이 (B)-(A)
2018년	980	2,478	1,498	1,379	4,130	2,751	2,359	6,608	4,249
2019년	676	2,099	1,423	1,134	4,453	3,318	1,810	6,552	4,742
2020년	452	1,364	912	652	3,265	2,613	1,104	4,629	3,525
2021년	-	860	-	-	1,451	-	-	2,311	-
평균	666	1,603	937	997	3,181	2,184	1,663	4,784	3,121

□ 연간 농가소득(평균) 변화

구분	농업소득(만원)			농외소득(만원)			농가소득(만원)		
	선정당시 (A)	2021년 (B)	차이 (B)-(A)	선정당시 (A)	2021년 (B)	차이 (B)-(A)	선정당시 (A)	2021년 (B)	차이 (B)-(A)
2018년	2,121	6,781	4,661	837	379	-458	2,958	7,160	4,203
2019년	1,154	2,872	1,718	318	379	61	1,473	3,252	1,779
2020년	-	2,354	-	-	525	-	-	2,879	-
2021년	-	1,137	-	-	234	-	-	1,371	-
평균	1,651	3,017	1,366	581	383	-198	2,232	3,400	1,168

□ 향후 영농규모 계획

구분	확대		축소		유지		포기		미결정		합계	
	빈도 (명)	비율 (%)										
2018년	48	17.8	2	50.0	20	28.6	1	25.0	2	10.0	73	19.9
2019년	54	20.1	1	25.0	20	28.6	0	0.0	3	15.0	78	21.3
2020년	84	31.2	1	25.0	19	27.1	2	50.0	7	35.0	113	30.8
2021년	83	30.9	0	0.0	11	15.7	1	25.0	8	40.0	103	28.1
합계	269	100	4	100	70	100	4	100	20	100	367	100

□ 영농정착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정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영농기반확보	6.05	5.94	5.93	5.81	5.92
자금 확보	6.09	5.77	5.75	5.92	5.87
영농기술 확보	4.43	4.64	4.88	4.96	4.76
경영역량 확보	4.31	4.65	4.63	4.56	4.55
인력 확보	5.69	5.66	5.49	5.47	5.56
판로 확보	4.49	4.45	4.79	4.73	4.64
네트워크	3.83	4.12	4.31	4.30	4.17
평균	4.98	5.03	5.11	5.11	5.07

주 : 7점 척도

현재 생활수준에 만족하는 정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평 균
삶의질수준	4.61	4.14	4.35	4.00	4.26
주거환경및생활서비스	4.21	4.06	4.08	4.00	4.08
도시와접근성및교통여건	4.07	4.03	4.13	3.86	4.02
의료·복지시설및서비스	3.44	3.97	3.88	3.66	3.75
문화·여가시설및서비스	3.40	3.77	3.55	3.36	3.51
자녀양육·돌봄·교육환경	3.70	3.43	3.66	3.53	3.58
사생활보장및안정등	4.04	3.95	4.02	3.74	3.93
농업소득등경제수준	3.87	3.55	3.49	3.23	3.51
농업외일자리·일거리	3.40	3.42	3.21	3.12	3.27
평 균	3.86	3.81	3.82	3.61	3.77

주 : 7점 척도

4. 정책 평가 및 수요

월 평균 소비지출에서 영농정착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평 균
평 균	46.1%	54.2%	57.9%	58.8%	55.0%
S.D	29.2%	29.9%	28.0%	26.8%	28.6%

지원사업 및 영농수준에 대한 평가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평 균
영농계획 실행 정도	5.14	4.86	4.98	4.65	4.89
교육지원 도움 정도	4.38	4.62	4.83	4.76	4.67
다른 농림사업 선정 도움 정도	4.28	4.38	4.24	4.21	4.27
다른 생산자조직 참여 증가 정도	4.15	4.31	4.06	4.12	4.15
다른 지역사회 등 참여 증가 정도	3.68	3.92	3.83	3.89	3.84
평 균	4.32	4.42	4.39	4.33	4.36

주 : 7점 척도

□ 농정조직 및 유관기관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평 균
행정 등 농정조직 지원체계	4.07	3.97	3.97	3.79	3.94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지원	3.75	3.92	3.86	3.72	3.81
평 균	3.91	3.95	3.92	3.75	3.88

주 : 7점 척도

□ 청년창업농 육성 필요연계사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빈도 (명)	비율 (%)								
로컬푸드	17	11.9	13	8.8	17	8.2	22	10.8	69	9.8
공공·학교급식	15	10.5	6	4.1	18	8.7	13	6.4	52	7.4
친환경농업	6	4.2	9	6.1	11	5.3	11	5.4	37	5.3
첨단농업(스마트팜 등)	28	19.6	27	18.4	39	18.8	39	19.2	133	19.0
귀농·귀촌	8	5.6	7	4.8	11	5.3	17	8.4	43	6.1
농촌관광	9	6.3	7	4.8	14	6.7	12	5.9	42	6.0
농식품가공	15	10.5	27	18.4	32	15.4	26	12.8	100	14.3
마을공동체	3	2.1	6	4.1	10	4.8	8	3.9	27	3.9
사회적경제	8	5.6	14	9.5	15	7.2	12	5.9	49	7.0
육아·교육	13	9.1	4	2.7	7	3.4	12	5.9	36	5.1
농어촌 일자리 창출	16	11.2	22	15.0	31	14.9	26	12.8	95	13.6
기 타	5	3.5	5	3.4	3	1.4	5	2.5	18	2.6
합 계	143	100.0	147	100.0	208	100.0	203	100.0	701	100.0

주 : 2개 중복 응답

정책연구 2021-21

청년창업농 영농실태와 정착지원 개선방안 연구

발행인 | 권혁남

발행일 |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47-6 935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